

Modern Sulfur T... ..

파리의 나비부인

정귀선지음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랑
없는 존재의 가비함
그 사랑이 다되어
어느 날

파리 오페라단 최초의 한국인 소프라노 가수였던
정귀선씨의 자전소설



서울에서 빠리로

74년 여름, 28살의 나는 유럽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한국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이 비행기 안에서 만난 예기치 못한 행운에서부터 풀어나가고자 한다.

당시 나는 삶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살보다는 해외 도피를 선택했다. 그래서 짧은 영어와 불어 실력, 4백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다. 일단 노르웨이까지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되어지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쉽게 갈 수 있었다.

드디어 빠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후부터 나는 온통 불안노가 걱정애 휩싸였다. 몸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정신이 아찔했고 빠리에 가까워올수록 긴장감으로 심장이 크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빠리에는 아무 연고도 없을뿐더러 마땅한 거처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오면서 빠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 동창의 연락처만 달랑 들고 떠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삶을 포기했음에도 삶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저 오만가지 걱정애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그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귀에 익은 한국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환청이 아닐까 숨을 죽이고 들어봐도 그것을 분명 내게 너무도 친숙한 한국말이었다.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마음껏 다닌다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고, 더욱이 노르웨이에서 빠리로 가는 조그만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순간 나는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말소리를 따라가니, 점잖아 보이는 두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한국 분이세요?"

그녀들은 서울대 불문과 출신의 대학교 선배였는데, 빠리에서 이미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불문과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마침 방학이라 유학 시절을 더듬어 방학 동안 빠리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처럼 홀트 비행기편으로 노르웨이에 들렀다가 이틀을 쉬고 빠리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생전 처음 보는 그녀들에게 내 얘기를 쉽게 털어놓고 있었다.

초행길인데다가 아직 정해진 거처도 없는 등 내 딱한 사정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그녀들은 예전 자신들의 유학시절에 지내던 곳인 기숙사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들의 도움으로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빠리에서의 첫 번째 거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들이 소개한 그 곳은 빠리 생 미셸(St.-Michel)의 룩셀부르크 공원 옆의 한 여학생 기숙사였다.

빠리공항에 도착한 후부터 그녀들은 내게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다. 기숙사에서 내어준 방에 짐을 내려놓고 곧장 그녀들을 따라 나서서 그 주변을 산책하였다. 그녀들은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이 지친 몸을 풀 겸 옛날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 주변을 산책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다. 그 곳이 빠리에서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도 몰랐다. 노트담 사원까지 산책하면서 색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틈에 끼어 두리번거리며 그녀들을 따라왔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이러한 낯선 풍경이 너무나 편안하게 다가왔다. 몸도 마음에 한결 가벼웠고 자유로워졌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어린아이처럼 그녀들을 종종걸음으로 따라 다녔다. 그저 그 순간은 지난날의 예의와 형식, 슬픔과 걱정들을 뒤로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픈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그녀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녀들은 빠리를 떠나기 전에 학교 입학에 관한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 빠리에서 다시 시작될 내 삶에 대한 그 외의 낯선 과제들은 내 자신이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 폐를 끼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 때를 다시 한 번 되살려 본다. 당시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었으나 정작 죽음 앞에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었고 부모의 도움 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곳곳이 성공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온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따라서 나의 삶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짐을 꾸렸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낯선 땅에서 새 인생을 살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는 심정이었다. 막말로 '갈 때까지 가보자'란 마음에서 떠나 온 것이었는데, 예기치 않던 그녀들의 도움으로 빠리에서의 첫출발은 의외로 쉽게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숙소에서 첫 날을 보낸 다음날 아침, 나는 손에 꼭 쥐고 온 친구의 전화번호를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친구가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프랑스 여성을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국에서 불문과 교수에게 개인지도를 받긴 했었지만 현지인의 목소리와 발음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여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말을 더듬으면서 친구 이름을 겨우 말하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다. 상냥한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만 긴장한 내 귀에는 'pas'라는 단어만이 겨우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고 공중전화 앞에서 떨리는 가슴으로 그 여자가 한 말을 곰곰히 되새겨 보고 있었다. 'ne quittez pas'(끊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말이었는데 끊으라는 뜻으로 알아듣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이었다.

또 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아예 그 주소를 들오 찾아 나섰다. 다행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세느강변에 위치한 예술인의 기숙사였다.

그러나 갈 때마다 기숙사 수위는 그 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 곳을 자주 찾아가 정원 벤치에 앉아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번을 방문한 후에야 그 친구가

3개월 후에도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낯선 환경에, 서툰 언어, 사람들의 모습까지 전혀 다른 곳에서 나는 어린아이 마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적응하기까지의 잠깐은 힘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편안했기에 그 낯설음이 싫지만은 않았다.

처음엔 생필품을 사려고 슈퍼에 가서도 물건마다 표시되어 있는 낯선 가격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원화와 비교하며 가벼운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했기에 몇 가지 사지도 못하면서 한참이나 진열대에 붙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게 한 열흘 동안은 시차에 피로, 긴장감에 지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낮 없이 잠에 취해 있었다. 문득 침대에 앞에 놓여진 장롱에 달려 있는 긴 거울을 바라보면서 홀로 앉아 있는 내 자신이 너무도 처량해 보여 울기도 했다. 울면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또 다시 슬픔과 외로움에 싸여 울었다.

더 이상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이 답답해질 무렵, 나는 기숙사 앞에 있는 룩셈부르크 공원을 찾았다. 아름다운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아랍인인 듯한 낯선 남자들이 '봉주르'하면서 야릇한 표정으로 접근하

는 것이 무서워서 더 이상 공원을 찾아 나서는 것도 꺼려졌다.

하루는 방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지만 열린 문을 열어보았다. 문을 열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불꺼진 컴컴한 복도에 하얀 치아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잠시 후, 내 방에서 비쳐지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그 모습을 찬찬히 볼 수 있었다. 옆방에 있다는 아프리카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바늘과 실이 있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해도 나는 흑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에 어두운 복도에서 구별이 안 되는 그 피부 색깔에 놀란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내가 지냈던 여학생 기숙사는 빠리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그 주변은 룩셈부르크 공원 옆, 생 미셀가에 있는 소르본 대학과 빵데용 앞의 63번지, Mr. le Prince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점, 식당, 극장, 소규모 전시장, 아름다운 옛 상가들이 물려 있어 24시간 개성과 지성을 겸비한 젊은이들이 한데 모이는 '까띠에 라탱'이었다.

기숙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저녁이면 마음 맞는 친구끼리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나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런 기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불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갔다.

그렇게 3년의 기숙사 생활이 지나면서 빠리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그 기숙사는 운영상의 문제로 직업 여성 기숙사로 바뀌었다. 학생인 우리들은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각자 떠나야했다.

당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으나, 기숙사를 떠나고 나서야 그 기숙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의 곳이었는지 느끼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커다란 행운을 누릴 수 있었는지 꿈만 같다.

또 다른 행운, 빠리국립고등음악원 입학

기숙사 지하실에서 노래연습을 하곤 하던 내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다. 바로 바리고등음악원에 합격한 것이다.

C.N.S.M(국립고등음악원)학교 입학은 한국에 있을 때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입학 조건부터 까다로워 입학 서류 심사에도 연령 제한이 있었고 실기시험 역시 수준이 높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당시 나는 그저 빠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연령제한 없이 쉽게 입학이 가능한 사립학교인 에콜 노르말(Ecole normale de superieur de Musique de Paris)에 들어가리라 계획했었다.

'에콜 노르말'의 입학서류를 가지러 가던 어느 날, 우연히 고등국립음악원을 지나게 되었다.

함께 가던 선배가 이 학교가 유명하다면서 그냥 한번 들어가 입학에 관한 문의나 해보자고 제의했다. 나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선배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

문의한 결과, 나는 입학 제한 연령이 이미 1년이나 지나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나의 입장과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내라고 했다. 불어 실력이 모자란 나를 대신해서 그 선배가 방학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학교장에게 편지를 써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입학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학 신청서에는 공부하고 싶은 전공분야와 희망 지도교수 이름을 기재하는 난이 있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제비뽑기를 하듯 한 교수의 이름을 찍어 제출했다.

그렇게 우연히 선택한 교수님은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M 교수님이었다. 성악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그녀는 음악성이 아주 뛰어났고, 찰츠부르크 여름연수를 담당하는 교수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지원자 수도 많았다.

그러나 입학 초기 난 그 교수님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차갑게 느껴져 마음속으로만 그 분을 존경하고 좋아했다. 항상 그녀 앞에서는 서툴게나마 할 수 있던 불어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몹시 긴장해 얼어 있었다.

내가 보기엔 우리 반 학생들도 거의 나와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한국식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것과 친구들이 지도 교수님을 대

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서양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었고 친구같이 편안한 태도로 교수님을 대했으나, 나는 한국식으로 예의를 갖추며 말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존경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도 교수님이 보기에 내가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처음에 나는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주변에서 날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수님과 만나 수업하는 줄 알고 그 날만을 기다렸는데 정확한 시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쩌다 애를 태우며 일주일에 한 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와 있었고, 교수님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의 수업 시간은 항상 모든 제자들이 모여 공개 레슨(수업)으로 듣고 배우는 방식이었다.

그 공개 수업 시간에도 나는 이방인이어야 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에 비해 난 자꾸만 초라해지고 뒷전에만 있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 교수님도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었다. 더구나 내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학교 장학금을 받도록 추천까지 해주셨다. 겨울에는 당신의 외투를 가져다 입혀주시도 했던 그 따스한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분은 2년 후 암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이후, 그분의 제자인 C 교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물론 그 분 역시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성악가였다. G 교수님은 테크닉을 주로 많이 가르치며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셨지만 나는 그분의 수업 방법이 너무 낯설어 잘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나는 그 어려운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했으나 졸업할 때는 입학 때보다 더 노래하기가 힘들어졌다. 문제는 나의 발성법에 있었다.

근본적인 발성법을 터득하는 테크닉을 배우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국립고등음악원에서는 성악 전공 학생들의 경우 3년 동안 시창, 청음, 음악사, 악전, 화성악 그리고 부전공으로 피아노 과정까지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만 졸업 과정의 전공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내가 힘들었던 과목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시창, 청음을 해야 되는 수업이었고, 또한 발음과 음악 용어가 한국에서 배운 것과 달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색다른 것으로 보였다. 이 모든 것들에 익숙해지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2년 과정에서 전공 선택을 해야만 했고 3년 이후에는 오페라 교습을 받았다. 이는 오페라에 대한 연기 연습과 자신에게 맞는 오페라를 선택해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이었다.

그에 따라 함께 호흡을 맞춰 노래를 연습하는 중창(ensemble vocal)이라는 수업도 함께 받아야하며 자신이 원하면 소규모의 프랑스 전통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operetta classe)도 마련되었다. 교수님과의 레슨 전에는 음악 코치가 우리들에게 발음법과 음악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훈련시켜 주었다.

성악과 학생들은 제2외국어 수업도 받을 수 있었다. 시험은 없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과목이다. 나는 여러 외국어들 중에서 노래하듯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탈리아어를 선택했다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은 국립학교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지도한다는 것이다.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사적인 시간까지 내어 그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려

거리로 나서기만 해도 다양한 인종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골목 구석구석엔 구경거리가 널려 있으니 외국 생활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었다. 세느강변을 거닐면서 빠리 옛 도시의 정취 속에서 흠뻑 젖을 수 있었고, 교통비를 아끼면서 이곳 저곳을 걸어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었다.

이 여학생 기숙사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오지 않는 주말에는 학생들이 대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어가 어느 정도 구사되면 사무실에서 각 방으로 연결하는 전화 교환, 각 방으로 편지 배달, 그리고 외부 손님이 오면 연락해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의 아르바이트도 있었다. 다행히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기숙사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숙사에는 정작 내게 필요한 노래연습 장소와 피아노가 없었다. 9월에 있을 국립고등음악원 시험 준비를 해야했던 나는 기숙사 지하에 위치한 세탁실 겸 창고에서 노래연습을 해야했다. 잘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연습을 하기는 싫었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지하실에서 소리를 질러대야 했다. 그로 인해 나는 금방 '성학 하는 친구'로 알려지게 되었고 기숙사 3년의 생활 동안 기숙사 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노래 초청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고 노력하신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술을 하는 학생들은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학교의 학생들은 경제 사정에 구애가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실력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었다. 한국에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렵게 공부했던 나로서는 이 학교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물론 이 학교의 교육법에도 문제점과 모순이 있었겠지만, 유명하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항상 친근한 대화가 오갔으며 큰 장애나 문제점은 없어 보였다. 그리고 모든 학생을 위한 풍부한 자료와 많은 교수님들의 인내심으로 모든 학생들을 차별 없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고자 노력했다.

내가 다닐 때는 국립고등음악원이 8구에 있었으나 지금은 빌레프에 위치해 있고, 더 큰 규모로 확대하여 현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

지나고 보면 항상 옛날 것이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다. 학생들 모두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왔고, 나라에서 키워주는 학생들이기에 대부분 자존심이 강하고 나름대로 커다란 꿈도가지고 있었다. 나는 좋은 소리만 가졌을 뿐인데 반해 다른 학생들은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했다.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다.

성악과에는 나와 같은 다른 외국 유학생들도 있었다. 한국인은 나 혼자였고, 학교 전체 3명의 일본 학생들 중 2명이 나와 같은 반이었다. 그 중 한 명은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불어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재능 있는 프랑스 정부 장학생이었다. 또한 입학 전부터 M 교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이미 찰츠부르크 여름 성악 연수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에게 발탁, 추천되어 입학하였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 유명함에 비해 소리의 질 면에서 특별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았지만 다들 모든 면에 자신만만한 그 일본 학생을 좋아했다.

더욱이 그 시절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시기였다. 일본은 동양의 선망의 나라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오직 일본만 알

고 있었다. 한국은 내가 도착한 그 해 부터 상사들이 서서히 주재하기 시작했기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다. 그저 전쟁과 가난의 나라, 일본이란 나라 옆에서 무시 받는 조그만 나라로나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모국에 대한 콤플렉스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친구들은 나를 아껴주었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했다.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가족들에게 소개하기를 좋아했다. 노르망디, 레만 호숫가, 북쪽의 두에, 낭트, 프랑스 남부, 님, 브르타뉴 등 에 가족이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그들의 가정으로 나를 초대했다.

이로써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프랑스 사람들과 그 문화에 더욱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서양 가족에 대한 인식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 친구들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것 같다. 자식이니까 혹은 어리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 아무리 어린아이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존중하며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고 대답해

주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존칭어를 중요시 하기보다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어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선호하고 친구와 대화하는 식이니 우리가 보기에는 버릇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더욱 깊은 교류를 느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거의 모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지만 설날, 추석 등 한국의 명절 때처럼 특별한 날에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도와주고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과 자립심을 존중하며 적절한 것을 찾아 조언해주고 겸손함을 보여주며 절약정신을 심어준다. 인생에 있어 어떤 작업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자식이 원한다면 그 길이 부모에게는 마땅치 않더라도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준다. 한국에 비해 자식을 부모의 소유가 아닌하나의 개체로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형식에 치우치치 않고 무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객관적인 거리를 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도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고 조용히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다.

흔히 서양 사람들을 개인주의라고 여긴다. 그러나 개인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가 남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동시에 나 또한 남을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모두 각자의 특성을 갖길 원하므로 서로 아등바등 간섭과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모방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남에 대해 평가하거나 왈가왈부 해야 할 이유가 그다지 없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계절과 관계없이 옷을 입기도 한다. 여름에 코트를 걸치고 거리를 나서는 사람, 민소매 셔츠를 입고 가는 사람, 일광욕을 하는 사람 등 모두가 자신의 개성대로 행동하며 이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대부분 각자의 조용함을 \approx 찾아 안정을 느끼며 평화를 사랑하는 프랑스 사회를 나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렇기에 나는 거의 30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옛날 학교 친구들과 아직도 변함 없이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잃어버린 것은 별로 없었다. 하긴 가난한 유학생의 집에서 털어 갈 것이 뭐가 있을까/... 잃어버린 것은 기숙사에 있을 때 일본 친구가 준 진주 목걸이와 가방속에 있던 1백 프랑 정도의 현금이였다. 이것을 훔치기 위해 도둑은 불쾌할 정도로 집을 엿어놓고 갔을 뿐이었다. 브리지뜨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함께 가 신고도 하고, 주인에게도 연락을 했다. 브리지뜨가 그 날은 자기 입에서 자라고 권했지만 나는 무슨 오기인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무서웠지만 그렇게 집을 나가면 영영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그 집을 아주 떠나자니 다른 데로 갈 곳도 마남치 않았고 없는 돈에 다른 집을 찾자니 그역시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집을 대강 정리하고 문만 고친 후 집에서 잠을 잤다. 그때서야 바보 같이 프랑스에도 도둑이 이썩쓰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일로 너무 놀랐던 탓인지 이후 나는 거의 노이로제 같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학교 수업 외에는 언제나 집에 있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유스러운 생활과는 멀어졌고 외로움과 무서움이 조금씩 쌓여 몇 달씩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저그 신체적으로 너무

예민해 있었기에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성악 하는 사람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잘 할 수 없었다. 그런 한편으로는 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증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렇게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니 나는 그 해 졸업 시험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고민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한 명을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려 언니 동생하면서 가끔 만났다. 그렇지만 그녀는 나보다 빠리 생활에서는 선배였고 예술인 기숙사 (cite des arts)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친구는 나에게 프랑스 문화예술국장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제안했다. 당시 문화예술국장은 프랑스 인으로, 아시아의 많은 예술가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인, 한국인들을 많이 후원해 주었다.

국립고등음악원의 모니끄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선뜻 편지를 써 주겠다고 하시며 나의 형편을 자세히 소개하는 편지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러자 문화예술국장님은 나를 도와주겠다는 친절한 답장을 보내왔다.

얼마 후 나는 세느강변의 노트담이 보이는 예술인들이

사는 기숙사 cite des arts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곳은 4구의 아주 아름다운 동네였다. 처음에 내가 빠리에 도착했을 때 막연하게 찾아오곤 했던 친구가 살고 있다는 그 장소였다. 이곳은 예술가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었으므로 나는 마음놓고 연습을 하면서 즐거운 음악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때 도움을 주었던 문화예술국장님은 이후로도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나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셨으며, 나를 지극히 바려해주셨다. 그 분은 늘 검수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시는 좋은 인품을 가지고 계셨다.

생각해보면 난 참 행운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좋은 분들을 시의적절하게 만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금은 그 분의 부인과 친구로 지내고 있다. 나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프랑스의 다른 계층의 가족 생활과 인품을 알 수 있었고 그 경험으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만남, 그것은 비극의 전주곡

국립고등음악원의 3년 과정이 지나고 나니 수업이 많이 줄게 되었다. 성악 시험만 남기고 있어 시간도 넉넉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학교 장학금이 3학년 이후부터 끝나게 되니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다행히 당시에 한국 기업인들이 점점 유럽, 특히 빠리로 진출하던 때여서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거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나는 반나절 정도 한국인이 경영하는 전축 상점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78년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저녁, 젊은 한국 사람이 찾아와 최고급 전축을 구입했다.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그 손님을 친절히 맞아 성심껏 서비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내 모습이 보기가 좋았던지 그 사람은 한국 항공사 임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공항에서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찾고 있으니 한 번 지원해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조건은 어디나 비슷했다. 그러나 항공사라면 한국의 큰 기업임이 분명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서울에 갈 때 약간의 혜택이 있으리란 기대감으로 그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 이듬해인 79년 이른 봄, 항공사에서 일을 해도 좋

다는 연락을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는데 나를 택해준 것이 무척 고마웠고 기뻐다. 그래서 전축을 사간 인연으로 만났던 그 임 과장님에게 언젠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세 번 항공기가 들어오는 날 빠리 남쪽의 오를리 공항에 출근해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었다. 비행기가 아침 일찍 도착했으므로 나는 아침 6시 30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만 했다. 공항은 차 없는 가기가 힘든 거리에 있었다. 아침 첫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서 갈아탄 다음 또다시 버스로 바꿔 타고 가야 해서, 출근하는 아침이면 몸과 마음이 분주했다.

출근하면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인 6시 30분경 잠깐 모여서 그 날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런 다음 사무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안내데스크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 나의 주 업무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다하는 것은 필수였다.

오를리 공항은 이른 아침 안개 때문에 수시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착륙할 수 없어서 상공을 돌고 돌다 가까스로 착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심한 경우엔 북쪽의 샤를드골 공항에 비상 착륙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복잡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착시간을 묻고, 왜 늦어지느냐, 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인해 프랑스 가정의 생활을 알게 되었다. 불임성 있는 나의 성격 때문인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립 고등 음악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사귀었던 두 명의 소중한 친구를 소개해야겠다.

브르타뉴 지방에서 온 친구 브리지뜨는 나보다 거의 10살이나 어렸다. 당시 20살이 채 안 된 친구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아끼는 제자중 하나였다. 나이에 비해 거만하게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친구였다. 나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말도 거의 하지 않던 막연한 사이였는데 첫 여름방학 무렵이 되자 갑자기 내가 원한다면 방학 동안에 자기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초대였기에 무척 놀랐고, 좀 까다로운 친구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저 그 친구의 초대가 고마워 그러기로 했다.

그 친구의 부모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그 집 식구들은 물론 그친구와도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나이에 비해 마음 씀씀이도 크고 따뜻하며 친절했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함을 보여주는 생각이 큰 친구였다. 아주 까다롭고 힘든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배울 점도 많아 친자매처럼 위로와 도움을 주는 가

까운 친구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브리지프는 지금도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빠리 고등 음악원 학생들을 위한 사회 복지과에 근무하던 모니끄 아주머니이다. 이 아주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족처럼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며, 의지가 되고 있다. 아주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꼭 부모처럼 나를 챙겨준다. 또한 성격이 아주 깨끗하고, 강직하며 사리분별이 정확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나와 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지내는 소중한 친구이다.

뜻밖의 불청객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기숙사 운영상의 문제로 그 곳을 나와야 했다. 그래서 국립고등음악원 뒤쪽의 한 조그마한 거리에 있는 건물의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교 광고판에서 보고 이사간 그 다락방은 6층 복도에 난 많은 방들 중 하나였다. 다른 방들은 모두 비어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그 6층에 살고 있었던 셈이다. 아주 조그마한 방이었지만 학교 근처에 있었고 햇볕이 잘 드는 조용한 방이었다. 열악했지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전화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적은 돈에 샤워와 전화가 있는 집을 얻기는 힘들었다. 화장실은 복도에 있는 공동화장실이었으나 6층에는 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개인 화장실이나 다름 없었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절약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살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절약을 하며 살 수 있었고, 8구 학교 옆이라 조용하고 좋은 동네라 여기며 그곳에서의 생활에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시절, 재불 한인사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특히 대사

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유학생들을 초대해 주었고 가끔 대사관 영사과는 전화로 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기도 했다.

그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오는 기업인이나 조금 높은 직위나 위치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빠리 시내를 안내해주는 일이 있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빠리의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2 ~ 3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 식비로는 충분했다. 몇 번의 그 일을 통해 나는 점점 빠리시내 지리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외로움이 나를 엄습했다. 기숙사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갑자기 혼자서 쓸렁하게 살게 된 까닭이었다. 어느때는 너무나 조용해 무서울 정도로 외롭기까지 했다.

11월의 어느 날, 서울에서 동생이 경혼을 한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언니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그마한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보내줘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잠시 집에 들러 돈을 봉투에 넣어두었다.

그러던 중 수업시간이 촉박해 돈이 든 봉투를 침대위에 내동댕이치고 그냥학교로 달려갔다. 적은 돈을 가지고 얼마를 부칠까 고민하다가 수업 시간 때문에 급히 뛰쳐 나갔던 것이다

11월이었기에 낮이 무척 짧아져 어둠이 일찍 내렸다. 수업을 마치고 한 5시 반 경 승강기도 없는 6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6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다. 집주인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 생각하며 거의 계단을 다 올라섰을 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은 아수라장이었다. 책장이며 옷장이며 온통 뒤집어 놓고, 쑺셔놓고... 나느 나너무나 무서워서 잠시도 그것에 있을 수 없어 다시 학교로 달려갔다. 다행히도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강의실이 있었다. 몸은 덜덜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간신히 '도둑'이라는 한 마디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마침 학교에 남아 있던 브리지프가 도둑이 뒤집어 놓은 내 방으로 함께 가주었다. 방은 한바탕 사투를 벌인 곳 같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져 둔 동생에게 보내려던 돈 봉투는 그대로 있었다. 이것저것 뒤진 물건을 봉투 위에 쌓아놓아 다행히도 그 돈은 반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음 연결되는 비행기를 어디에서 탈 수 있겠느냐, 짐을 잃어버렸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느냐, 버스는 어디에서 타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안 왔으니 확인해 달라 등등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말을 많이 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펴 주어야 했다.

특히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는 프랑스 양부모들을 안내할 때는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열심히 설명했다. 공항에 내린 아이들 중에는 간혹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팠다.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국말로 다정히 얘기를 걸어 안심을 시켜주었다.

비행기가 오후 1시 30분경에 서울을 향해 떠나고 나서야 가까스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탑승자 명단을 서울에 보고하고 나서 퇴근을 하였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그 날은 저녁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쳤다. 문제는 몸이 너무 피곤하니 도저히 노래 연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날들이 늘어갔다.

그러나 그 때 나는 정말 성심껏 일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 비행기가 유럽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문제도 많이 있었다. 그럴수록 더욱

노력해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무척 피곤한 일이긴 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술인 기숙사는 세느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옆으로는 경시청이, 강 건너 섬에는 노트담 대성당이, 뒤편에는 생 뵈(St Paul)의 상가들과 아름다운 동네들이 접해 있다. 빠리의 기원지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밤낮으로 유람선이 세느강을 유유히 돌고 있었는데, 이런 이국적인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나는 빠리에서의 세 번째 동지를 틀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안착 후에 나의 유학생활 또한 점점 안정되어 갔으며 낭만 속에서 빠리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가 아마 부활절 방학이었던 것 같다. 그 무렵, 공항에서 같이 근무하는 임 과장님이 동료들의 여러 집으로 초대받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가 둘 있는 가장이었고 공항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족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혼자 있는 그를 초대했었던 것이다.

나는 나를 채용해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 임 과장님을 초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처음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는 어렵게 공부하는 유

학생에게 괜히 폐를 끼칠 것 같다고 마다했지만, 몇 차례 인사치레 요청에 그는 빠리에 나오는 날 언젠가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그 날도 나는 공항에서 일을 끝내고 피곤에 지쳐 있었다. 더구나 손님을 맞을 변변한 준비조차 해놓지 않아 약속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그가 안 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기숙사로 찾아와서 내 방으로 연락을 해 왔다.

나는 부랴부랴 빵데웅 뒤쪽 한국식당으로 그를 안내했다. 돈 없는 유학생이 그것도 여자가 남자를 초대한다는 사실에 그는 조금 어색해했다.

식사 후에 그가 기숙사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기숙사 앞까지 왔는데 기숙사 구경도 시켜주지 않고 돌려보내기가 좀 미안해서 잠깐 내 방에서 차를 대접하기로 했다. 예술인들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기숙사 안으로 안내했다.

그 사람은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일찍 가정을 갖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했다.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나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사람은 무척 재미있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늦은 밤이었다.

그를 배웅하러 복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그나 나를 감싸 안더니 키스를 했다. 나는 무척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척 “오늘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를 보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내 가슴은 몹시도 쿵쥔거렸다. 나 역시 이런 일에 태연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었고, 그 무렵의 나는 어떤 남자와도 가깝게 지내지 못할 것 같았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빠리에 오기 전에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성의 감정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직장 상사였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도 그저 아무런 뜻 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수다를 떨었던 것인데 그는 아주 암전히, 재미있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아마도 나의 순진한 학교 생활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다른 감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었나 보다.

한국을 떠나기 전, 처음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서 희망이 없음을 느꼈다. “요즘 너무 괴로워 방황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달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남았지만 결국 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국을 떠나왔다. 그래도 미련이 남았던지 처음 일년 정도는 한국에 있는

그에게 내 소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했다.

그런데 일년 후 소르본 뒤편 어느 화랑의 전시회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빠리에 온다는 기별도 전혀 없었는데....

기가 막힌 건, 시간을 달려며 곧 연락하겠다고 했던 그가 3개월 전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만남과 그 소식에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밤을 새우며 울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한 것이 너무 분해 울고 또 울었다. 그를 체념하려고 빠리까지 떠나오기는 했지만,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다음날 그를 찾아가 분풀이라도 하려고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으나 그는 이미 호텔에서 떠난 후였다. 친구 언니에게 하소연하면서 위스키 한 병을 나눠 마시고 또 울었다.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울었다.

그 후 그의 선배 화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다. 미안하다는, 용서해 달라는 그의 편지였다. 나는 이제는 정말로 끝난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 그 때부터였다. 그래서였을까? 임 과장의 갑작스런 키스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묵살할 수 있는 이중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는 나

의 상사였고, 결혼한 사람이며, 멀리하고 싶어하는 한국 남자였다. 나와는 아무런 조건도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내게 있어 그와의 갑작스러운 키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뜻밖의 충동적인 작은 일일 뿐이었다.

그렇게 임 과장님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할 말이 있다며 다시 내 방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그냥 가라” “다시 올라오겠다”하며 우리는 승강기 안에서 한참 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다시 내 방으로 온 그는 나를 강렬히 원했다. 갑자기 달라진 그의 태도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받아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순간적이거나 이 사람이 나를 원하고 있고, 나 또한 자유의 몸인데 나를 떠난 사람 때문에 못 받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그 동안 순결을 지켜왔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겨 주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순간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하기로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와의 만남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것은 단지 나를 버리는 의식이었다. 그 동안 나를 가두고 있

던 상처 입은 자아를 벗어 던지고, 나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의 나를 뒤로한 채 그는 그곳을 떠나갔다.

이튿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후로도 그는 계속 나를 찾아왔다. 나는 애써 그를 외면했지만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대해야만 했다. 그는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더 나에게 애착을 갖는 것 같았다.

나 역시 그를 피하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하진 않았다. 어쩌다 옆방 친구의 집으로 피해 있을 때면 벨을 누르다가 실망하여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서로 괴롭긴 마찬가지였다.

바람을 피우려면 프랑스 여자하고 할 것이지 왜 하필 한국여자하고 그러느냐고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정성을 다해 보여주었다.

그러는 동안 3개월이 지나갔다. 처음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나는 연민이 생겼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의 사랑에 빠져 들어갔다. 6개월 정도 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나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어 버린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그의 마음이 온통 내게로 향해 있고 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그의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우리 관계는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그 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

세느강변의 여인으로...

이미 내 나이도 서른이 넘어 있었고, 5년동안 빠리에서 살면서외롭고 고독했지만 그런대로 잘 견뎌내고 있었다.

거의 모든 남녀 관계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권태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의 부부 사이에 있어 더 큰 원인은 서로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났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만났으니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였고, 이 때문에 부모와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30살이 넘어 외국 생활을 하니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장남이었던 그는 왕래가 없었던 부모 형제와의 사이를 되돌리려고 했고, 그러면서 집안에 불화가 생겨 고민과 괴로움으로 방황하면서 가정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럴 즈음에 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착하고 꾸밈없고, 뭔지 모르게 편안하게 해주는 나에게서 견잡을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무 약속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니 그저 이렇게 만나만 달라고 호소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우선은 자신의 사랑만

받아달라고 했다.

나는 그의 그런 솔직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결혼에 관심이없었기에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다고 와전히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부인이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했다. 그러나 집에서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의 관심이 온통 나에게만 쏠려 있었으니 그 아내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뒤를 밟혔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기숙사에 찾아와 내방 벨을 미친 듯이 눌러 댔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혼돈의 순간이 지나갔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와의 만남을 더 이상 지속하지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변함 없이 나를 찾아왔고,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런 가슴 아픈 사랑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웠을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이듬해 봄이 되면 그는 빠리에서의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렵게 키워 온 사랑이지만 그가 떠나면 잊어야 할 것이

라 생각하며 나는 또 마음의 상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를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가 집안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 역시도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놓치기 싫다며 내가 자기의 아이를 낳기를 원했다. 내 나이가 있으니 아이 하나 갖는 것이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그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추억만 있으면 혼자서 아이 한 명은 거뜰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11월 초의 어느 날, 그 사람은 이래저래 시달리며 아주 힘들어했고, 내가 그의 가까이에 있으면 매일 같이 있고 싶어 힘이 드니 잠깐 서울에 다녀오라고 권유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그는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떠난 지 5년 만에 그리운 엄마에게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서울을 떠나올 때 엄마는 중풍 초기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루턱까지 나와서 눈물을 흘리셨다. 빠리에 있는 동안 내내 그 모습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돈이 없어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처지였는데, 뜻하지 않게 가족들과 해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매일 전화를 주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그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매력 있는 남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처음 한국을 떠나올 때는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으로 무척 뒤숭숭하던 초겨울이었는데 묘하게도 5년 후인 79년에 다시 서울에 들어갈 때에는 박정희 전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또 한번 세상이 어수선했다.

가족들과의 꿈같은 시간이 지나고 11월 23일경 빠리로 다시 돌아온 나는 아름다운 태몽을 꾸었다. 임신인가 생각은 했었지만 한 달 후 검사 결과 임신임을 확인한 후에도 몹시도 기쁘고 놀라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곧 봄이 되면 그는 빠리를 떠나야했고, 나 또한 6월에는 졸업 성악 시험을 치러야했다. 게다가 배가 불러오면 공항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생계도 걱정이 되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나의 이상은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것이었겠지만 내게 닥친 현실은 냉엄했다.

독하게 마음먹고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곳의 범에 따라 얼마 동안 기다려야 했다. 또한 지정된 병원에서만 허락이 되기 때문에 두 달 반까지 기다렸다가 12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아이가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다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몇 번이나 충고를 해주었다. 그리고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이라고 용기를 주었다.

또한 내가 임신한 것을 아신 교수님께서도 유산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뱃속의 아이에게 깊은 애착이 가기 시작했고 모든 고생을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결국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고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며,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사랑은 변함없다고 했다.

그 후부터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로 인한 그 행복한 마음이 앞으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여겨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봄이 왔다.

그와 나는 울면서 이별을 해야만 했다. 임신한 나를 홀로 두고 가는 그의 마음이야 오죽했으랴. 더군다나 그는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생활비를 주고 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는 귀국하면서 바이올린을 하나 구입해 한국에서 판 후 그 차액을 나에게 부쳐주겠다고 하고는 떠나 버렸다. 당시엔 해외에서 악기를 한두 개 구입해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그의 사랑 또한 흐려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그는 전화와 편지를 자주 했고, 그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다.

나는 다행이 5개월 정도까지는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아서 그저 통통한 여자로만 생각하였지 어느 누구도 내가 임신한 것을 눈치채진 못했다.

6개월에 들어서자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일을 그만두었다. 6월 말에 있을 졸업 시험 준비만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다.

6월 말, 시험을 볼 때는 풍성히 퍼지는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갔다. 심사위원으로 있던 국립고등음악원의 G 교수님이 그런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다. 그러나 곧 임신을 축하한다며 아이의 선물까지사주셨다.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은 나를 무척 아껴 주셨다.

긴 방학 때면 자신의 시골집으로 나를 초청해 함께 지

내기도 해어나와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그러나 교수님과 거의 1년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간의 내 사정을 잘 모르셨던 것이다.

뱃속에 있던 아이 덕분에이었을까. 뱃속의 아이가 나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어서인지 나는 1등으로 졸업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난 후부터 외부와 거의 단절하고 지냈다. 내 뜻과는 달리 흘러간 나의 힘든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멀리서나마 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조금씩 느껴지는 아이의 움직임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외로움과 고통, 그외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때까지 살고 있는 예술인 기숙사에서는 3년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곧 옮길 집을 찾아야 했다. 우선 주변의 조연대로 구청에 HLM 서민 아파트를 신청했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예술문화 국장님께 또다시 도움을 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해 여름, 빠리는 무척이나 더웠다.

출산일이 가까워 오자 그 동안 막연히 여겨지던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다. 출산 준비, 집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은 나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가뜰이나 성격이 예민했던 나는 불면증으로 더욱 더 힘들어졌다.

또한 그 무렵, 서울에서 내가 다녔던 서울대 대학원의 E교수님께서 부군과 빠리에 오신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잘 모셔야했던 스승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에 만나게 되다니.... 배부른 내 모습을 보고 놀라실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얼굴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안절부절했다. 부랴부랴 내 방 바로 앞쪽에 선생님이 머물 방을 얻어 놓았다. 다행히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렇게 쉽게 기숙사 방을 단기간 임대할 수 있었다.

E교수님은 서울대에서 가장 음악성이 풍부하고 박식한 학자이자 예술가이셨다. 때로는 아주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정이 많고 따뜻한 분으로 나는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원 마지막 해에야 겨우 제자의 대열에 끼 수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선생님께서 무척 심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다. 기초 없이 배워서 기적으로 서울대 대학생이 되었던 터라 대학원 마지막 학년이 되어도 어려운 E교수님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를 수 가 없었다. 그

때 나는 한 학교 음악선생으로서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늘 피곤에 지쳐 있었고, 교수님 댁까지 가는 도중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충분히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머릿속에는 항상 오만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교수님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르기가 쉽지 않았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원 학생이 노래를 못 부른다고 마구 야단을 치셨다. 나는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걱정스런 마음에 교수님 댁을 선뜻 나오지 못하고 처량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은 안 받아주시겠다고 야단을 치셨지만, 그 후 대학원을 마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모른다. 게다가 프랑스로 오기 전에 준비하던 독창회도 잘 도와주셨다.

빠리로 떠나오기 전 교수님께서 내게 '너는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 아이이고, 미워할 수 없는 아이'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렇게 어려워하고 존경하던 E교수님 내외가 빠리에 오신다는 거였다. 부군께서는 모 신문 논설위원이셨고 당시 한국 사회가 몹시도 어수선하여 잠깐 쉬러 해외로 나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졸업 후에 처음으로 뵈는 것인데 배가 부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으니 내 심정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담

담하려고 노력했으나 속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있는 그대로의 내 형편을 보여드릴 각오를 했다.

교수님이 오시던 날, 나는 공항으로 직접 나갔다. 다행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오시는 길이라 한국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어서 한국인들 시선은 피할 수 있었다. 나는 교수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교수님은 말 없이 등을 두드리며 그런 내 모습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이래저래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일까. 출산 예정일보다 3주나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다. 마침 서울에 있는 그에게서 전화가 와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했더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병원은 시떼섬 안의 노틀담 성당 옆에 있는 병원으로 이미 정해 놓았었기에 그저 잠깐 진료만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응급실을 찾아갔다. 아직 출산을 위한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하루 종일 이곳 저곳 실려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내내 나는 혼자서 외롭게 고통과 싸워야 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었다. 얼마 후, 의사는 곧 출산을 할 것이니 바로 입원을 하라고했다.

8월 5일 아주 이른 아침이었다. 긴 진통 끝에 아이를

날았다. 핏덩어리 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 지금까지의 아픔은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와 둘만의 외로운 만남이었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산 직후 어렵게 몸을 일으켜 병원의 공중전화로 그에게 출산을 알렸다. 그는 전화로 아기의 이름을 '민'이라고 지어주었다. 아기의 이름을 전해주는 그의 목소리가 떨어왔다.

병실로 돌아오니 빠리시 출생신고 행정담당원이 와 있었다. 그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언뜻 떠오르는 프랑스식 이름을 지어 알려주었다. 내가 독신 엄마였고 아빠 또한 멀리 있었으므로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기입하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E교수님도 병원으로 오셨다. 혼자서 힘들게 고생했다며 나를 위로해주셨다. 나는 교수님이 마치 친정엄마 같이 여겨졌다. 서울에 계신 우리 엄마 대신 꼭 교수님께서서 우리 아이를 안아주려 오신 것만 같았다. 그런 그 분께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교수님은 빠리에 한 열흘 정도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서울에 가면아이 아빠를 꼭 만나보겠다고 하시고, 다 잘될 것이라며 격려를 잊지않으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정이 많고, 상냥하고 성실한 성격이었다. 또한 한 번 한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한 성

격과 책임감 있는 사람 이었다.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어서 여러 색깔을 화합해 잘 활용 할 수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많이 웃고 우는, 그러면서 쉽게 고독해지기도 하지만 활달하여 주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어릴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어려운 집안 형편상 내가 음악을 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던 터라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프랑스 유학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공해야 했다. 이렇게 강한 성격이었으므로 집안에서도 나는 장한 딸이었다.

그랬던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다가 그를 만나 아이를 낳으면서 한 마디로 어긋난 인생을 살게 된 셈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를 향해 불미스러운 시선을 던질 것이 뻔했다. 그래서 집에는 줄곧 연락을 끊다가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는 건 알려야 할 것 같았다. 엄마가 땀땀치 못한 딸을 부끄러워할까 봐 염려했지만, 엄마는 그저 아이를 잘 키우라고만 하셨다. 그런 엄마가 너무도 고마웠다.

혼자 사는 엄마를 위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국가의료보험에서 100% 병원비를 지출한 덕분에 출산 비용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병원에 있는 사회보장 사무실 담당 직원은 내가 식구도 없이 혼자 사는 어머니니 퇴원 후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휴양원을 알선해주겠다고 했다.

프랑스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내게도 모든 혜택이 제공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 처지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혜택이 놀랍고 감탄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런데 내가 갈 예정이던 휴양원은 금방 자리가 나지 않아 사흘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동안은 집에서 지내야 했다.

문제는 출산준비물이나 기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도 준비 해놓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아기가 예정일보다 3주나 일찍 태어났기에 아직 아기를 맞을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지식도, 경험도 전혀 없으니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리도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퇴원한 첫날에는 그저 아기 곁에서 아기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터 문에게 부탁을 했을 정도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게다가 그 친구는 그런 일에 재주가 있었다.

그러니 그 역시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에 모든 재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직접 구입해야만 했다. 심지어 전기 신청하는 것조차 전화로 되지 않던 때여서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아이가 자는 틈을 타서 움직여야 했으므로 마음은 급하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은 몹시도 힘들었다. 생각은 앞서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꼭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려 걷는 것처럼 걸었다. 무리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카펫만 새로 꾸며놓고 곧바로 입주를 해야 했다. 가재 도구라곤 가스레인지만 겨우 구입했을 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물을 데워 쓰는 chauffeur도 없어서 며칠 동안 냄비에다 아기 목욕물을 데워야 했다. 며칠 후 친구가 부엌 살림, 찬장 등을 실어다 주었다.

한편 모니고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삿짐을 옮길 때 침대와 장롱, 커튼, 의자, 책상 등을 주기로 했는데 이삿짐이 오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에는 모니고 할머니의 딸리 빌려

준 캠핑 침대와 담요로 버텨야만 했다.

캠핑 침대에 앉아서 아이 젖을 줄 때는 아주 불편했다. 그래도 집을 얻어 간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 여겨졌고,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사랑스러운 아기와, 곁에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전화를 통해 사랑의 힘으로 내게 용기를 주는 그. 그리고 나를 염려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그가 귀국할 때 사 가지고 간 악기를 팔아 번 돈을 송금해 주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스러웠다. 편지와 전화도 자주 했다.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며 오직 나와 아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빠리에 올 계획으로 이것저것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편지나 전화를 통해 나와 함께 했다. 오히려 그 때 더욱 진실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이 나는 무척 행복했다.

프랑스의 가을은 유난히 을씨년스럽고 비도 자주 온다. 우울하고 칙칙한 날씨는 계속되었고 나는 새로 이사를 왔기에 동네도 낯설고 알고 지내는 이웃도 없었

다. 젓먹이 아이와 단둘이 외롭게 가을을 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이를 씻기고 젓을 주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고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민이를 눕히고 담요를 몸에 둘렀지만 점점 심해졌다. 억지로 일어나 더운물을 끓여 마셔도 괜찮아지기는커녕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다. 민이가 자기 시작했으니 그동안 얼른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려 했지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겨우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 타고 근처에 있는 Tonon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열이 아주 높은데 결과를 알아보려면 오늘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은 정오가 다 돼가고, 집에는 생후 3개월 된 민이만 홀로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의사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불러 아기를 돌보게 하라며 이렇게 열이 높은 상태로는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며칠 입원해 있어야 할 상황이었다. 나는 울면서 새로 이사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를 부를 사람도 없다고 사정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Assistance를 불러 문제 해결점을 찾아주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를 탁아소 같은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부랴부랴 친구 니꼴을 불러 열쇠를 주면서 사정 얘기를 했다. 잠시 후, 니꼴이 아이를 빠리 남쪽 교외에 있는

Bourg-la-Reine에 있는 탁아소로 보냈으니 안심하라고 위로해주었다.

사흘 밤을 그렇게 병원에서 지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내내 나는 아주 고통스러웠다. 젖은 불어왔고, 온통 민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다.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 밤새도록 울었다.

검사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 동안 너무 신경을 쓰면서 피로가 쌓여 있었던 탓인 것 같았다. 영양주사와 해열제를 먹고 퇴원하여 다시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민이는 탁아소에서 아주 순하게 먹고 자면서 잘 있었다고 했다.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모니고 할머니께서 보내준 침대와 의자, 커튼 등을 받게 되었다. 텅 빈 집안에 가구가 배치되면서 이제야 뭔가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제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노래를 계속 해야겠다 싶어 음악 하는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했다. 피아노 반주자를 찾아가 노래를 해야되는데 아이 때문에 걱정이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모니고 할머니에게 도

다행히 기숙사에서 일하는 친구 니꼴이 그런 나를 도와 주었다. 아기 용품을 준비해주고,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사다주기도 했고, 장도 봐주고 아기 돌보기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 등 일일이 옆에서 챙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남편까지 나서서 함께 도와주었다.

니꼴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모니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아기 침대를, G교수님이 유모차를, E교수님이 아기 욕조를 장만해주셨다.

사흘 후 보험회사에서 앰블런스를 보내주었다. 내가 들어갈 휴양원은 St Germain en Lay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그 곳에서 한 달을 쉬도록 되어 있었다.

휴양원은 독신 엄마들이 출산 후에 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 모두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회적인 장치였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야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환경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삶과 처지가 있으며, 또 삶을 살다보면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럴 때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마저 없다면, 이들은 더욱 더 힘들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휴양원에서는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식사가 제공되고 조용한 방에서 아이와 함께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할 일이라곤 아이에게 젖을 주고 먹고 자면서 쉬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자 서서히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선 이곳에서 나가면 당장 집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살고 있던 예술인 기숙사는 이미 6개월을 연장해주었기에 9월 말이 되면 나와야 했다. 또한 살림살이도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기숙사에서 살았기에 살림 도구가 전혀 없었다. 아이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로 장만해야 했다. 이런 처지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 역시 심각했다.

집도, 직장도 없는 불안한 학생 신분으로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처지를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으니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결국 한 달을 다 채

우지 못하고 열흘 후에 휴양원을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담당 의사에게 내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한 달을 채우면서 그 곳에서 편안히 쉬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지난번에 4구 시청에 서민 아파트인 HLM 신청을 해 놓았지만 경쟁률은 말할 수 없이 높았다. 나는 시청에 가서 여러 번 재촉을 하기도 했고 또 다시 문화국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을 때 만난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를 도와주려고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미혼모 동양여인을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서 헤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었다.

그들을 통해 도와주는 기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서양 사람들을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남을 존중하고 각자의 성격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으려 한다. 싸우려 하지 않

고 서로 맞지 않으면 피해 버리고 제각각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태도로 자기들의 삶에 충실해 각자의 안정을 찾는 삶들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피하는 것뿐이다.

계속되는 비극

사회보장보험 덕택으로 병원비 한푼 내지도 않고 휴양원까지 소개받아 잘 쉬고, 교통편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프랑스는 미혼모와 아이를 보호해주며, 더군다나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양육 보조금도 지급한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였다.

나는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걱정도 되었다. 언젠가는 이 보조금을 다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야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집에 돌아오니 시장 보기, 요리하기, 집 구하기, 아이 키우는 일등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했다. 시장 갈 때나 불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찢찢매었다.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지하철이나 시장 같은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가 자는 틈을 타 움직여야 했는데, 다행히도 아이가 아주 순하게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계획을 세워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HLM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연

락을 받았다. 빠리 동쪽 20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HLM 아파트 얻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데 그 행운을 내가 잡은 것이었다. 나는 뿔뿔이 기뻐다.

친구 니콜과 함께 급히 달려가 보았다. 조그만 방 2개에 아무 것도 없이 텅빈 집이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E교수님이 오실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가면서 순환도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빠리에서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가 있나' 생각하며 본 바로 그 아파트였다. 그러나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집세도 싸고 교통도 편리했으며 특히 빠리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조그만 공원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졌다. 더욱 다행스러웠던 점은 살고 있던 예술인 아파트에서 나가는 날짜와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열쇠를 받던 날, 아파트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냥 잠시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아이와 함께 살 곳이니까 깨끗하게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 도배를 하고 찬장을 담기 위해 공항에서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미스터 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사람이 서울로 떠나기 전에 나를 잘 보살펴달라고 특별히 미스

움을 청했다. 딸이 있는 빠리로 이사오신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깝게 살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다. 할머니는 아이 키우는 방법도 설명해주시고 내가 밖에 나갔다고 하면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목욕탕에 담가 놓은 기저귀까지 빨아주시기도 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오히려 자주 부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했다. 그때만 해도 일회용 기저귀가 흔하지 않을 때였다. 게다가 집에는 세탁기도 없었으니 목욕탕에서 난리법석을 치러야만 했다.

노래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아이 때문에 늘어난 배도 보통 6개월이 지나야만 자리가 잡힌다고 하지만 도저히 기운이 없어서 연습조차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였다.

그런데 그 때 마침 빠리에 한국문화원이 처음 생겼다. 운이 좋았던지 서울대 교수로 계셨던 교수님이 한국문화원장님으로 오시게 되었다. 교수님은 내가 문화원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고르고 골라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줌마를 선택했다. 우리 아래 동네의 헌병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였는데, 어린 두 아들을 둔 사랑스런 여자였다. 그 집도 아

주 깨끗했고 아줌마도 부지런해 보였다. 민이도 그 아줌마를 잘 따랐고 그 아줌마도 민이를 아주 잘 보살펴 주어서 나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이 슬펐지만 잘 지내는 민이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아이를 아침 출근길에 데려다 주고 퇴근길에 데려 왔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그 헌병 아파트는 승강기가 없는 4층짜리였는데, 그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야했는데, 계단을 오를 때에는 조그마한 몸으로 아이가 탄 유모차를 안고 킁킁거리며 올라가야 했다. 거기다 내 핸드백과 기저귀가방, 시장을 본 물건까지 죄다 함께 들고 움직여야 했으므로 무척 힘이 들었다.

돈을 절약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따져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했다. 가끔은 시간을 계산해서 서둘러 나가려고 할 때 아이가 젖을 게우거나 똥을 싸서 마음을 졸이게 하는 때도 있었다.

그렇게 겨울을 맞이할 때쯤, 그가 빠리에 올 계획이 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그가 다니던 항공사에 사표를 내고 빠리공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냈던 강

사장님의 도움으로 비자를 신청했다고 했다. 강 사장님이 여행사를 차려서 그에게 맡길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빠르면 이른 봄에 올 것 같다고 했다. 빠리로 오겠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그는 매일 전화를 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삭여 주었다.

그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그의 집안 문제를 애써 묻지 않았다. 그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괜히 뒤숭숭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싶었다. 그저 그가 빠리로 다시 온다는 사실에 기쁨 뿐이었다.

가끔 주말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앞 공원을 산책했는데, 그럴 때면 동쪽의 하늘을 향해 그에 대한 그리움을 띄워보내곤 했다. 빨리 일이 잘 진행되어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고대했다. 그가 다시 내게 올 거라니.... 민이와 함께 온가족이 산책을 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고 꿈만 같았다.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전화였다. 빠리로 오기 전 서울에서 하는 마지막 전화이겠거니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는 무척 심각한 목소리로 그의 아내가 내가 자기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고 집안

이 난리가 났다고 했다. 내가 자기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면 자기가 빠리에 올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일절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모양인데, 빠리에 오게 되었다니 누군가가 그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 났던 모양이었다. 빠리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몹시도 실망하고 슬펐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떻게 타협이 되었는지 그는 예정대로 강 사장님과 피아노를 전공하는 강 사장님 친구의 딸과 함께 빠리에 도착했다. 끄끙 얼어붙은 모습으로 도착하는 날, 그는 나에게 바로 오지도 못하고 강 사장님 댁에 있으면서 잠깐 나를 보러오게 되었다. 불안한 모습의 그가 몹시 안쓰러운 한편,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척 처량하게 여겨졌다.

그는 나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찢절매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잠깐 나를 보러오는 것이니 나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서로 기분 좋게 만날 수 없었고, 그는 그저 아무 말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고만 했다. 자신은 좋은 직장도 버리고 나를 보러 빠리까지 온 것이니 그것만 가지고 견뎌 달라고 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잠깐 와서 무거운 머리만 떨구고 있다가 다시 사장님 집

으로 가곤 했다.

자세히 알고 보니 한 달 후면 그의 가족들이 빠리로 온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그는 집을 구해야만 했다. 또 한 수시로 걸려오는 그의 아내의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와 오래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나는 기가 막혀서 그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돌아왔느냐고 트집만 잡았다. 그는 그저 내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제발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그러워만 하고 살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셈이었다.

나는 그가 돌아오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길 줄 알았다. 모니고 할머니가 주신 부엌 살림과 임대해 놓은 피아노 하나가 전부인 집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가 돌아와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에서 그가 오기만 하면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19구에 아파트를 얻었고, 얼마 후에 서울에서 그의 가족들이 왔다. 그는 회사 설립에 정신 없이 바쁜 생활을

보냈다. 나는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매일 울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했고 어린 아들을 돌봐야했다.

그는 이 곳에서도 저 곳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 그래도 혼자 두는 것이 늘 신경이 쓰였는지 그는 피아노를 전공한다던 강사장님 친구의 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 학생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아이는 '정주'라는 이름의 아주 착실한 학생이었다. 정주는 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는 어처구니없게도 그의 아내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끊어버리기도 했고 직장으로도 전화를 했으며, 심지어 아파트 골목에서 그가 나를 보러 오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오로지 나를 감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감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모두에게 불행한 비극의 연속이었다.

그는 오직 회사에만 매달려 여행사 일을 추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의 자금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눈치를 보아가면서 기다려야 하니 마음대로 되지 않고, 특히 프랑스는 매사가 느린 속도로 진행되니 아주 답답해하였다. 스트레스에 쌓인 생활과 아내의 감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날 수 없었고,

하루에 한번의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말없이 끊어버리던 그의 아내가 전화로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의외로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다. 그녀와 나는 인사말로 서로를 위로했다. 나 역시 면목이 없지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민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도 민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다. 먹고 자는 것이 규칙적이었으며, 8개월 정도에는 걸음마도 시작했다. 또 정주와 함께 지내니 훨씬 덜 외롭고 사는 맛이 났다. 정주는 거의 하루 종일 피아노에 매달렸고, 피아노를 치지 않을 때는 나를 많이 도와 주었다. 민이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주었다. 우리는 다같이 시장을 가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으며, 가끔은 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정주는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기도 했다.

여름 바캉스가 시작되었다. 문화원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프랑스 할머니 제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제니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모델, 의상에 관한 일을 했는데 은

퇴해서는 칸느 옆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었다. 제니 할머니는 나와 민이를 그 곳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렇지 않아도 가득이나 뒤숭숭한 마음으로 늘 지쳐 있던 나는 휴식이 필요하던 차에 흔쾌히 할머니의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또한 민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는 휴가를 아름다운 '남불'로 떠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뻐했다.

민이와 함께 열흘 간의 일정으로 비행기를 타고 니스까지 갔다. 제니 할머니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주셨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밑의 조그마한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했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수영을 잘 못했는데, 민이에게는 꼭 수영을 가르쳐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민이는 바다가 무서워서 마구 울었다. 내가 안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소리를 치며 울어댔고 밖에 나와 모래사장에 앉혀 놓으면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서 또 소리치고 울어댔다.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모양이다. 모래사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목청껏 울어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다. 보기 드문 동양 아기의 모습을 신기해하는 듯했다.

그렇게 열흘을 잘 지내고 돌아왔다. 민이에게 태어나서 첫 휴가를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멋지게 보낼 수

있게 한 것이 나는 무척 만족스러웠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러하겠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었다.

어느덧 민이의 첫돌이 되었다. 조촐하게 상을 차려 사진을 찍고, 모니고 할머니와 민이를 돌봐주는 아줌마네 가족들을 초대했다.

저녁에는 그가 와서 오랜만에 셋이서 Mame 강가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다.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으나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답답함과 불안, 견어낼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으며, 그도 그날만큼은 최선을 다해 아빠노릇을 하려고 애썼다.

그 후 가을이 깊어졌고, 나는 깊은 슬픔과 우울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 나는 생각 끝에 문화원을 잠시 실 계획을 세웠다.

그는 회사 설립 마지막 단계인지 일주일 계획으로 한국에 출장을 떠났다. 그가 서울로 간 사이, 강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거의 퇴근 무렵이었는데, 강 사

장님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그의 아내가 아파트 부엌 유리창을 넘어 투신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우울증에 빠져있었는지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파트 8층에서 투신했다는 것이다.

강 사장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시던 분이였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집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덜덜 떨리는 몸으로 민이를 찾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주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곳을 빠리였지만 한인사회는 한국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다. 밖에 나서면 사람들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비난의 눈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나 때문이었고 그가 나를 만났으므로 일어난 일이었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죄책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런 내 곁에서 오로지 정주만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회사의 비서를 통해 가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

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바로 나를 찾아왔다. 힘없이 축 처져 다 죽어가는 불쌍한 모습이었다. 나는 자시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자기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며 이제 남은 삶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여행사 일에만 매달려 돈버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뛰어내린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이사를 해야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돕고 싶었다. 마침 우리 집 옆 구역에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와 함께 가보았다. 높은 건물은 이제 무섭다고 했지만 그곳 역시 높은 건물이었다. 그곳을 계약하고 이사할 때까지 나는 내 일처럼 뛰어다녔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가 괜히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집안 일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좀 시켜달라고 했다. 어느 날, 나와 민이는 그를 따라 그의 어머니, 동생, 그리고 두 아이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했다.

그의 아이들은 예뻐다. 큰아이는 13살 여자아이였고, 작은아이가 8살 남자아이였다. 큰아이는 사춘기에 들어서서 그런지 나를 보자 배가 아프다며 자기 방으로 들

어가 버렸다.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마음 편하진 않았지만 나는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연말 즈음, 그가 찾아왔을 때 손을 다쳐 피가 흘렀다. 그는 웃으면서 좋지 못한 징조라고 했다. 그는 웃었지만 나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그는 여행사 일로 버스를 안내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태리를 다녀온다고 했다. 순간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웬일인지 불안했고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그가 가족들에게 대해서 걱정하길래,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위로했다.

그가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객들을 안내하면서 이태리를 다녀온다고 떠난 직후 강 사장님이 전화를 했다. 강 사장님은 같이 일하고 있는 아랍 사장이 조지 5세 호텔에서 열흘 정도 머무는데, 그 곳에서 전화를 받아줄 비서를 구한다며 나에게 해보라고 했다. 돈이 필요했던 차에 나는 그 일을 하기로 했다. 영어가 서툴러서 힘이 좀 들었지만 9시 정도에 출근하고 5시경에 퇴근했다. 일하는 곳이 그의 여행사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가 이태리에 간 사이 삼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가끔 회사로 전화해 삼촌에게서 그의 소식을 묻고 하고, 일하는 곳으로 삼촌을 초대해 만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일주일이 지났다. 그 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렸다. 빠리에 온 후 처음으로 그렇게 함박눈이 내리는 것을 봐서 기분이 들뜨기도 했다.

퇴근길에 민이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를 대신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만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때마침 집으로 그의 전화가 왔다. 식구들과 통화를 하고 나도 잠깐 그와 통화를 했는데, 그는 니스로 돌아왔고 빠리에는 내일 저녁때쯤이면 도착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도 들었고, 내일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 비서일로 월급을 받게 되면 곧 다가올 그의 생일에 좋은 선물을 사서 그를 기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출근해서도 틈만 나면 밖을 내다보며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오후에 회사로 전화를 하니 삼촌이 그가 빠리로 돌아왔다고 알려주었다. 곧 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하필 그날다라 퇴근이 늦어져 9시가 다 되어 퇴근을 했다.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가서 민이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탔다. 택시 운전사가 북부 순환도로를 타려고 개신문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난 남쪽 세느강 방향으로 가 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세느강변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경시청을 바로 지나 전에 살던 예술인 기숙사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 곳은 옛날 그와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한 곳이었다. 그는 내가 그 곳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언제 여유가 생기면 이 곳에 집을 사주겠다고 했었다. 또 내가 그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세느강변의 여인으로 통하고 있었다. 평소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을 참 좋아했다.

그곳을 막 지나고 있는데 그 앞에 경찰차와 앰불런스가 서있고 사람들이 둘러싸 있었다. 아마 교통사고가 난 듯했다. 택시 안에서 얼핏 보니 사고 난 차는 몹시 찌그러져 있었고 뒷모습을 보니 그의 차와 비슷해 보였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열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아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곧장 잠이 들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며 정주가 다급한 소리로 나를 깨웠다.

전화선을 타고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빨리 와 달라고 하셨다. 경찰이 와서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큰아이가 들고는 자기 아빠가 죽었다고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

르겠다는 것이다.

시계를 보니 1시가 넘었다. 미친 듯이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아까 지나쳤던 사고 현장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도 설마 죽기야 했겠나 싶은 생각에 마음을 추스르며 19구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하니 식구들이 모두 웅크리고 앉아 불안에 떨고 있었다.

상황은 이랬다. 삼촌은 그가 이태리에서 돌아와서는 곧 회사 일로 손님과 약속이 있으니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손수 해 놓으신 음식을 데워 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라가며 기다리고 계셨다고 한다. 새벽 1시가 넘어 벨이 울려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경찰이더라는 것이다. 경찰이 뭐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손녀딸을 깨워 들어보라고 했다고 설명해주었다. 나는 13살 먹은 큰아이에게 경찰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다그쳐 물었다. 아이는 분명히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이 두고 간 종이를 보니 사고 현장이 아까 내가 목격했던 바로 그 곳이었다. 나는 소름이 끼치듯 전율했다. 그래도 죽었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믿기도 싫었다. 설마 살아는 있겠지 하는 막연한 심정으로 하얗게 밤을 새웠다.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아침 일찍 강 사장님 댁으로 전화를 했다. 딸이 전화를 받아 사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그의 사고 소식을 전해달라 부탁했다. 9시가 되자 우리는 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어제 경찰이 남겨준 종이 쪽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신분을 알렸다. 경찰에서는 다시 한 번 그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 몸이 덜덜 떨려와 주저앉고 말았다.

가까스로 경찰이 알려준 대로 세느강변의 도립병원으로 갔다. 우리는 밤은 세워 피곤한데다, 공포와 절망, 슬픔에 휩싸였다. 병원 대기실에서 떨고 있을 때 하얀 홀이 불로 덮여진 시신이 눈앞에 나타났다. 홀이불을 제쳐보니 분명히 그였다. 내가 너무도 사랑한 그가 숨을 멈춘 채 차디찬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실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을 다시 되살아나게 할 수는 없는 걸까? 불쌍한 어머니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삼촌도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그 청정한 나이에 한마디 말도 없이 한낱 이슬로 사라져 버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두 달 사이에 고아가 되어 버린 두 아이, 이 먼 외국 땅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

다.

서울에 갔던 그는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곧장 프랑스로 불려져 왔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으며,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한 그는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고개도 못 들고 그 사태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도 주위의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죽은 아내의 시구는 처갓집의 요구로 일주일 정도의 절차를 거친 후 한국으로 옮겨졌다.

그 후 그는 장례 문제로 거의 한 달 가까이 한국에서 지내고 아이들, 그의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빠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나마 아이들이 할머니와 삼촌을 의지하면서 슬픔을 잘 이겨내 주었다. 그는 계속 회사 일을 이끌어 나가야 했고, 어머니와 동생의 언어 장벽 때문에 일일이 집안 일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슬픔을 스스로 달래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만 했다.

나는 이제 빠리의 한인사회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다. 문화원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내놓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 스스로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살길을 찾아야만 했다. 마침 Chatelet 극장에서 맥 베스 공연의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오디션을 보았다. 다행히 합격을 해서 임시로나마 계약을 하게 되었고,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의 큰 빛을 떠안게 된 내게 국립음악원 친구들은 많은 도움과 위로를 해 주었다. 모니크 아줌마와 그의 어머니, 친구 브리지뜨와 니콜, 민이를 돌오아주는 헌병 아파트 아줌마도 내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다. 집에서는 정주가 나를 위로해 주었는데, 가끔은 정주를 통해 한국인 사회와 그의 소식을 전해듣기도 했다.

나도 나였지만 나와 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가슴 아팠다.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더욱 마음 아팠다. 이제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한 번 만나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도 싶었다.

크리스마스가 막 지나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게는 할말이 없다며 이제 그만 우리 사이를 끝내자고 했다. 나도 잘 알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라고 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고 싶다고도

야 하는 어머니. 그 불쌍한 모습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기다렸던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을 향해 너무도 가혹하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불쌍하게 죽어간 그의 시신 앞에서 우리가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고, 나를 사랑한 대가가 너무도 크다고 외쳤다.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그 사람이 너무나 야속했다. 우리에게 닥쳐온 불행을 추스르고 회복할 틈도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다. 몇 번이고 세상이 그대로 멈추었으면 하고 바랐다.

우리는 그 차가운 침대 위에 그를 그대로 두고 나와야 했다. 안전벨트도 메어 있었고, 다른 차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혼자 신호등을 들이받아 난 사고였으므로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사체를 가족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또 사고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을 돌려주며, 그가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과 신발 한 벌을 가져오라고 했다. 사체 검사 후에 다시 그에게 입혀줄 옷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소지품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찾으라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시계 찾는 곳, 돈 찾는 곳.... 모두 각각 다른 장소였다. 그것들을 찾으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했으므로 일이 복잡해져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병원을 나와 가족들을 집으로 보내놓고 나는

그의 회사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의지가 되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사장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직원들이 상의해서 사후처리를 하겠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의지할 데도 없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지 우리 집에서 모두 함께 지내기를 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이는 식구들이 많으니 마냥 즐거운 모양이었다. 민이가 그 때 17개월이었으니 뭘 알았겠는가. 하지만 아빠가 이제 없다는 것을 가족들의 분위기로 봐서 안 것인지, 아홉 살배기 형과 TV를 보는 것으로 슬픔을 달래는 듯 했다.

우리는 뚝뚝 뭉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의지할 곳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나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했지만 그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의 행정상 늘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복잡했고 일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그와 어떤 관계인지 가는 곳마다 설명해야 했다.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다 보니 몸은 피곤에 지칠 대로 지쳤다. 그 와중에도 일을 놓을 수 없었기에 Chatelet 극장의 연습과 공연에도 빠지지 않았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궁리해야 했다. 그 때는 완전히 나라

이 들었다. 그러나 노래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마음 속에 엉켜있던 슬픔들이 풀어지면서 시원해지곤 해, 한편으로는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제는 내 아이를 위해서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멋지게 노래하며 사는 예술가의 생활을 찾으려고 발버둥쳤다. 민이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면 노래는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6월에 있었던 콩쿠르에서 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이 허약해져 예민하기만 하고, 오페라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내게 너무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다.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이나에 따라 아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당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나는 노래를 부르며 울 때가 많았다. 콩쿠르가 끝나고 단장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모자란 듯 하니 다음 기회에 해보라고 하시면서 일단 임시단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셨다. 국립학원 오페라 클래스의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잘 소개해 주셔서인지 그나마 오페라에서 가끔 일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오페라는 외국인은 소수 정예로 한정되어 있었고, 연령제한도 있었다.

임시단원으로 채용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한편, 샤틀레 극장의 거의 마지막 공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페라에서 배역을 조금 주겠다고 했다. 마지막 공연에 그 일이 겹치게 되어서 망설였지만 오페라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샤틀레 극장의 마지막 공연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걸 알게 된 지휘자가 아주 많이 화를 냈다. 그 후 나는 다시는 그 극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합창단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꼭 빠리 오페라에서만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임시단원의 생활은 무척 힘이 들었다. 가끔 단장님이 부를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쨌거나 경쟁이 심한지, 시기심 많은 임시단원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살벌했다. 특히 동양 사람인 나를 무척 무시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저희들의 빵을 외국인들이 와서 빼앗아 먹는다고 불편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학생 신분이었기에 일을 많이 주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민이는 두 돌이 지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아주 귀여웠으며, 성격은 나를 닮아 강했으나 매우 영리하고, 순하게 잘 크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호적 문제가 남아 있었다. 틈틈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

아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아빠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할머니가 한국 호적에 넣어 빠리로 보내왔다. 내 음악 코치의 남편이 판사였는데, 다행히 그분의 도움으로 프랑스 호적으로 넣을 수 있었다.

그 문제로 나는 몇 년 동안 서류몽치에 싸여 몸살을 앓아야 했다.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이니 안정을 찾기위해서는 그저 서류를 꾸며 여기저기에 내밀어야 했다. 그런 일들을 내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어서 중요한 서류나 편지 등은 모니고 아줌마가 거의 모두 도와주었다.

당시 8년째 빠리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도 있어 국적신청을 했으나, 몇 달 후 국적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아 막연해 하고 있었다. 때마침 국립음악원 교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그 때의 정권은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을 막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녀의 남편은 사회당 소속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 나는 국적을 획득하는 행운을 얻었다. 매년 악몽처럼 시달려야 했던 '체류증 재신청' 대신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체류 조건이 해결되었다. 큰 시름 속에서 벗어나 민이와 함께 설 땅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했다.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키우겠으니 여기서 이렇게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없고, 당신은 말이 통하지도 않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 서울에 있는 딸 곁에서 살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셨지만 시신을 운반하는 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했다. 사장님을 만나서 어머니의 뜻을 전했지만 사장님은 반대했다. 회사 설립 때문이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많은 지출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집도 정리해야 하고, 서울로 이사하는 비용과 아이들의 장래 문제 등도 있으니 여기서 화장하는 것을 권하셨다. 어머니는 화장하는 것이 또 마음이 아파 많이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집에서 발견했다며 그의 저금 통장을 내미셨다. 거기에는 1만5천 프랑 정도가 저금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내가 번 돈 2만 프랑을 함께 해서 사장님께 드리며 장례식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 그러나 사장님은 그 돈을 되돌려주셨다.

열흘에 걸친 사체 부검 결과는 별다른 사항 없이 사고 당시 즉사한 것으로 나왔다. 눈 내린 추운 날씨인데다 먼 여행에서 돌아와 그는 몹시도 지쳐 있었고 그 동안

여러가지 마음 고생을 한 터에 지칠대로 지쳐 잠깐 졸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런지도 모를 일었다. 나중에 들으니, 버스로 일주일간 이태리를 다녀오는 동안 손님들을 보살피느라고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약물복용이나 음주 등의 특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사체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 해 겨울, 뻘흐라 쉼즈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우리 다섯 식구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장례식을 치렀다. 한 줌의 재로 변한 그를 그곳에 안치시키고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울면서 서로를 달래곤 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많은 궁리를 한 끝에 그의 가족들은 일단 서울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내놓기로 해서 어머니와 삼촌은 부지런히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나는 Chatelet의 맥베스 공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노래를 해야만 했다. 음악이 나를 더욱 슬프게 해 거의 매일 컴컴한 무대 뒤에서 불쌍히 죽은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는 나로 인해 거의 매일 저녁 그의 아내와 싸웠다.

죄인인 그는 주로 아내한테 많이 맞으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들었다. 나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그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미칠 것 같았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해 어린 민이만 아니면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저 사람들을 피해가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어머니는 짐을 꾸려서 아이들과 삼촌, 그리고 묘에 안치되었던 재를 찾아 돌아가시기로 되었다. 재를 여기에 두고 가시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갖고 가시길 원했다.

비행기표와 장례식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했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의 죽음에 관한 문제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리는 너무 짐이 되었고, 회사에 너무 많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빨리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서울 식구들이 어머니에게 들어오시기 전에 그 곳에서 보험이나 보상관계를 잘 알아보고 오시라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회사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보험이나 보상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회사에는 통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이 거의 끝났지만 완전한 조건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설립 도중에 일을 한 것이었다고 했고, 그들의 서

류가 어떤 조건에 있었는지 보여주지 않은 채 쉬쉬하며 급히 처분해 버렸다. 그랬으니 우리가 알 길이 없었다. 더 이상 대항하며 그 문제를 캐낼 기운도 없었고, 더 이상 마음 고생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다칠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날 그의 재를 찾아 하룻밤 교회에 안치해 달라고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했다.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에서 하룻밤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다. 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기회에 남은 식구들은 교인이 될 수 있으니 어려운 입장에서 사랑의 손길을 원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했다. 결국 집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 이튿날 모두 함께 떠나야 했다. 허전한 마음뿐이었다. 그의 식구들은 그 후 남은 일들을 나에게 맡기고 떠났다.

삶의 이름으로...

나는 점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허전하고 아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가슴을 붙잡고 다녀야했다.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어 눈을 살짝만 감아도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 내렸다. 울어도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가끔은 그의 꿈을 꾸기도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 적도 몇 번 있었다. 그가 내 곁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죽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막연하고 캄캄한 삶이었으나 나에게는 그가 남긴 씨앗, 민이가 있었다. 아직 어린 민이를 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잠재우는 시간과 밥 먹이는 시간은 규칙적이도록 아주 철저히 신경을 썼다.민이는 내가 사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다행히 정주와 함께 있어 큰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

정주는 참 착하고, 성실하고, 무척이나 좋은 아이였는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아주 잘 따랐다. 게다가 피아노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아 하루종일 피아노에 매달리 다시피 열심히 했다.

그 피아노는 지난 연말에 다음에 민이가 크면 피아노를 치게 하려고 사놓은 것이었다. 월부로 빌리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중고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았다. 그가 있으면 조금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피아노 할부가 격이 큰 짐이 되었다. 결국 정주도 필요한 것이어서 정주가 있는 동안에는 같이 해결할 수 있었다.

살고 있던 아파트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산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하고 나니 그 곳에서 영영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숨이 막힐 것 같이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으며,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집이 아주 싫어졌다. 정주가 살롱(거실)을 쓰고 있었고, 나는 내 방에서 민이와 함께 지냈었는데 내 침대, 아기 침대, 가구 그리고 장난감 등으로 방 안은 늘 복잡하고 가득 찼기 때문에 더욱 심란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체류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체류가 허락되어 있었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유학생으로 체류증을 연장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소르본 4대학에 음악 박사과정으로 입학해 계속 공부를 해야 했다.

실력이 모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복잡한 나의 머릿속과 형편으로 공부를 계속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

이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아주 심각했고, 특히 빠리의 한인사회에 얼굴을 내놓고 살 수 없었으므로 내 처지는 더욱 한심했다. 항상 머릿속이 터져 나갈 듯이 복잡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내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넘어진 채로 허덕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배운 것은 노래밖에 없었지만 노래하는 일을 찾는 것은 그래도 쉽다고 생각했다. 노래를 부를 마음이 아닌데도 입을 열어 소리를 질러대야만 하는 내 처지가 한심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국을 떠나 유학 온다고 E교수님께 인사를 갔었을 때 그 분이 나에게 '외국에서 힘이 들겠지만 넘어지면 다시 벌떡 일어나는 오뎅이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일어서려고 이를 악물었다.

집에서는 정주의 반주로 연습을 했고, 학교에서는 음악 선생님들이 무료로 레슨을 해주면서 도와주려 했다. 또한 나의 친구들 니콜, 모니끄, 브리지뜨, 제니, 프랑소와즈, 그리고 문화국장님 등이 늘 힘이 되어 주고 했다. 나를 초대하기도 하고 모두들 나에게 신경을 써주었다. 또 그 당시 전화국에서 일하던 친구 마가리가 자주 서울과 국제 통화를 연결시켜줘서 서울에 있는 그의 가족

들과 부담 없이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우리 집 식구들도 내 형편을 알고 가슴 아파해 주었다. 그러나 집에는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엄마의 병환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괜히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내 걱정까지 끼쳐주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가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엄마는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나와 민이 걱정을 하셨다. 전화를 할 때마다 민이를 잘 기르라고 말씀하셨다. 타향에서 자식 노릇도 못하면서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가끔은 너무 괴로워해서 생각이 없는 바보천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어떤 때는 아이를 데리고 그가 죽었던, 세느강변의 사고 현장으로 가서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국립학원 오페라 클래스의 선생님이 빠리 오페라단 합창 지휘자를 찾아가 보라고 권하셨다. 합창 지휘자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오페라 단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더니 6월에 있을 콩쿠르에 응시해보라고 했다.

정주와 함께 콩쿠르 준비를 했는데, 나는 그동안 지친 데다 잠을 못 자 신경이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너무 힘

그제서야 한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다달이 약간의 양육보조금이 나왔고, 임시로나마 오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ASSEDIC에서 생활보조금도 나왔다. 집 값이 저렴한데다가 정주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니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 수 있었다.

나와 내 아이를 위한 삶

그가 세상을 떠나던 그 해, 82년 가을에는 모나코 왕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모두들 슬퍼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왕비도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니 모두가 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슬픔을 지니고들 사니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기도 했다.

83년 정월, 첫 번째로 맞는 그의 제삿날이 되었다. 예쁘고 깨끗한 그릇들을 따로 장만해서 제사를 지냈다. 한국의 제사처럼 어린 민이에게 아빠 사진 앞에 절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민이를 데리고 사고현장으로 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던져 놓고 돌아왔다.

내가 크리스찬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오래도록 제사를 지냈다.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집에서 몇몇 분들을 보시고 간단히 추모예배만 보았다.

민이가 세 살이 되었다. 민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했는데 그 동안호적, 국적 등의 서류뭉치에 싸여 지내다보니 시기를 놓쳐 좋은 곳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듯했다. 결국 학군에 해당되는 학교에 배정되어야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엔 입학시키고 싶지 않았다. 외국인이

반이상이나 섞여 있는 데다, 이 곳의 교육제도가 어떤 지 제대로 모르면서 아이를 맡긴다면 아이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미루면서 망설이다가 한 달에 2백 프랑 정도의 학비를 내는 조그만 사립 유치원을 찾아 뒤늦게 신청했다. 외로이 지내고 있던 아이도 그 곳을 무척 좋아했다. 집 앞의 예쁜 공원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유치원이 마음에 들었지만 이미 학기 중이라 자리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그 유치원에서 자리가 나왔다고 연락이왔다. 아침에 데려다 줄 때 보통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지만 민이는 첫날부터 너무 좋아했다. 하긴 좁은 방구석에서 늘 슬퍼하는 엄마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즐거운 생활이었을 것이다.

그 해 여름에는 셋째 오빠의 초청으로 서울에 갔다. 그렇게도 그리던 엄마 앞에 민이를 처음으로 인사시켰다. 엄마는 민이를 보시곤 아주 좋아하시며 잘 기르라고 몇 번이나 내게 당부하셨다.

서울에 있는 동안은 민이의 친할머니집에서 머물렀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두고 간 아파트를 정리해서 딸의 집 옆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 딸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며 살고 계셨다. 그가 남기고 간 두 아이를 정성

을 다해 키웠고, 결혼하지 않은 막내 삼촌도(과거에 빠리에 왔었던) 함께 지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계셨으니 천만 다행이었다.

민이는 빠리에서 외롭게 있다가 모든 친척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니까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두 아이는 나와 의 관계에서는 좀 힘들어 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동생이라고 민이를 아주 예뻐해 주었고 특히 누나는 많은 것을 챙겨주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것을 어려워할수록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본의 아니게 저질러진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남아 있는 우리들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자며, 나는 너희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곤 했다.

아이들은 할머니 덕분에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큰아이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힘들어 했고 거의 잘 먹지 않아 할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우울증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걱정을 하면서 애를 쓰곤 했다.

더운 여름 동안 서울에서 한 달을 보내고 다시 빠리로 돌아왔다.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빠리로 직행하는 비행기가 없었기에 너무나 긴 비행기 여행에 시달려야 했다. 더구나 서울의 여름 날씨는 유난히 더운데다가 시차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식구들을 자주 보러 가고 싶

고 자주 나오라고도 했지만 없는 형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친지들에게 번번이 폐를 끼칠 수 없어서 그 후 나는 자주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민이는 아주 귀엽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성격이 나를 닮아 순하고 착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었다. 프랑스 아이들은 울면 금방 그치는 편인데, 민이는 한 번 울면 유난히 길게울었다. 나는 달래면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가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 아이를 때리면서 울음을 그치게 한곤 했다. 모니고 할머니가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길러야 한다고 충고해주셨고, 나 역시 엄한성격이었기에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면서 아무렇게나 기르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위층에 사는 아줌마가 민이가 하도 큰소리로 오래 울어대니 우리 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있었다. 그 아줌마는 직장에 다니며 딸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줌마하고는 그 때부터 친하게 되었는데, 나중엔 그 아줌마 덕분에 일하는데 지장 없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오페라에서 밤에 일 할 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민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저녁에 오페라에서 일할 때면 늘 그 아줌마에게 부탁했는데, 기꺼이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곤 했다.

어느 날, 게을러 신청하지 않았던 주택 보조금을 모니
고 아줌마의 권유로 신청했더니 얼마 후 지나간 몇 년
의 밀린 돈까지 한꺼번에 받았다. 7천 프랑 정도의 큰
돈이 구좌로 들어왔는데 나는 그것을 아무렇게나 지출
하기보다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럴
잖아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노라면 너무
힘이 들어 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더구
나 민이가 자동차를 무척 좋아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를 부러운 듯 쳐다보곤 했기 때문이다.

아빠가 없으니 내 아이는 자동차 한 번 탈수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민이에게도 우리가 차를 탈 수 있을 것
이라고 희망을 주었다. 또한 운전을 배워놓지 않으면
언젠가 차를 살 돈이 있어도 차를 태워줄 수 없을 테
고, 또한 어린 아이가 있으니 밥이라도 굶게 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될 때를 대비해 운전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왠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다.

운전 학원에 등록을 한 후, 운전면허증을 쉽게 딸 수
있으리라 자신했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3년
에 걸쳐 다섯 번을 떨어지고 여섯 번째만에 운전면허증
을 딸 수 있었다. 돈도 아주 많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려 3년 동안 콤플렉스와 노이로제에 시달리기도 했
다. 중단하자니 그 동안 버린 돈이 아까워 포기할 수도

없었고, 또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오래 기다리면서 다음 번 시험준비를 하기도 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민이 친구 엄마가 자기도 다섯 번째에 합격했고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니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었다. 또 면허 시험을 보면서 알게 된 어떤 여자도 세 번째 시험에서 면허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남편에게 야단을 맞아 남편을 속여야 된다고 해서 함참을 웃었다. 그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나는 그런 핀잔을 줄 남편이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민이 보기가 미안했고, 정주가 언니 또 떨어졌구나 하면서 딱한 표정을 지을 때에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면허를 따면서 알게 된 민이 친구의 엄마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쪽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집에 조금 좁은 것 같아서 큰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라고 했다. 나도 막연히 좀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더니 그녀는 자기가 떠나면 자기네 아파트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집을 보여주었다.

그 집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트여져 하늘을 마음껏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햇볕이 종일 돌아가면서 골고루 비치는 아주 밝은 집이었

다. 방 2개와 살롱(거실) 그리고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었다. 멀리에 있는 정구장이 한눈에 들어왔고 더멀리 뱅센느 동물원의 바위가 보였다.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얼른 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신청을 해놓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금방 답이 없었다. 도다시 문화국장 님에게 전화를 해도와달라고 했더니 얼마 있다가 바로 이사를 하라는 답장을 받을 수있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던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민이가 4살이 되던 84년에는. 서울에서 둘째 언니가 찾아왔다. 며칠 동안이지만 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전에 예술인아파트에 있었을 때 큰오빠가 사업관계로 찾아온 이후 두 번째로 찾아온 내 가족이었다.

또 그 해에는 정주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해였다. 정주가 떠나기 전에 민이와 함께 셋이서 3일 동안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친동생처럼 지내온 정주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서운하긴 했지만, 한참 귀여운 짓을 하던 민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주가 떠나면서 다른 학생을 소개해주어서 몇 달을 같이 살았으나 정주 같지 않아 지내기가 좀 힘이 들었

다. 얼마 후 그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정주가 떠난 후 여러모로 힘들고 외로웠지만 민이는 학교에 가고 있었으니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고, 나 역시 민이 친구들의 엄마와 알게 되면서 자주 만나기도 했다. 또한 그 동네에서 몇 년을 살게 되니 아는 사람들도 조금씩 많아져 정주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집으로 데려 오는 길에 아이들을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그 동안 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친구를 사귄 기회가 되었다.

내가 아이를 늦게 가졌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보통 나보다 젊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녀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았다.

프랑스 엄마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깔끔했다. 항상 계획을 세워 생활했고 시간, 규칙을 잘 지켜 아이들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을 일정하게 지켰다.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독립심을 길러주었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었다.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기르는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한국 엄마들의 시도 때도 없이 어른들 속에 섞여서 아이를 끼고 있거나, 손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며 밥

을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더러 보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렇기에 나름대로 두 문화 속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 때문에 매사에 꼼꼼하게 신경 쓰며 살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엄마들이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점을 찾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나름대로 아이를 바르게 기를 수 있었다.

특히 나는 나보다 9살이나 아래인 친구 브리지프를 본보기 삼았다. 그녀에게는 우리 민이보다 한 살 위인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아이를 길렀고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브리지프는 아이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늘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었으므로 내게 큰 의지가 되었다.

민이가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더운 여름 날, 민이 친구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자고 해서 함께 갔다. 주로 집에서 외롭게 지내던 민이는 무척이나 기뻐했고, 수영자영 도착하자마자 친구와 앞장섰 올라갔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아이들을 놓쳤었다. 불과 1, 2분 사이에 앞질러 올라간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찾아도

제일 먼저 글을 깨우친 것이다.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내가 일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이에게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줄 수가 있었다. 주위의 학부형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자주 초대를 받아 아이들 교육과정 등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도와주었으나 우리 민이는 선생님한테 칭찬까지 받는 좀더 뛰어난 아이였기에 민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런데 그 즈음, 언제부턴가 민이가 무서움을 많이 타고 자주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특히 친구들이 자기 아빠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노는 것을 보고 나면 더욱 힘들어했다. 한 번도 기억할 수 없는 아빠를, 단지 사진에서만 본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 애절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내가 아빠 역할, 형, 누나 노릇도 해주어야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피아노를 치고 싶었다. 민이가 6살이 되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소원을 내 아들에게 실현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전공으로 키우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나 외로운 아이에게 음악을 친구로 삼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규칙적으로 매일 조금씩 가르쳤는데 민이는 곧잘 따라했다. 그로 인해 민이 친구의 엄마들이 자기네 아이들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서 그 때부터 나는 피아노 레슨을 하게 되었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했지만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재미있고 또 엄하게 기초를 가르쳤고,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 아이들이 참을성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며 정신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하게 하였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어, 오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민이는 일 년이 지나자 피아노 치기를 싫어했다. 아무리 내가 엄하게 요구하고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도 싫어했다. 나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지 말고 매일 10분이라도 만져보라고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그렇게 또 일 년이 지나고 나서 민이는 내 친구 브리지트의 아들의 영향을 받아 다시 마음을 잡고 피아노를 계속했다. 이때부터 민이는 피아노를 매일 30분 정도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 한인사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글학교가

열렸다. 나는 한인사회에서 소외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민이를 거기에 데려가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 더군다나 혼자 살고 있으니 한국말로 오가는 대화를 들려줄 수 없었고 기회도 없었다. 내가 습관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한국 단어만을 알게 되었지만 대답하는 말들은 알 도리가 없었다.

대신 운동을 열심히 가르쳤다. 수영, 유도, 승마, 축구, 자전거, 스키, 테니스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내 친구들의 도움으로 배우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내가 직접 클럽에 신청해서 배우게도 했다. 가장 오랫동안 계속한 운동은 테니스였다.

민이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공부도 했다. 기독교 국가에 살면서 성거영 무지했던 나는 아이가 성경에 대해 좀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게 생각했다.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해 늘 고민하던 중, 모나코에 연주 여행을 가서 알게 된 오페라 단장 부인의 도움으로 일 년 동안 그 부인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단장님께서 정년퇴직을 하고 스위스 쥘네브 오페라로 가면서 그 부인이 동반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부인은 사표를 제출하는 대신 일년 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치시키고 떠났던 것이다. 나는 그 기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 무렵, 오페라는 바스티유로 이전 계획을 하던 때였으므로 새 인원을 선출하는 시험이 없었다. 40세로 나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내 나이가 마흔에 거의 다다른 때였기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때에 다행히 기회가 나에게 돌아왔다. 1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나를 신임하여 주었기에 콩쿠르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오페라 정식 단원으로 일하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원하던 빠리 오페라에서 나와 내 아이를 위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던 절묘한 순간이었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기에 자주 아프던 것이 저절로 치료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픔으로 가득찼던 마음도 차차 밝아졌고, 오페라라는 큰집에 드나들면서 노래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저녁마다 세계의 유명 가수들과 지휘자들, 예술인들 사이에 끼어 공연하는 것이 행복했고 점점 삶의 의욕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페라에 정식 입단해 맞이하는 첫 겨울 휴가 때 나는 오페라에서 제공하는 단체 여행인 겨울의 눈 덮인 산 여행을 신청했다. 처음으로 민이에게 눈 오는 산의 경치를 보여주고, 스키를 가르칠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첫 번째 겨울 산 여행 때 민이가 너무도 좋아했기에 다음해의 두 번째 겨울 휴가 때도 산을 찾아갔다. 오페라 친구들과 밤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 이른 아침에야 겨울 산에 도착했다. 그 이른 아침, 호텔 방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이곳 저곳으로 뛰어다녔다.

한참 넋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달려와서 "민이가 밖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급히 밖에 나가 보니 언덕 밑의 차도에 앰불런스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두려운 마음으로 얼른 그 곳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얼굴과 팔을 다친 채로 누워 있는 민이의 모습이 보였다. 민이는 나를 보는 순간 "엄마!" 하고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팔이 부러졌고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나를 알아보는 것으로 봐서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분명해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호텔 방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대로 앰불런스를 타고 마을로 내려와 병원에 입원을 했다. 검사 결과 천만다행으로 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병원에서 하룻밤을 새고 이튿날 다시 앰불런스를

타고 빠리로 돌아왔다. 돌아온 즉시 유명한 외과 의사를 수소문해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걱정할 것은 없다고 했다. 그 후, 한 달에 걸쳐 뼈가 굳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 호텔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언덕 위에 있었던 호텔에서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놀다가 민이가 잘못 미끄러지는 바람에 3m 언덕에서 차도로 떨어졌던 것이었다.

오페라와 호텔 측은 책임을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었다. 그 때는 내가 막 오페라에 들어갔던 때이기도 하고, 다행히도 아이의 상태가 그 정도에서 그쳤기에 시끄럽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았다. 변호사를 사서 이것저것을 캐내자니 너무 힘이 들었고 피곤한 일이었다.

아이가 장애인이 되지 않고 그 정도였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후 다시는 겨울 산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단체로 가는 경우에는 안 보낼 수가 없었기에 보내 주어야만 했다. 마음은 항상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가두고 키울 수 없어서 늘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키워야 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고 있는데, 어떤 큰 아이가 민이를 끌어안고 물에서 건져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이는 풀에 올라가자마자 무조건 물에 뛰어 들었는데, 그 곳이 하필 2미터 깊이의 어른용 풀장이었던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그 큰 아이가 발견하고 건져 올린 것이었다. 순간적인 방심으로 아이를 잃을 뻔했던 생각에 어찌나 정신이 아찔하고 가슴이 두근거려는지 하루종일 마음 졸이며 민이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가 죽고 난 후부터 내게는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놀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피곤하거나 신경이 날카로울 때에도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하나 먹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아스피린 하나를 복용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천장이 빙빙 돌고 침대와 벽, 바닥들이 구불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듯 어지러웠다. 견딜 수 없이 머리가 아팠고 눈을 감아도 점점 증세가 심해져 SOS 의사에게 전화를 했다. 잠시 후 달려온 의사가 주사를 놓으면서 진정시키려 했으나 증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져 결국 응급차를 불러 또 입원하게 되었다.

그 때는 정주가 함께 있을 때여서 민이를 맡길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으나 또 한번의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사흘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모니고 아줌마와 할머니, 그리고 정주가 민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주었다. 간혹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나는 유일한 피붙이인 민이 걱정에도 더욱 괴로워했다.

모니고 아줌마와 할머니는 우리를 자주 초대해줬고, 가끔은 우리를 데리고 빠리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함께 나들이를 떠날 때도 있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남불의 제니 할머니가 우리를 초대했는데, 제니할머니는 민이를 위해 어린이 수영 강습에 입학시켜 수영을 배우게 하기도 하셨다.

친구 브리지프는 브르타뉴의 바닷가에 있는 자기 엄마 집에 종종초대해주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과 방학을 함께 보낸 적도 여러번 있었다. 민이에게 자기 아들과 함께 승마클럽에 신청해주어 말타는 것도 배우게 도와주곤 했다.

이렇듯 민이는 휴가나 방학을 풍요롭게 지냈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다.

그런데 하루는 민이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 중 한 아이가 시누와

(중국인)라고 놀린 모양이었다. 민이는 그런 놀림에 무척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다. 저 자신은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인종차별의 느낌을 받고서는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나는 민이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모습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그걸 결코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단지 모습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시켰다.

한편 민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만 축농증 증세가 아주 심했다. 그래서인지 코피를 한 번씩 흘리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이 쏟아냈다.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코피가 쏟아져 의사를 찾아가서 멈추게 하곤 했다. 의사는 축농증 증세가 아주 심하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수술시키는 것이 싫어서 애태우고 있을때, 마침 누군가 Homeopathe 의사를 소개해주었다. 그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해주었다. 이후로도 알레르기 증세가 있어 불만되면 꼭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6월이 되었을 때 민이는 유치원을 마치고 동네에서 잘 알려진 기독교 계통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민이는 학교에서 항상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다.

이미 유치원에 다니던 5살 때, 선생님이 민이가 벌써 글을 다 읽을 줄 안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었다. 반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내가 저녁에 일하는 날에는 언제나 이웃에 사는 루이 아줌마가 와서 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보통 나는 오후에 연습이 있었고,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 후에 저녁 7시부터 공연준비와 공연이 이어진다. 연습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민이에게서 그 날 학교에서의 일을 듣고 저녁을 급히 챙겨주는 등 잠시 아이를 보살핀 후에 다시 오페라에 돌아오곤 했다. 늘 시간에 쫓겨 분주한 생활을 했지만, 민이를 혼자서 외롭게 두고 싶지는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아주 평온한 나날이었다.

점점 생활이 안정되면서 규칙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번도 편안히 보지 못하던 시장을 마음놓고 보게 되었다. 전에는 마음껏 사지 못하던 것들을 머리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나간 슬픔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다. 조금씩 멋을 부리기도 하고 사고 싶은 옷가지들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었다. 특히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었고, 여름 방학이 오면 이제 조금씩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자유로운 날들이었

다.

또 다른 인연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뜻하지 않게 대학교 때의 교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담뿍 담긴 카드를 한 장 받았다. 대학 시절에 2년동안 나를 가르치신 지식과 미모를 겸비한 나의 선생님, 내가 가장이상의 여인이라 생각하며 존경했던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사랑을 가득 담아 내게 용기를 주시는 그 분의 글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를 생각하고 카드를 보내주신 그 자체로도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 나는 너무나 감격해 감히 함부로 답을 올릴 수 없어서 어떤 답글을 써 보내야 할지 그저 마음으로만 찢찢매다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도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카드를 보내주셨다. 그 분은 미국에 살고 계셨고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인 그 분의 남편도 유명한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다.

아마도 그 분의 언니인 E교수님으로부터 내 소식을 들으셨던 모양이었다.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고마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눈군가가 나를 믿고 나의 진실을 알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 용기와 희망이 솟아났다. 나에게서는 새롭게 삶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

나는 프랑스에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검소하게 사는법을 배우게 되었다. 특히 새것보다 옛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오래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집안살림이나 옷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곱게 입고 사용하고 있었다. 차도 새 것이나 좋은것으로 유난스럽게 사려고 하지 않고 냉장고, TV등 전자제품도 신제품에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좋게 말하면 절약하고 검소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궁색하고 구두쇠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물질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것 같지 않았다. 적당히 일해서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바캉스 떠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가나 문화 생활에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집 사는것, 차 사는것 그리고 좋은 집안 살림살이 마련에 돈을 많이 쓰는것 같다.

또한 프랑스의 많은 엄마들은 이 시대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TV 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반면 한국은 지금 한 집에 TV가 방마다 있을 정도로

여러 대이고 차를 두 대씩 갖고 있는 집들도 많다. 그리고 아주 사치스런 생활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프랑스에서 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세탁기와 냉장고도 오페라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할부로 들여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돈을 들여서 같은 접시 몇개와 스푼, 나이프 등을 조금 장만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같은 접시에 같은 스푼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운전면허를 간신히 딴 다음에는 할부로 2만 프랑 하는 중고차를 사기도 했다. 오페라 밤 공연을 하고 늦게 돌아올 때나 민이와 교회로 나들이 갈 때 자동차가 있으니 여러모로 편리했다.

차를 구입한 것이 여름 방학 즈음이었는데, 민이를 데리고 일주일 정도 노르망디의 바닷가에 가기로 계획했으나 처음으로 차를 끌고 나가려니 무서워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바로 옆의 순환 도로를 거쳐서 고속도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속력 내는 것이 무서워서 하루종일 망설이다가 결국은 출발을 다음날로 미루고 잠을 잤다.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운전을 한 것처럼 발이 뻗뻗했다. 처음으로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나 가족이 없다는 것이 한없이 외롭

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이 되자 더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민이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벌벌 떨면서 순환도로로 기어 들어갔다. 마침 길이 많이 밀려 있었기에 빨리 달리지 않아도 돼 앞만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동차의 흐름을 쫓았다.

고속도로까지 빠져 나왔을 때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신기하고 장해서 아들과 함께 깔깔 웃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 후부터 민이와 둘만의 자유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Caboury해변에 머물면서 주위의 여러 곳을 구경하고 즐거운 바캉스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제 운전예베테랑이라도 된 듯 노래를 부르는 여유까지 생겼다.

그 다음부터 방학이 되면 아들과 함께 프랑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고, 프랑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실감하게 됐다.

나의 하루 일과는 보통 오후에 연습이 있고 2시간 쉬는 시간에 부지런히 집에 돌아와 민이의 학교 생활을 잠깐 들어주고 저녁을 챙겨준 다음, 다시 오페라로 돌아가서 공연을 하는 식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면 나의 빈자리를, 그 시간엔 이웃집 아줌마 루이가 와서 아이와 함께 있어주었다. 나는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리고 늦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아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살펴주고 나서는 다시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의 일과를 되풀이 하곤 했다.

민이는 여전히 공부도 잘했고 피아노도 꾸준히 배우고 있었다. 오페라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피아노 교습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또 민이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도 돌보아 주고 피아노 치는 것도 가르쳐 주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부터는 보살펴 줄 실력이 되지 못해서 스스로 하게 하였다. 학교가 좋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것이 순조로웠다.

민이는 중학교 들어갈 때쯤 눈이 나빠져 그 귀여운 얼굴에 안경을쓰는 안경잡이가 되었다.

학교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Nation 쪽의 좋은 사립학교로 친구 부모들이 좋다는 의견을 따라서 그 곳에 입학시켰다. 그 곳도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고, 학비는 조금 비싼편이었으나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의 학교로 보내고 싶었다.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12구의 음악원에 아이를 입학시켰다. 예술의 길이 너무 힘들다 생각했기에 어릴 때부터 음악원에서 힘들게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찍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정식으로 배우면서 경쟁을 해야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결국은 늦게라도 음악원에 보내게 되었다. 학교 수업 외에 하루 40분 정도 피아노를 연습해야 했고, 일주일에 한 번 레슨받는 일과 2번 정도 Solfege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바빴다.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피아노 연습은 항상 마음 편하게 많이 할 수는 없었다.

중학교 때에도 학부형 회의에 참석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민이는 착실히 공부를 잘 하는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해주어서 뿌듯했다.

그 때가 나는 아주 행복했다. 가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가슴 아파 울 때도 있었지만 잊으려고 노력했고, 노래를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민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애타게 기다릴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으니 내 마음속은 평화로웠다.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치 여왕이 된 기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

오페라는 89년에 바스티유로 이사했다. 영광스럽게도 정명훈 씨를 지휘자로 모시게 되어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기를 펼 수가 있었는데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한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무조건 깎아 내리려고도 했지만, 정명훈 씨의 뛰어난 실력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지휘하는 연주회는 갈수록 성공이었다. 또한 그가 지휘하는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정명훈 씨가 유명한 음악감독으로 인정되면서부터는 우리도 연주여행에 초대되어 이태리의 PARME에서 3주 동안 머물 수 있었다. 연주 여행 동안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 여행도 하고 대접도 잘 받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연주 여행을 할 때는 민이를 제 친구의 엄마에게 맡겨놓았는데, 나는 아이 생각이 나서 동료들과 함께 그다지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어느날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6구 쪽에 있는 중국식당에 갔다가 그 곳에서 강 사장님 식당에서 일했던 친구를 만났다. 서로 반가워하며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강 사장님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사장님은 그 동안 건강과 사업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였다.

문득 사장님께 전화를 한 번 해야겠다 싶었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나 역시도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 전화로 안부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 사건이 있고 5년 만에 연락을 하는 것이었다. 사장

님은 무척반가워하며 그 동안 내가 어려울 때 찾아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만나고 싶다며 민이와 나를 초대했다. 참으로 오랜만의 한국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사장님은 다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이제는 가끔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살자고 하셨다. 그 후로 우리는 일년에 2,3번 정도 만나기시작했다. 사장님은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빠리에 오실 때면 꼭 우리를 불러 주셨다.

사장님과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다. 빠리에 오시면 빠짐없이 불러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집에도 초대해 주셨고, 선물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로 일요일날 교회 마치는 시간에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91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식당에서만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도 만나자고 자꾸 권유하셨다. 외국에서 호자서 아이 키우기도 힘드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하셨다.

나는 한인사회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싫었고,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다고 버텼으나 사장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주시는 것을 느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후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분위기가 싫었지만 차차로 익숙해졌다. 그 때는 그저 사장님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갔고 함께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사장님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다. 내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선물과 돈을 주시는 등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 혼자 있으니 외롭지 않도록 자주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라면서 아름다운 거울도 선물하셨다.

그렇게 조금씩 교회에 다니다가 연말쯤에는 이왕이면 새해부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내가 마음먹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밀고 가는 성격이기에 내가 약속한 대로 실천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사장님은 교회에 잘 나오니 기특하다고 하시며 나에게 새 차를 선물하셨다. 늘 조그만 헌차를 끌고 다니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며 부득이 빨간 '르노'를 사주셨다.

나는 사장님 덕분에 새차를 탈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볼 수 있었다.

봄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오신다며 내게 찬양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괜히 승낙했다. 사장님께서도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이 되어 나는 처음으로 그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 특송을하고 그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한편 7월 중순경, 오페라에서는 스페인 세빌리아의 박람회에 맞춰 테너 도밍고의 초청을 받아 베르디의 오페라 연주 여행이 잡혔다. 오페라 단원 전부는 이 연주 여행 계획으로 들떠 있었다.

그 때가 마침 방학 기간이어서 나는 민이를 데리고 강사장님이 선물한 새차를 타고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프랑스를 가로질러 세빌리아까지 구경하면서 내려가기 위해 다른 단원들보다 사흘을 앞서 떠났다. 가다가 날이 저물면 호텔에서 자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도로는 깨끗이 잘 닦여져 있었고, 주변의 풍경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스페인 국경을 들어 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자연은 좀 메말라 있는 듯했지만 옛 도시와 성당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독특한 스페인의 분위기가 프랑스와는 전혀 달랐다.

어느 때는 넓은 광야에 민이와 둘만 달리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때는 쫘 무섭기도 했다.

어쨌든 그 먼 거리를 자동차로 무사히 여행하고, 첫 연습이 시작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비행기로 먼저 도착했던 동료들이 나에게 'BRAVO'를 보냈다. 한 친구는 자동차로 오다가 마드리드에서 도난을 당했다면서, 상당히 위험한 길을 잘 왔으며 한껏 추켜세웠다.

우리는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박람회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 날 저녁에는 첫 연습이 있어서 전세 버스를 타고 오페라 극장에 도착했다.

민이에게는 피곤할테니 호텔에서 자고 있으라고 했다. 다른 단원들 중에도 가족을 동반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안심하고 호텔에 남겨 놓을 수가 있었다. 극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8시경부터 무대 연습이 있었다. 무대는 빠리의 오페라에서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경사가 심한 무대였다. 2막부터의 연습이라 우리는 무대 뒤에 높은 지점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좀 빼격거리면서 흔들거렸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보통은 앞에 서서 노래를 했었는데, 그 날은 키가 큰 친구들과 함께 서서 노래하고 싶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손 지갑을 옷장에 두지 않고 손에 들고 있어서 먼저 나가 앞에 서면 CHEF한테 야단을 맞을까봐 뒤쪽에 있기로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음악이 나오자 뒤쪽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대를 향해 막 나왔다.

그 때였다. 뒤쪽에서 우지끈하는광음과 함께 동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흔들거리던 뒤쪽의 높은 무대가 내려앉은 것이었다.

음악이 멎고 모두들 그 쪽으로 달려갔다. 동료들이 밑에 깔려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무대는 갑자기 비명과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 날 공연은 취소되었다.

그 길로 동료들은 병원에 쫓아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괜찮은지 확인하기에 바빴다. 갓 들어온 여자 동료 하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몇 몇 동료들은 큰 부상을 당해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의식 속에서 무대 앞쪽으로 나를 떠민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 같다. 내 생각대로 그 장소에 몇 초만 더 있었다라면 죽었거나 장애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도 난 아무런 부상 없이 호텔로 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 민이를 만날 수

있었다.

많은 동료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으므로 금방 그 곳을 떠나지 못하고 몇 일 더 머물러야 했다. 다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부상당한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이왕 온 박람회니 구경을 하자고 해서 관람을 하기도 했다.

몇 일 동안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우리는 제각기 빠리로 돌아왔다. 갈 때와는 달리 돌아올 때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혼자 운전하고 올라오리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동료 하나가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같이 운전하면서 돌아왔다. 마침 그 친구의 시골집이 오는 길에 있어서 도중에 들러 거기서 이틀 정도 쉬고 빠리로 돌아왔다.

빠리에 돌아와서도 옮겨진 동료들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다. 모두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7월 말경에는 미국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아껴주시던 E교수님이오셔서 함께 지냈다.

처음에는 스페인에서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 차근차근 집 정리를 하고 청소라도 깨끗이 해서 선생님을 맞이하

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의 사고 때문에 어수선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 귀하신 분을 초라한 집에 모시려니 조금은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으나,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셨다. 2주 동안 함께 하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아는 기회가 되었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돌아가셔서도 민이를 위해서 계속 선물을 보내주셨고 따뜻한 마음을 끊임없이 보내주셨다.

그 즈음 사장님하고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빠리에 오시면 비서처럼 늘 동행하게 되었다. 오페라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아름다운 골프장 안의 그 분의 저택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 들었다.

사장님 역시 항상 나를 불러서 함께 있거나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하셨다. 게다가 늘 많은 선물과 사랑을 주셨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그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 때 사장님은 프랑스 고속철도 TGV를 소개시켜 연결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잘 되어 가는 단계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일이 좀 틀어져 힘들어 하던 시기였다.

나는 그렇게 사장님 곁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

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다. 아직 그때는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성격책을 읽지도 않았다. 그저 사장님이 주시는 돈으로 헌금을 열심히 내고 일요일을 지킬 뿐이었다. 예배가 끝나면 사장님께서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 맛있는 것을 사주셨고, 잘 하지 않던 영화관람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곤 하였다.

목사님과의 예기치 않은 사랑

어느새 93년 봄을 맞았다. 강 사장님은 연말연시를 한국에서 보내셨고, 일관계로 프랑스에도 자주 드나드셨다. 사장님의 사업은 다시 잘 진행되어 가는 듯 했다.

아름다운 계절의 5월 즈음에 서울에서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물으셨다. 마침 그 날 저녁에는 공연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대답하며, 내일 저녁에는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럼 내일 저녁 시간에 나를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는데 초대하겠다고 하셨다.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유럽에 오시는데, 그 목사님을 일부러 빠리로 모셔서 사장님의 사업인 TGV 건에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며 아주 중요한 저녁 초대라고 하셨다. 다음날인 5월 5일 저녁에 PRINCE LE GALLE 이라는 호텔에서 7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블로뉴 숲 속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예약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내가 옆에 있어서 즐겁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도 보람된 일이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다. 그 날은 오페라에서 공연은 없고 연습만 있어 5시 30분에 끝나는 날이었다. 어

는 때처럼 민이는 이웃의 루이 아줌마와 저녁시간을 보내게 하고, 연습이 끝난 후 곧바로 약속장소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오페라에 연습하러 갈 때부터 옷을 차려 입고 갔다. 검은 투피스 차림이었는데 친구들이 "오늘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 날씨도 좋은데, 무슨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냐"고 놀렸댔다. 나는 평소 오페라 친구들과 하고 꺾꺾거리며 농담을 잘하는 편이었다. 끝나기만 하면 급히 집으로 달려가던 내가 저녁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니 남자친구라도 만나는 것처럼 "누구냐"며 놀려댔다. 나는 별 볼일 없는 목사하고의 약속이라고 대답하고 친구들에게 기대를 갖지말라는 말을 하고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떠났다.

7시 정각에 상제리제 부근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 호텔의 살롱쪽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을때, 오늘 만나기로 한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듯 앉아 계셨다. 그리로 가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인사를 했다.

오늘 저녁 초대에 사장님께서 초대해준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하면서, 작년에 목사님이 빠리에 오셔서 설교할 때 특송을 부른 사람이라고 인사했다. 목사님은 그 때를 기억한다며 이리로 앉으라고 하셨다. 또 강 사장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항상 잘 늦는다고 하시곤 원래 여자들이 잘 늦어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며

해하면서 누구길래 전화로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솔직히 잘 설명을 해주어야 했다. 유명한 목사님이 엄마를 본 후로 사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자주 전화를 자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민이는 엄마와 자신만의 생활에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수 없는 눈치였지만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늘 외로워만 보이는 엄마에게 남자 친구가 생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오페라의 친한 친구들에게 내 생활의 변화를 일일이 전해주었다. 친구들은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내 마음 속에 다시 사랑의 싹이 움트고 있음을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나도 행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목사님은 매일같이 전화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셨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내 모습이 자꾸만 흐려진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온통 나의 생각으로 꽉 차있다고, 스위스에서 마지막 집회가 있는데, 그 곳으로 오라고 권했다. 나의 모든것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셨다.

그때 마침 민이는 한국 교회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수양회에 며칠 가 있었고, 오페라는 쉬는 날이라 그곳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가장 빨리 스위스로 가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아침 일찍 첫 TGV를 타고 주네브에 도착, 거기에서 차를 렌트하기로 했다.

갑자기 애인이 생긴 나는 입고 나설 옷들이 변변치 않았다. 다만 목사님의 애인이니 그저 검소하게 차려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있는 옷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속옷은 조금 야한 차림으로 차려 입고, 하룻밤만을 보낼 수 있는 간단한 짐을 챙겼다. 그런 다음 그 분이 머무는 큰 호텔에 방을 예약을 한 다음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기차 창 밖으로 보여지는 화사한 봄 경치가 눈부셨다. 12시경에 주네브에 도착해 차를 렌트했다. 빌린 차는 대형차였는데 몸집이 자그마한 나는 차에 매달리다시피 운전했다. 100Km 거리를 1시간 30분 정도 운전하는 동안 내 마음은 온통 설레기만 했다.

드디어 스위스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집회장소가 가까워지자 저 멀리 이베르동 마을의 푸른 하늘에 뭉게 구름이 둥실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덩달아 부푼 내마음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올랐다.

예정대로 2시경에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시간, 목사님과 선교단 일행은 마지막 집회 장소에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사장님은 30분 정도 늦게 아름다운 차림으로 나타나셨다. 우리는 사장님 차로 블로뉴 숲의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차안에서 나누는 어른들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 난 그저 입을 다물고 살포시 웃을 뿐이었다. 마로니에 숲의 향긋한 꽃들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생전 접하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어렵고 높은 분들과 그 분위기에 잠시 기가 눌렸으나 의식하지 않기로 했다. 나와는 관계없는 장소에서 관계없는 사람들 틈에 그저 잠시 와 있다는 생각이 들뿐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높고 낮은 것에 상관없이 그저 아름다운 예술 속에서 하고 싶은 노래를 하며 밥 먹고 속편히 살고 있는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떠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은 나를 아껴주시는 사장님을 위해서 그녀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내가 말할 기회가 오면 사장님은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나같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사장님의 노력과 사랑으로 처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인으로 알려진 사장님은 무척이나 목사님에게 잘 하

려고 노력했다. 그 분들은 서로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인 듯 했다. 목사님은 사장님과 10년 이상 된 아주 절친한 친구로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옆에 있는 나를 보고는 아주 귀하게 생긴 분이라고 했다. 마음이 넓고 깊으며 아름다운 분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온유하게 생긴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한번 삼아보고 싶다고 웃으면서 나를 한껏 추켜 주셨다. 순간, 사장님의 얼굴빛이 변하며 미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내 이름을 물어 보시더니 이름이 외모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시며, 내가 원하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셨다. 사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된 어려웠던 나의 인생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셨다. '구슬 옥'에 '순할 순' 자는 옥은 구슬이 되어서 아무 곳이나 굴러다니기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할 수있다고 하셨다. 귀한 외모와 달리 그동안의 인생이 힘겨웠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내 이름에 대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다.

나는 이름을 바꾸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 리스트에 내 이름도 포

함하겠다고 하셨다. 또 자기는 노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외국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외로울 때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노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도 부탁할 수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분은 나의 전화번호를 건네 받으셨다.

그러는 동안 사장님께서서는 여러 번 사진을 찍으셨고, 우리는 즐거운 식사를 마쳤다. 다시 그 분을 호텔에 모셔드리고 사장님과 나는 헤어지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사장님께서서는 그 목사님은 서울에 돌아가면 감히 만나볼 수도 없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오늘 나에게 관심을 주는것을 보니 대단히 즐거우셨던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올 때의 74년도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그 후에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유명하고 대단한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고, 그저 힘든 내 생활을 스스로 꾸려 가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다는 분에게 높이 평가받고 관심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의 밤 11시가 되었다. 아직 잠들지

않은 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잘 준비를 하기위해 목욕탕에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생각지도 못했던 목사님의 목소리였다.

좀 전에 레스토랑에서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단지 사장님이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목사의 입장에서 좀 불편해서 거리를 갖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랬는데 금방 헤어져서, 그것도 오늘 처음만난 나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에 놀라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은 잘 들어갔냐고 안부를 묻고는, 오늘 저녁에 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무척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했다. 그리곤 영어로 'I love you'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잠시 머뭇거리다가 잘 보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나도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다고 대답했다. 잊지 않고 전화를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서는 자주 전화해도 괜찮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웃으면서 얼마든지 생각나실 때 전화를 해도 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조금 이상한 예감이 들었으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나를 한번 만나보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좋게 생각해주시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다. 그저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피곤에 지쳐 잠자리에 들

었다.

이튿날 아주 이른새벽, 전화 벨소리에 잠이 깼다. 6시가 될까 말까 한 시각이었다.

목사님이셨다. 그 분은 나를 생각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하셨다. 자기가 어쩌다 빠리에 와서 나를 만나 건잡을 수 없이 나에게 빠져드는지 모르겠다며 괴롭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셨다. 밤새 기도하면서 나에게 줄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고 하면서 '혜진'과 '귀선'이란 두 이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께서 알아서 골라 달라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하셨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귀선'이라는 이름을 골랐다.

목사님은 그 이름을 종이에 직접 써서 사장님에게 전해 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곤 오늘 독일로 떠나신다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곳에서 선교단을 만나 설교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스위스로 갔다가 설교를 마치면 다시 빠리로 돌아와 프랑스 북쪽의 작은지방에서 설교를 마치고 서울로 귀국한다며 자신의 일정까지 전해 주셨다. 그리고는 오늘 공항에서, 떠나는 길에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온통 내 생각으로 꽂 차있다고 하시면서 자주 전화를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

그 후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나는 좋다, 나쁘다고 할 여유도 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이끄는 그 사랑 속으로 급속히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다.

민이 아빠가 죽은지 11년째 접어든 때였다. 다시는 어떤 사람과도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맹세했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가 남기고 간 아이들을 보살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오페라 친구들과 시시덕거리고 말장난하면서 지내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다. 사랑 따위는 더 이상 내게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생각으로는 그 분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분이 이끄는 사랑이라는 수렁속으로 생각할 여지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에 맞추어 공항으로 나갔더니 사장님을 비롯, 빠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간부 집사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사장님은 목사님이 너를 위해 이름을 지어 직접 써주셨다며 목사님이 사인이 적힌 종이를 건네 주셨다.

목사님은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나에게 사랑의 표정을

전해주셨고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속삭이셨다.

그 분이 떠나고 나는 사장님과 함께 공항에 남게 되었다. 차를 마시는데 사장님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목사님이 너를 아주 잘 보신 것 같다며 부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아련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저 분은 한국에 가면 만나기 힘든 분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다. 나는 좀 곤란하고 어색한 마음으로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지 모를 기쁨이 일고 있었다.

그 날 저녁, 목사님은 잊지 않고 전화를 주셨고 우리는 길게 대화를 이어갔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지루하지 않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져, 꼭 아주 오래 전부터 만난 사이인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벌써 목사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듯 했다. 이제는 죽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셨다. 그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걸 다 아신다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달콤하게 속삭여 주셨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는 자꾸만 꿈을 꾸는 듯 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몇 번이고 오는 전화와 긴 대화를 나누는 내모습에 익숙하지 않았던 민이는 몹시 궁금

가 있었다. 집회를 2시 반에 시작해 4시 반경에 끝날 예정이었다. 나는 예약한 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다렸다.

집회가 끝나는 시간을 계산해서 목사님 방에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부지런히 내 방으로 건너 오셨고, 나는 그 분의 품안에 안겼다. 기다렸던 만남에 우리는 너무 행복했고, 꿈같은 사랑을 나눴다.

목사님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건강 팔찌를 선물로 주시고 호텔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셨다. 저녁 시간에는 일행들과 간단히 저녁 파티에 초대받으셨다고 하면서 혼자 저녁을 먹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며 내 방을 떠났다. 목사님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나 역시 몸은 피곤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목사님은 파티에 대충 참석하고 부지런히 돌아오신 것 같았다. 그 분은 자신이 어찌다 이렇게 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몇번이나 되풀이 하셨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손 한 번 만져보고 싶어서 야단인데 나를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하게 되었으니 자신도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나도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라며, 이제부터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도 하셨다. 나는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과

분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복하니 부담갖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시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달콤한 사랑을 나눴고, 목사님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른 새벽, 목사님을 깨워 그 분의 방으로 보내고 아직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각에 조용히 그 곳을 빠져 나왔다.

쥬네브에서의 8시 기차를 타기위해 새벽길을 달렸다. 여행의 피곤에 젖어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하늘을 나는 듯 상쾌하기만 했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새벽의 호흡 속으로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다행히 제시간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했었던 지난날 나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오늘 나를 궁핍히 여겨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목사님과의 만남이 단 한번의 불장난으로 끝난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과 또다시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저 마음가는 대로 흘러가겠다고 생각했다.

거의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강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며 어

디에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특히 사장님이 모르게 하라던 목사님의 당부가 생각나 적당히 둘러댔다. 오래 전부터 사장님은 목사님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고 가까워지려고 했다고 하셨기에 사장님에겐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다.

목사님이 3시 비행기로 빠리 드골 공항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되었다. 사장님과 함께 마중 나가서 집회장소인 프랑스 북쪽 지방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갈 계획이었다. 또 다른 빠리 교회의 신도들도 할케 마중 나와 있었다. 목사님은 마중 나온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자마자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수행한 장로님과 함께 사장님이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나도 뒤쪽의 목사님 옆자리에 올랐는데, 조심스럽게 내미는 그 분의 손을 잡고 집회 장소로 향했다. 나는 그저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사흘 간의 집회 중 첫 날에는 오페라에 결근을 하고 사장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빠리로 돌아왔다. 집회가 끝나는 날 다시 목사님을 모시러 가기로 약속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는지 사장님은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나를 아끼는 마음과 시기심이 동시에 이는 듯했으나, 자존심 때문인지 나에게 직접 물어보려 하지는 않았다. 나 역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킬 뿐

이었다. 사장님은 자제하려고 몹시 노력하는 것 같았으나 시기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은 목사님을 다시 모시러 갈 때는 내가 필요없으니 혼자서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나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를 했다. 내가 떠나고 나니 허전하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셨다. 집회 마지막 날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분에게 '사장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으니 직접 전화를 하시라'고 전했다. 목사님의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하는 수 없이 함께 가자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함께 목사님을 모시러 가게 되었고, 그 때부터 사장님은 나에 대한 차가운 마음과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보려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장님과 나는 그 때부터 겉도는 사이가 되었다.

목사님을 다시 빠리에 모시고 와서 우리는 사장님의 점심식사에 초대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과 목사님은 골프를 좀 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일어섰다. 더 있다 가라고 붙잡는 사장님께 나는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나왔다. 목사님도 피곤하니

호텔에 가서 쉬겠다고 해 장로님과 목사님을 호텔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도 곧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은 서울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마음에 담고 떠나길 원하셨다. 나는 얼마후 호텔로 달려가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시간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었으나 목사님은 사장님과 이미 저녁 식사 약속이 돼 있어서 일어나야 했다.

나는 목사님을 모시고 라데팡스의 소피템 호텔까지 가서 방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 분이 사장님과의 저녁 약속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얼마 후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나와서 마지막 밤을 함께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민이 키우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민이를 수도사처럼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어놓고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잘 벗고 있고, 잘 때에도 잠옷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잔다고 했다.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제는 아이가 컸으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잠옷을 나에게 주며 이제는 이걸 입고 자라고 하시며 다음에 올 때까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했다. 또한 자

기가 사용하던 칫솔도 나에게 남기고 가겠다고 했다. 그 분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러시아(당시는 소련) 집회가 끝나는 길에 빠리에 들러 나를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면서 한 달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튿날 우리는 떨어지기 싫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다.

그 분은 모든 일정을 끝내고 서울에 도착하자 나에게게 전화를 주었다. "너를 빠리에 두고 혼자 떠나야만 되는 것이 너무 슬퍼서 울면서 돌아왔다" "내가 어쩌다가 너에게 이렇게 빠져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괴로워했다. 나는 "목사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위로해 주었다.

목사님은 매일 전화를 하셨다. 어떤 때는 하루 두 번씩 전화를 할때도 있었다.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할거라는 자기의 모든 일과를 전해주었다. 그 분은 나를 자신의 영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으니 나도 자기를 남편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온통 내 생각으로 차 있어 하루종일 멍해질 때도 있다고 했다. 비서들이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고도 하셨다. 골프를 쳐도 공이 비켜만 나가고 이제는 골프도 치기 싫고, 목히되 그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했다. 나는 그 분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고 힘을 내라고 말씀드릴수밖에 없었다.

그 분은 나에게 불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프랑스 선교를 선포했다고도 했다. 그것을 그 분이 발행하고 있는 신앙잡지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빠리에서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 또한 나에게 옛것을 전부 정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다. 건강검진을 받고, 집도 깨끗히 새롭게 단장하라고 권했다. 헌 옷도 다 버리고 새 옷으로 바꾸라고 했다. 침대도 모두 다 새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 분의 말대로, 우선 아파트를 다시 깨끗하게 단장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목사님은 가끔씩 나에게 전화를 "비목"을 불러달라고 했다. 그 분은 그 노래를 좋아하셨다. 가사가 나를 말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내가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분은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었다.

그 분은 습관적으로 매일 나를 불렀고 나는 매일 그 분의 전화를 기다렸다. 우리는 서로를 높이 인정하고, 존경해 주었으며, 믿어 주었는데 그럴수록 사랑의 마음

은 더욱 더 타올랐다.

어느 날 그 분은 사장님이 서울의 자기 사무실로 찾아와서 내 흉을 보고 갔다고 전했다. 내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가슴만 커서 그것만 내놓고 다닌다고 했단다. 시기심에 불타는 마음을 이처럼 유치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한동안 나와 우리 민이를 끔찍이도 생각해주고, 사랑한다면 잘 챙겨주셨던 분인데, 내가 목사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싫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깎아 내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사장님은 빠리에 오면 겉으로는 변함 없이 나와 민이를 만나주었다. 우리는 전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도 그저 변함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공손히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서로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목사님은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6월에 나를 보러 빠리로 올 때는 나에 대한 사랑의 약속으로 반지를 끼워주시겠다고 미리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덧 6월이 다가왔고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매일 전

화를 걸어왔다. 러시아는 위험해서 밖에 잘 돌아다닐 수 없어서 계속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만 한다고 했다. "내가 너를 떳떳하게 내놓고 사랑할 수 없는 입장에서 네가 불쌍한 마음에 많이 울었다"고 말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나마 큰사랑을 받고 있어 행복하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가 너무 많이 보고 싶으니 마지막 날에 생삐트흐부그르로 와 함께 구경을 하고 빠리로 돌아오자고 제안했다.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모두들 관광하는데 자기는 나를 생각하면서 쓸쓸히 있다고 전화를 했다. 오페라에 말도없이 2, 3일 동안이나 결근을 하고 그 멀리까지 가려고 하니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못가겠다고 했지만 그 분은 자꾸만 오기를 원하셨다. 자기가 나의 남편이니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기분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다. 그 대신 목사님께서 빠리에 오시면 오페라 카르멘을 구경시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웃으면서 전화를 끊는 그 분은 많이 고독해 보였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목사님이 빠리에 오시는 즈음에 사장님도 빠리에서 그분을 대기하고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차갑게 대하긴 했지만 나와 의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사장님께

목사님이 오시면 오페라에 초대하자고 제의했다. 사장님께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고 돈을 줄 테니 수형장로님 것까지 포함해서 4장의 입장권을 구입하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카르멘 입장권은 매진이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정명훈 지휘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목사님이 빠리를 지나는 길에 오페라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지휘자님은 자신도 목사님과 안면이 있다며 쾌히 승낙하셨다. 목사님을 모시는 표 2장은 지휘자님이 직접 사드리겠다고 하셨다.

목사님께 그 소식을 전했더니 무척 기뻐하셨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빠리의 니코 호텔에 예약되어 있으니 나도 그 호텔에 방을 예약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부푼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렸다.

목사님은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를 주셔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셨고,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한결같이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다. 시간이 갈수록 그 분의 마음속에 나를 더욱 깊이 간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넘치는 사랑에 황홀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감사와 기쁨을 마음속에 품었다. 꿈만 같아서 올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으니 성실히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셨다.

어느 날 오후, 보통 그 시간엔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도원에서 전화를 한다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 새사람이 되었으니 기도원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면서 일주일 정도 서울에 왔다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8월 20일경 자기가 빠리에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같이 오자고 하셨다. 나 역시 그렇게 하고는 싶었지만 그 분과의 사랑이 탄로 날까 봐 서로를 위해서 그냥 이 곳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겠노라고 거절했다.

그분은 몇번이고 설득하시다가 결국은 실망한 목소리로 남편 말을 안 듣는구나 하면서 포기하셨다. 목사님이 금방 오실 텐데 괜히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전했다. 나는 대신 남불의 친구 제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 쪽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다. 하지만 목사님은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고 나는 기다리겠다고 하며 통화를 마쳤다.

일주일 정도 그 곳에 머무는 동안 정말로 그 분한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내가 빠리에 돌아온 날에야 그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은 내가 미워서 일부러 전화를 안 했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실은 몇 번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방 전화였기에 연결이 잘 안되더라는 것

다. 사장님은 차를 찾으러 가셨다고 했다. 초대해주신 정명훈 지휘자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간단한 인사 편지를 남기고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사장님을 기다렸다. 그 동안 나는 목사님의 호텔 방 열쇠를 몰래 전해 받았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사장님이 예약해 놓은 빠리 장에서의 저녁식사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사장님이 같이 가자고 말은 했지만 나를 별로 붙잡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약속이 있다며 니코 호텔에 예약되어 있던 목사님의 방으로 갔다.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오셨다. 그 분은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돌아온 것 같았다. 이제 내일이면 목사님은 서울로 떠나야 했기에 그 밤이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분은 나를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 키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또 과부가 이렇게 뒤늦게 사랑을 받아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고 농담도 하셨다. 나는 그 분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분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하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만 다녀오신다고 했다. 개인 시간은 거의없이 공인으로서 늘 바쁜일정에 쫓겨다녀야 하는 것이 가여워 보였다. 어쩌면 그래서 그 분만의 비밀스런 휴식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 분은 이렇게 나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며, 한달 후인 7월말 경에 일주일 정도의 여름 휴가가 있으니 그 때 다시 만날 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다.

그 날은 호텔에서 밤을 지새지는 않았다. 민이가 집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 아침에 등교하는 것도 도와줘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 나에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분은 그런 나를 존경한다고 하며, 대단하고 훌륭한 여자라고 칭찬해 주셨다. 또 서로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인지 그 분 옆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 4시경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이튿날 오페라에서 조역을 뽑는 오디션에 응했다. 그 분과의 사랑으로 충문하고 행복했던 나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었고, 생전 처음으로 오디션에 뽑혔다. 그 분이 바꾸어 주신 새 이름 때문에 내가 더욱 빛나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매일같이 전화를 주셨다.

그 분은 선교를 하고 아들과 손녀를 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 다녀온다고 하셨다. 방학 때 일본에서 만나자고 하셨지만, 나는 그 분을 생각해서 그 쪽에는 얼씬거리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생각하더니 모나코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번에는 수행장로들과 함께 오면 불편하니 아들 내외와 함께 오겠다고 했다. 그러자고 했더니, 그곳 H호텔에 예약했다면서 나도 그 곳에 방을 예약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 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 분이 남기고 간 잠옷을 입고 일어나는 아침, 내손에 끼워준 반지, 그가 준 러시아 인형, 그 분이 지어준 나의 새 이름, 매일같이 전화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이 담긴 그분의 음성...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 그를 생각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

사랑의 힘은 역시 위대하다.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니 오페라에서의 일도 순조로웠다. 늘 하늘을 날 것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친구들, 특히 친한 인바와 프랑소와즈에게 모든 일을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다. 인바는 나를보면 "서울에서 전화왔었니" 하는 것이 인사말이었다.

생활에도 여유가 생겨 오페라에서 첫 월급을 타면서

넣었던 3백프랑의 적금을 1천5백 프랑으로 올려놓았다.

나는 7월말에 목사님을 만날 날만 기다렸따. 그런데 그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그 분은 다시 약속 장소가 바뀌었던 걸 알려주었다. 5일 동안의 짧은 휴가기간에 이곳저곳을 왔다갔다하면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직접 빠리에 와 이틀 동안 나와 함께 보내고,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음악 연수에 참석하는 사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빠리에서 마지막 하룻밤을 나와 함께 보내겠다고 하면서 브리스톨 호텔에 예약되어 있으니 그 곳으로 다시 예약하라고 말씀하셨다.

드디어 목사님이 오셨다. 이번에는 목사님의 여름 휴가이므로 느긋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 목사님은 좀 덜 피곤해 보였고 마음이 좀 더 편해 보였지만, 항상 바쁜 일정으로 일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인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동안 배운 불어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며 즐거워하셨다. 또 예약된 브리스톨 호텔 안에서 내 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오다가 복도에서 자신의 아들 만났는데 아들이 아버지 방은 이쪽인데 뭘 그리 두리번거리고 찾으시냐고 말했다고 해서 함께 웃

기도 했다.

이튿날 호텔 아침식사 때 아들 내외와 함께 오신 한 일본 장로님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목사님은 며느리가 미인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일본 미인이었다.

점심때는 목사님과 함께 집 근처의 조그마한 카페에서 간단히 점심을 했다. 식사 후에 우리는 가까운 벤센느 숲에서 가볍게 산책도 했다.

다음날 목사님은 오스트리아로 떠나셨고, 나는 이틀 후 다시 돌아오실 목사님을 기다렸다. 곧 돌아오실 거라서 전화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다시 시간을 내어 전화를 주셨다.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서 떨어져 있지만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나역시 목사님으로 인해 너무 행복하니까 내 걱정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말씀드렸다. 그의 지극한 사랑에 흠뻑 빠져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아픔을 주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자들이 능력이 있어 모두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보았다. 그를 소유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문제를 만들어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목사님은 이틀 후 어김없이 내게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다시 빠리 리츠 호텔에서 우리는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그 분은 한 달만이라도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면서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슬퍼하셨다. 이렇게 나를 외로운 그늘 아래에서만 만나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사랑해줄 수 없는 내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떠나지만 항상 마음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하라고 덧붙이셨다.

곧 헤어져야 했기에 슬펐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밤새도록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다음날 오후,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우리는 헤어졌다. 목사님은 8월 말경에 빠리를 거쳐 영국과 독일에서의 성회에 갈 때 또 들르겠다고 하며 떠났다.

나는 민이와 함께 8월 초 빠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목사님의 연인으로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례식은 도빌 옆의 바닷가에서 진행되었다. 세례식에는 남불의 친구 제니 할머니가 함께 해주었다. 제니도 나와 그분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세례를 받고 목사님께 소식을 전했더니 무척 기뻐하셨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새 사람으로 출발하고 태어났

않았는데, 이제는 그 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도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빠리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하셨다. 그런데 간밤에 컴컴한 데서 잘못 움직이다가 조금 다쳤고, 배까지 아파 좀 불편하다고 하셨다. 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공항에서 그 분을 기다리며, 내내 걱정이 되었다. 그 때는 우리 민이도 담임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나와 있었다.

목사님은 두 아이들에게 자기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고는 수행 장로들과 곧장 정해진 호텔로 가셨다. 수행 장로들은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하다고 전해주었다. 사장님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으셨지만 목사님은 그냥 그 호텔에서 쉬겠다고 거절하셨다. 그래서 수행 장로들만이 그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모임에 초대되어 있지 않았기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저녁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다행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급히 녹두죽을 끓여 목사님이 계시는 호텔로 달려갔다.

그렇게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온 반지를 나에게 끼워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나를 영의 아내로 삼고, 나도 그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나의 마지막 남자

로 죽을때까지 사랑해 달라는 기도와 천국에 갈때까지 나를 인도하며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간절하고도 눈물나는 기도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우리만의 비밀 결혼식이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둘만의 약속에 고개 숙여 응답했다.

그리고 그 분은 나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주며 외국에서 설교해서 받은 돈이니 내게 줘도 된다고 하셨다.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집안일 하는 사람도 쓰고, 새 옷도 사 입고, 음식도 사먹으라 하셨다.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내 곁에 두겠으니 좀더 생활에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다. 계속해서 나의 월급만큼의 금전적인 보탬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날은 내가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날이었다. 내 앞에 찾아온 이 꿈같은 현실 앞에서 무어라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나에게겐 과분한 행복이었는데, 더구나 하나님앞에서 죽을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감히 꿈도 꾸어볼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이튿날 목사님은 나와 함께 시간을 더 가지려고 약속도 취소하고 우리 집에서 내가 해드리는 점심을 드시기로 했다. 그 날은 특별히 민이를 점심시간에 집으로 오

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나는 부지런히 그 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쉬게 하고 점심 준비를 했다. 그 날 점심으로 프랑에서 봄에 잘 먹는 아스페르즈와 자고 고기를 준비했는데, 목사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집에는 한국 음식이 전혀 없었기에 그 분은 내가 차린 음식을 조금밖에 드시지 못했다.

점심 초대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조용히 아들과 함께 한 자리였기에 뜻 있고 즐거웠다. 그 분은 민이에게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므로 많은 도움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다. 나에게는 아이가 커서 독립하고 나면 늙어서 외롭다며 꼭 자기와 함께 할 것을 권했다.

민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나는 목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목사님은 내가 아는 최고의 남자였다. 매우 박식했고 완벽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면도 있었고 재미있었으며, 여자를 사랑해주는 매너가 최고의 수준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다. 능력 있고 멋진 남자이니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 이상 아무런 욕심이 없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을 해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또 목사님은 소련에서 나를 위해 사왔다며 웃웃 안주

머니에서 나무로 만든 소련의 목각 인형(마프료쉬까)을 꺼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을 열면 그 안에 다시 작은 인형이 나오는 소련의 전통 인형을 보면서, 이 인형처럼 자기의 마음을 열면 그 안에 내가 있고 열면 또 있다고 했다. 끊임없이 열어도 내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며 그 인형을 내게 주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실되고 아름다웠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내겐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천국과도 같았다.

목사님께서 떠나기 바로 전날, 오페라 카르멘에 초대된 저녁이었다. 사장님, 목사님 그리고 두 수행 장로님들이 오페라에서 함께 하는 날이었다. 불행히도 그 날은 오페라의 동맹파업으로 공연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명훈 지휘자님의 결정으로 무대장치 없이 그냥 음악회식으로 공연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무료로 음악회를 열어주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보니 저쪽 객석에서 감상에 빠져 있는 목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공연에서 나는 솔로로 출연할 기회가 없었는데, 합창단원으로 있는 나는 그 분께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는 것이 조금 창피하고 슬펐다.

공연이 끝나고 목사님과 수행 장로들이 수고했다고 했

이었다.

그 후 그 분은 예정대로 20일경 빠리에 왔고, 이번에는 INTER CONTINENTAL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곤 하룻밤을 지내고 영국으로 떠나셨다.

사장님은 이제 부르지 않아도 나타나는 나를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시기심에 불타서 어쩔 줄 몰라했다. 겉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좋은 관계로 체면치레를 하고 있었으나 서로 대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사장님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나와 목사님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빠리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분을 도와주려고 그 분이 만든 만두를 사주기도 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그다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라는 말도 들렸다. 그 분의 거처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힘든 그 분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 분으로부터 믿음생활과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가끔 그 권사님께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니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집으로 와서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있을때 영국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

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며 독일에서 성회가 끝나는 날 나더러 뒤셀도르프로 오라고 하셨다. 권사님이 옆에 있어서 긴 얘기는 하지 못하고 대충 그렇게 하겠다고만 대답하고 끊고는 잠시 후 동네의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목사님께는 전화를 걸어 그쪽 도착 시간을 알려드렸다.

민이가 하룻밤 정도는 혼자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떠났다.

그 곳의 니코 호텔에 도착해 목사님을 뵈었을 때 그분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또 아들과 비서가 사업 때문에 어디로 돈을 받으러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불안해 하셨다.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후, 나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빠리로 돌아왔다. 그분은 오후에 아들과 함께 빠리에 돌아오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빠리에 도착해 전화를 하겠다던 시간이 되어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빠리의 INTER CONTINENTAL 호텔이라고 하시면서 그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항에서 아들의 짐을 도난 당해 늦었다며, 피곤하고 기분도 좋지 않다고 하셨다.

이튿날에는 빠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특별집회 설교가 있었다. 나는 그때 특송을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 목사님은 앞으로의 프랑스 선교를 위해 상제리제 쪽으로 사무실을 얻었으며, 아들이 독일에 자동차를 주문했다고도 했다.

또 그 이튿날 낮에는 목사님이 얻어놓은 사무실을 보러 가신다고 하셨기에 나는 혼자서 여유롭게 호텔 주위를 산보하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다.

천천히 호텔로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예상보다 일찍 전화를 하셨다. 나와 함께 있고 싶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잠깐 사무실만 보고 일행들과 헤어져 호텔로 급히 와서 나를 찾고 있었다고 하셨다. 그리곤 급히 내 방으로 오셨다. 그 때까지 아직 점심식사도 안 하신 상태였다. 피곤하고 지친 듯 힘들어하셨다. 이번에 서울에 돌아가면 곧 올 기회가 없다면서 12월 초 헝가리 집회 때 이 곳에 들어서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다. 아마도 좋은 차를 선물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목사님은 그 때까지 잘 있으라고 하시며 이제는 만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각기 할 일들을 열심히 하자고 하셨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술을 하는 나를 좀 염려하며 남자들의 식사 초대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하셨다. 덧붙여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도 했다. 나도 목사님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했더니,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나는 많은 성도들을 위

해서 너를 버릴 수 있지"라며 무거운 대답을 하셨다.

이른 새벽, 목사님은 자신의 겔옷과 속옷 몇 가지를 주시며 이제 오랫동안 만날 수 없을 테니 자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늘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목사님이 건네준 옷가지들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그 분의 전화가 왔는데, 자기방으로 돌아가서 무섭게 아팠다고 했다. 의사를 부르려고까지 했다면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척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우리집에 잠깐 오시려고 했지만 그냥 호텔 방에서 쉬었다가 공항에서 보자고 하셨다. 그 분의 아들과 비서는 빠리에 남아 할 일이 있으니 그들을 잘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급히 약국으로 가서 피로회복제를 사 가지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목사님을 배웅하려고 모두들 나와 있었다.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두 함께 공항 VIP카페에 앉아 있었다. 목사님이 몹시 피곤해 하셨기에 긴 여행이 지칠까 봐 걱정이 되었다. 나는 비행기에서 드시라고 아까 사두었던 피로회복제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또 헤어졌다. 이제 당분간은 목사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나는 무척 힘들 것 같았다.

다음날 목사님은 서울에 잘 도착했다며 연락을 했다. 내가 드린 약 때문에 피로가 많이 풀렸다고도 말씀하셨

다. 그 때부터 날짜만 세면서 빨리 12월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시간이 못 견디게 긴 것 같았다.

목사님은 지방 또는 해외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해야 하는 등 늘 바쁜 일정에 쫓겼다. 그런 와중에도 자주 전화를 주셨지만 국제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제는 전화를 좀 줄이겠다고 하셨다.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하셨다. 변함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는 양은 냄비에서 팔팔 끓는 찌개가 아니고 뚝배기에서 지글지글 오래도록 끓는 찌개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였다. 목사님은 전화로 종종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9월 중순경에는 프랑스 미테랑 전 대통령의 방한으로 청와대 만찬에 초대되었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있으면 프랑스 대통령과 불어로 대화를 나누겠다고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홍콩에서 하는 성회로 떠난다며 거기에서 사모님과 사장님을 만난다고 하셨다.

얼마 후 목사님은 홍콩에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주셨는데, 또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는 나를 며칠 기다리게 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니, 그 분은 사모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전화할 수가 없었다며 야단치는 듯한 음성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다.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는 홍콩 시간으로 한밤중인데 전화를 하셨다. 나는 반가이 이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주셨냐고 했더니, "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를 했지"라며 짧게 대답하셨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밤중이라 그런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굉장히 괴로운 듯 그분의 목소리가 우울하게 들렸다. 우리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침묵이 싫어서 그 분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목사님은 자기도 같은 마음이어서 이렇게 전화했노라 하며 서울에 가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슬픈 아리아

10월이 되었다.

사장님이 빠리에 와서 나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내 안부를 물으면서 잘 있냐고 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 어느 날은 그 집 식당에서 일하던 집사가 우리 집에 와서 사장님이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상히 보고 끝까지 추적해서 캐내겠다고 하면서 이를 알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

그 집사는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바람둥이로 소문이 났다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들로 굳게 약속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과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다. 일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 조바심 내며 그 분의 잔화를 기다렸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의 개인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 분께 부담 드리기 싫어 연락 드리지는 않았다.

기다림이 너무 괴로워서 성경공부를 함께 하던 권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분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소식이 잠깐 끊어져서 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씀드렸다.

연락이 끊긴지 21일째 되는 날 밤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는 기쁜 마음과 걱정스런 마음으로 안부를 물었다. 그 분은 잘 있다면서 지금 일본에서 공중 전화를 하는 거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형편을 이야기하였다.

그 동안 그 분은 아주 곤경에 처해 있었다. 우리의 관계를 누가 알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사모님에게 보내 꼼작 못하고 사모님께 당하고 있다고 하셨다. 게다가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아들이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동생하고의 재판 문제로 아주 복잡하고 힘들다면서 12월 초에 만나기로 했던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셨다. 지금도 감시당하고 있어서 더 긴 말을 못하니 그런 줄 알라고 했다.

나는 그 분의 힘들어하는 말을 듣고는 그저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본에서 감시를 받으면서까지 한 장거리 전화인데 내가 무어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를 연락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드디어 12월 6일,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형가리에 도착했는데, 부목사 감시 하에서 방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며 부목사가 내려간 사이에 전화한다

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몇 명의 중요 간부 장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사모님께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 동생이 걸오온 재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사면초가 같다며 "내가 어쩌다 너와 사랑에 빠져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들 나에게 뒤늦게 주책을 부린다고 하겠지" 라고 괴로워했다. 나는 목사님께 내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그 곳의 일이나 진정시키고 잘 처리하시라고 전했다.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지" 하시길래,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고 이 곳으로 오라고 하자, 그 그분은 웃으면서 사정이 이러니 그리 알고 다시 연락할 수 있을 때 연락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언젠가는 올 것이 온 것이다. 이제 막연한 상태에서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분의 부인이 비서도 교체하고 전화번호도 모두 바꾸었다고 했다. 목사님이 9월에 떠날 때 어떻게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면서 이를 악물고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기약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그 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에 나의 가슴은 무너질듯 아파왔다.

그 무렵, 빠리 한인교회의 분위기는 아주 이상했다. 권사님은 핍박이 더 심해져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이유는 권사님이 서울에서 빚을 지면서 물건을 해 가지고 사업차 여기로 오게 되어 있는데 세관 문제로 물건을 들이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했고, 들인 돈을 찾을 수 없으니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다. 살 길이 막막한 상태였다.

젊은 나이가 아니니 언어에도 불편이 많았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만두라도 만들어 팔아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힘들어하는 유학생들과 기도도 하고, 여유있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인교회의 목사님은 이를 아주 싫어했다. 특히 서울 본부에서 사모님의 친구들이 이 권사님에게 돈을 떼었다고 신고해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권사님을 거의 교회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다고 한다.

권사님은 무척 힘들어했다. 나는 힘들어하는 권사님을 교회에서 배척하려는 것에 절대 반대였다. 이는 힘들어다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사장님의 구녀세 영향으로 본 교회의 사모님께 찍혀 있는 처지였다. 권사님과 나는 서러운 마음으로 편하게 마음 붙일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야 했다.

그 때가 아마 12월 20일 경,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때였나 보다. 한국 사회가 싫어서 떠나왔었는데 먼 타국에서 또 다시 한인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관계로 얽혀지는 것이 슬펐다. 프랑스 교회를 찾아 그곳에서 불어 찬송과 불어기도 등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블로뉴에 있는 프랑스 침례교회로 가 보았다. 권사님이 불어를 전혀 몰라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성일을 지키고 예배시간 동안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 우리는 한인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웃어도 보았다.

다행히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마음 편히 한쪽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프랑스 교회를 정하기 위해 순회하기로 생각하고 처음으로 찾아갔던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었을 때였다. 서울의 목사님의 이름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 분이 쓰신 책에서 기도 코스를 골라 프린트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 교회가 나의 그분,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냥 그 교회에 다닐것을 결심했다. 권사님도 여러 면세엿 아주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면서 의지하고 있었기에 좋다고 하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에 민이와 함께 집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놓고 TV를 보고 있었다. 속으로는 목사님이 너무나 보고싶어 끙끙 앓고 있었다. 거의 밤 11시가 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목사님의 전화였다. 나는 반갑기도 하고,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의목소리는 아주 공식적이었는데, 급하게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인사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하면서 툭 끊어 버렸다. 나는 뛰는 마음으로 민이를 불러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주셨단다" 하면서 기뻐했다.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그 후로도 혹시나 하면서 매일 시시각각으로 나는 전화통에 매달려 그 분에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신경이 전화에만 가 있었다. 몇 달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습관이 있었기에 내 귓전에는 항상 전화벨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1월이 다 가도록 기다리는 전화

는 오지 않았다. 너무 힘이 들었지만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만 아픔을 삭이면서 이겨내야만 했다. 늘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아 평강을 찾기 위해 권사님에게 성경공부를 하자고 했다.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붙들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저 주변일들이 수습되고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당분간 소식을 끊으신 것이라 자위했다.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던 94년 1월의 어느 날, 권사님은 우연히 자기의 꿈 이야기를 나에게 해 주었다. 간밤의 꿈에 서울의 큰 목사님이 넘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잡아 일으켜주지 않아서 자기가 도와주었다는 것이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때까지 목사님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있는 것을 권사님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꿈 이야기가 너무도 이상해서 나는 권사님께 그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매일 고민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이란 말과 함께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고백했다. 권사님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면서 곤란해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 후로 권사님은 종종 잘못된 만남이니 그 분과의 관계를 그대로 정리하고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사랑은 시작되었고, 나는 그 분을 가슴 깊이 사랑

하고 있었다. 이렇게는 헤어질 수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분을 보고싶은 마음과 기다림은 간절해져만 갔다.

가끔 간접적으로 목사님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2월에는 사장님이 빠리 교회의 목사님께 부탁해 오스트리아의 성회에 가신 목사님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오직 그 분만을 믿으려고 노력했으며, 그 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그 분은 꼭 나에게 연락하실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다.

가끔 그 분의 이야기가 내가 나가고 있던 프랑스 교회의 광고에 나오기도 했다. 돌아오는 95년의 오순절에 빠리 근교에서 그분을 모시고 큰 성회를 계획하는 광고였는데, 프랑스 선교를 위해 또한 그 분과 그 행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목사님이 하루에 7시간씩 불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광고를 들을 때마다 나는 즐거웠고 그 분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 성회를 위해 목사님께서 더욱 조심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목사님을 믿었고, 기다리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 무렵, 내가 소속된 프랑스 오페라단의 서울 공연이 확정되었다. 정명훈 씨의 성공적인 음악감독 활동에 힘

입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초청강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목사님을 잠시라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광고를 통해 목사님의 성회 계획을 내가 알고 있듯이 그 분도 광고에서 4월에 예정된 빠리 오페라단의 서울 공연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안되더라도 그 분 역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럭저럭 시간은 흘러 4월이 되었다. 공연을 하러 서울로 들어가면 목사님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냥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4월 중순이 되어 빠리 오페라단은 서울로 갔다. 마침 부활절 방학이었기 때문에 아들 민이도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우리 오페라 단원들은 서울 노보텔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지 내내 생각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호텔에 있다고 알려줄까 고민이 되었다. 식구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겉으로는 반가웠지만 속으로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 분을 만날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첫날에는 너무 생각에 잠겨 괴로운 나머지 잠을 거의 잘수가 없었다. 이튿날 오후에 언니가 호텔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때 전화벨이 울렸다. 목사님 비서실이라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사님이

나에게 꽃다발을 보내라고 해서 확인 전화를 하는 거라고 했다. 뜻밖의 일에 너무 놀라면서 목사님과 통화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안 계시다며 공연에 초대를 받으셨지만 참석하지 못 한다고, 공연에는 사모님만 참석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어쨌든 나를 잊지 않고 꽃다발을 보내주신 목사님 생각에 너무도 감격하고 떨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끊었다.

몇 시간 후, 어떤 남자가 내 방으로 장미꽃 바구니와 과일바구니를 들고 왔다. 목사님의 이름으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있는 리본 달린 바구니 두 개였다.

옆에서 보고 있던 언니는 내가 어떻게 그 분에게 이렇게 큰 대접을 받는지 궁금해하며 무척 영광이라고 하였다. 영문을 모르고 놀라는 언니에게 외국에 있으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언니는 저 목사님을 꿈 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부러워했다. 밤잠을 못 이루면서 애태워 찾고 있던 그 분의 소식에 위로가 되는 한편, 더욱 애절하게 그 분이 그리워졌다.

잠시 뒤에 나는 목사님의 아들 비서에서 전화를 했다. 여름에 그들이 빠리에 왔을 때 인사를 받아 안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그 아들이 아침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다음날, 신라호텔에서 목사님 아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설사 그가 짐작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드러내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신 그의 이혼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해 주었다. 그는 5월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노르웨이 집회에 갈 것이라고 했다. 그 때 자기가 빠리에 잠깐 들릴 예정인데, 나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교회와 기도원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여름에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과 기도원을 보여주고 싶다고 서울에 들어오라고 몇 번이고 전화로 말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와 그 분의 관계를 눈치챌까 봐 무서워서 거절했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아들은 그저 "아직 구경 안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구경시켜 주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와 헤어졌는데, 그는 나에게 용돈이나 하라며 돈을 조금 건네주었다. 다시 빠리에 가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맞이한 첫 일요일, 나는 오페라 단원 몇 명과 민이를 데리고 목사님 교회의 11시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동생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로 안내했다.

벚꽃 잎이 눈오듯 날리는 따뜻한 봄날에 교회를 찾아

들어서려고 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으니 외국인 좌석으로 가라고 누가 귀뜸을 해주었기에 거기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애기를 들은 바대로 그 곳은 엄청나게 큰 교회였다. 위층의 외국인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밑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개미떼 같았다. 멀리 보이는 교단에 목사인 듯한 분들이 여럿 보였다. 그들중에 나의 그 분이 계시는지 눈을 씻고 찾았으나 아직 보이지 않았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대형 스크린으로 목사님의 외국 집회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 분이 엄청난 업적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나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동안 11시 정각이 되고, 위에서 승강기가 내려왔다. 문이 열리자 목사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꼭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목사님은 마치 신도들의 신, 즉 우상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의 엄숙한 예배 모습과 프랑스 교회의 자유스런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되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엄숙한 예배의 모습은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을 받드는 듯한 경직된 분위기였다. 모두들 엄숙한 가운데 동시에 크게 외치고 부

르는 모습이었다.

조용하게 그 분의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목사님을 외쳐 부르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목사님 왜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노래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한 순간 스쳐가기도 했다.

저멀리 보이는 강단 앞쪽으로 사장님과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 분들은 늦게 들어오지만 언제나 앞쪽 자리로 정해져 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났다.

한 시간 동안의 예배 시간 내내 나는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단 위에 있었던 승강기 문이 열렸고, 목사님은 나타날 때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듯이 또다시 사라져 버렸다. 뭔가 허탈하고 허무했다.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동생의 차에 타고 교회를 빠져나오면서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전세 버스를 타면서까지 목사님의 예배를 듣고자 왔던 큰 예배였다. 큰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오직 그것만이 만족이고 자랑인 반면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울무가 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제이 르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그 분은 알고 계시는지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분명 어딘가에 뜻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과 바벨탑을 보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곳에는 그 분이 간음을 한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고, 그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면서 돌아왔다.

열흘을 머무르는 동안 결국 그 고사님을 만나기는커녕, 통화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빠리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몹시도 애를 태우면서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 내 이런 사정을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목사님이 나를 찾지 않으면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곳은 마치 단단하게 닫혀있는 여리고성과도 같았다.

그 분이 보내주신 꽃바구니와 과일바구니는 이미 시들어 버렸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빠리로 싸들고 돌아왔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 바구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절망에 빠져 빠리로 돌아온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좋아하던 오페라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해야될 일이었다. 우리 민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내 생활에서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페라 가는 일

과 아이 돌보는 일은 엄격하게 실천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끼고 자던 성경책을 들고 권사님이 골라준 말씀을 한 시간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작정했다. 오페라 일이 끝나고 늦게 집에 돌아와 아무리 피곤해도 2시간 동안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잠을 자기로 작정을 했다. 주로 조그만한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 15분 정도는 앉아 있기도 힘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나 그걸 참아내고 20~30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편안해져 왔다.

그리고 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를 찾게되어 쉽게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했다. 덕분에 고통 속에서도 약 하나 먹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점점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게 되었다.

이제껏 기다리며 참고 살아왔던 나날이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싫어졌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마음을 정리하고 평화를 찾고 싶었으나,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면 다음해에 계획 중인 빠리 근교의 집회 때까지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분과 함께 약속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기에 그 약속을 끝내 지키고 싶었다.

5월이 되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목사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빠리에 오면 연락을 한다더니 정말로 연락이 왔다. 그는 여자와 친구와 함께 있었다. 그때 목사님은 노르웨이에서 집회를 갖고 계셨다. 전화를 하고 싶어 그의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마음을 느꼈는지 아버지줄 목회자로만 생각하라는 뜻을 은근슬쩍 내비쳤다. 그런 후, 별로 속 시원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헤어졌다.

그 무렵에는 목사님 문제 말고도 슬픈 일이 많았다.

5월 말경에는 나와 민이를 자식같이 챙겨주시던 모니고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렇게도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던 할머니였는데, 나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또한 늘 내게 도움을 주던 문화국장님도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셨다. 한동안 그 분이 병환으로 움직이지 못하셔서 영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소식이 끊겨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그의 비서가 엽서로 그분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보내면서 그 분께 연락을 하라고 했다. 조

심스럽게 전화를 했더니 그의 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친절하고 목소리로 자기 남편을 보러 집으로 오라고 초대해 주었다. 그래서 문화국장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직접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기도 했다. 너무도 겸손하고 인간적이며 오직 예술과 책으로만 살아온 그 집안의 분위기에 다시 한 번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국장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던 모습과 그 부인에게 따뜻하고 귀한 대접을 받았던 그 점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후부터 가끔 그 댁으로 병문안을 가게 되어 그 부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인 7월 14일, 문화국장님의 따님에게서 국장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너무나 슬펐다. 국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부인은 나를 자기 남편의 친구였다고 존경해주면서 남편을 대신해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나와 아들 민이를 좀더 알고 싶다면서 자주 초대해주었다. 프랑스의 국보같이 존경받는, 인격 높은 그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 문화국장님이 돌아가셔서 슬펐지만 계속해서 그분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

엊친 데 덮친 격으로 9월에 들어서자 또 다른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페라의 지휘자 정명훈 씨가 정치

변화의 영향으로 빠리 오페라를 떠나야 했다. 위대하고 완벽한 실력과 예술을 추구하는 음악의 신동 같은 그 분과 음악을 함께 하는 5년 동안 너무도 행복했는데, 그 분이 떠나야 한다니 한없이 슬퍼졌다.

한동안 그 일로 오페라의 분위기는 아주 어수선했다. 정치적인 힘과 권력 때문에 그가 쌓아놓은 모든것을 짓밟는 현실이 몹시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나와 연락을 끊었던 강 사장님이 서울에서 전화를 하기도 했다. 내가 교회를 떠났기에 무척 미운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민이가 생각 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빠리에 가면 만나자고 했다. 나는 태연한 척하며 예전처럼 그녀의 대화에 겸손히 응했다. 어떤 속셈이 있어서 연락한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무관심한 척,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목사님과 연락이 끊긴 후로 나는 목사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었다. 대강 이 신문을 통해 그 분의 공식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 해 늦가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 분의 둘째 아들이 빠리에 와 있는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장님이 맡아서 고급스럽고 호화롭게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목사님과 통화가 되고 있었

을 때 둘째 아들을 빠리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며느리 감을 찾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 나의 도움 없이도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마음을 업애려고 노력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에 의지하면서 힘든 나날을 이겨내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인지 늘 좋은 꿈을 꾸었다. 권사님께 꿈 이야기를 하면 권사님은 성령의 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령의 꿈을 꿀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과 희망이 생겨났고 기분이 좋아지곤 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 성령이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어느 날은 기도를 끝나치고 아주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오려는 순간, 무엇인가 누워있는 내위를 살짝 스치면서 내 팔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비켜 눕는 듯한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또 한번은 막 잠에서 깨 눈을 뜨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멍해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방언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듯했다. 정신을 차려서 무슨 소리인가 들으려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단지 경상도 억양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같은 것으로 한 1분 동안 계속되다가 끝

어졌는데, 너무 신기해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하다.

또 언제인가는 애뜻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내 방에 앉아서 창문 밖에 새벽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잠시 눈을 떴는데 달빛이 살포시 비치는 하늘에 구름사이로 이상한 빛이 지나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불빛이겠지 생각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절대로 비행기의 빛은 아닌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거의 같은 시간에 새벽하늘을 주시했지만 또다시 볼 수는 없었다.

이 모두가 무엇이랴 정확히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느낌으로, 소리로, 빛으로 성령이 찾아와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힘든 마음을 이겨나가고 있었다.

또 시간은 흘러 95년이 되었다. 프랑스 교회에서는 6월의 오순절에 계획한 목사님의 성회에 대해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는 등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께서 빠리로 오시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고 생각했다. 우리 블로뉴 교회에서는 그 집회의 첫날 시작하는 찬양을 맡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집사님이 그 날 나더러 특송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친하고 있었다. 기다리던 그 분을 앞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망설였으나 끝내 승낙 하였다.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셔서 잠을 잘 못자도 앓아 눕지 않게 지켜주셨고, 진정제 한 알 먹지 않은 채로 견뎌낼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날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까지 내려 주셨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프랑스에서의 첫 집회는 대성황이었다. 나는 단 1분도 잠을 못 잔 상태로 무사히 특송을 부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한국 찬송가를 불어로 번역하여 불렀다. 첫날의 집회 첫 시작에 강단에서 그 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서인지 사장님은 집안에 상을 당해 그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공인으로서 대중 앞에 있기 때문인지 목사님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예전에 멀리서 보내주던 사랑의 시선과 그 표정은 찾을 수 없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 분은 몹시도 놀라는 눈치였다. 그 날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았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슬픔과 피곤에 지쳐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처량한 모습으로 민이와 마주 앉아서 그 분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늦도록 궁리해보았다. 지칠 대로 지쳐 슬퍼하는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민이는 걱정스러워했다. 민이는 아직 어렸고 한국말을 잘 못하니 엄마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궁리를 했지만 뵈족한 수가 없어 지친 상태로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은 오순절의 일요일이었다. 평상시처럼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잠깐 동안 기도를 하고 있을때, 불현듯 글을 써서 괴로운 내 심정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때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느낌이 잠깐 스쳐지나갔다.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의 빛이 느껴졌다.

그 날 아침에는 블로뉴 교회에 가서 어제 성회에서 특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조용히 감사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인 교회의 한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에 전화를 한 적이 없던 그 집사는 내게 점심을 초대하고 싶으니 오늘 블로뉴 교회에서의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다.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내가 자주 찾아가 준 것이 고마워서 초대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랠 겸 그렇게 하기로 교회가 끝나자마자 한인 교회로 갔다.

그 곳은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본 그 곳 목사님은 어제 특송을 잘 불렀다면서 우리 교회에 왔으니 특송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했

다. 나는 앞으로 나가서 잠을 너무 못자고 피곤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인사를 한 후, 내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를 잘 아는 권사 한 분이 손을 잡으며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 분이 오늘 오후 5시경에 큰 목사님과 저녁 약속이 있는데 나도 같이 가자고 했다.

목사님이 나를 예뻐해 준 것을 알고 있던 그 권사는 목사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거라고 했다. 어젯밤에 고민하던 문제가 저절로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부근 호텔은 집회장소 옆에 있는데 수행원들의 감시가 심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식당 문이 닫혀서 빠리 한인교회에서 저녁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면서 밥통 하나 들고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쾌히 승낙하였다.

호텔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수행원이 나를 알아보고 어제 특송했던, 오페라에 있는 분이냐고 물었다. 그 때 내 느낌에, 그들은 벌써 7가 나를 그 첫날 집회에서 특송을 하게 했는지 연결을 짓고 신경을 곤두세워 이유를 다 알아보았던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블로뉴 교회에서 추진한 일임을 알고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감시가 심했지만 나는 태연하려고 노력했다.

목사님 방 건너편 방에서 목사님의 저녁을 차리고 있

을 때였다. 목사님이 무심코 그 방으로 들어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놀라서 황급히 그 방을 떠났다. 나는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 하고 밥상을 차려서 목사님 방으로 건너갔다.

수행 장로와 빠리에 있는 아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려고 태연한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하고 불렀다. 목사님도 태연한 척, 그러나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을 하셨다. "저의 아들이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했다. "어, 그래" 하시면서 한 번 고개를 들더니 금방 고개를 숙이셨다. 목사님은 밥상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너무도 어색하고 무거웠기에 잠시 후 그 방을 나와버렸다.

마음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 동안 생각해오던 이야기를 사정없이 꺼내고 싶었지만, 금방 있을 집회에 방해할 수가 없어서 참고 자리를 피한 것이다. 너무도 놀라 불편해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꼭 우리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오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쨌든 집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전화로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지 생각했다. 사실 그건 나의 바램이었다. "너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내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

키지 못하겠으니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거라" 하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었다. 또 그래야만 그 분과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캄캄한 기다림 속에서 무한정 올 수는 없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아주 진저리가 났고 견딜 수 없었다.

언젠가 권사님이 서울에 들어갔을 때 교회의 친구 전도사가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다. 목사님께서 빨리 오페라에 있는 가수와 연민의 관계에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걸 알고 펄쩍 뛰면서 이혼까지 말미 났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수가 서울로 공연을 왔을 때 꽃다발을 보내주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목사님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용히 참고 있으라고 위로해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잘 참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그 분과 꼭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월요일 오순절의 공휴일이었다. 나는 오전의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집회가 끝나면 아무리 경비가 심해도 그 분을 만나볼 요량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내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함께 온 여자 수행집사들이었고 감시원인 듯했다. 짐작컨대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을 걸어왔다. 나는 태연한 척하면서 친절히 응해주었다. 나를 보고 빠리에 들어가려면 이 곳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원하면 내 차로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그들은 좋다고 하며 따라나섰다. 그들에게서 목사님이 이틀 후에 이 곳을 떠난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 집회가 끝나면 프랑스 목사님들의 간단한 점심 만찬에 초청 받았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목사님은 사람들과 이별의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여자 수행집사들에게 나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였더니 자꾸 나를 막으면서 자기들과 함께 호텔로 가면 그때 볼 수 있다며 호텔로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파티에도 같이 가자고 했다.

일단 그 사람들을 따라서 호텔로 가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파티에 가려고 내려오다가 나와 마주쳤다. 옆에는 꼭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었다. 그 분은 내 손에 악수를 하면서 "승리하세요" 하면서 곧장 지나쳐 갔다.

나와 민이는 물끄러미 그 분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민이가 그 분이 차 안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옆을 가리키면서 네 엄마가 훌륭하다는 듯한 사인을

주고 떠났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도 곧 여자 수행 집사들과 함께 파티 장소에 갔다. 가는 곳마다 내가 보여서인지 목사님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계속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 분과 얘기를 나누지 못한 채 그 곳에서 빠져나왔고, 지칠대로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생각을 거듭해봐도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조용히 참고 기다린 것이 몹시 분하게 느껴졌다.

목사님은 마지막 통화에서 자기가 지금 곤란한 처지이니 다시 연락 할 수 있을 때 연락하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분이 다시 연락할 때까지 괴로움을 곱씹으면서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 기다림의 대가로 그의 냉정한 태도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억울했다. 잠도 못자고 밤새도록 울면서 생각을 하고 또 해보았다. 이제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서울에 들어가기시기 전에 내가 나서서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침 일찍 호텔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목사님" 하고 불렀는데, 목사님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혔고 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

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은지 5분도 채 안되어서 나와 함께 만나기로 했던 집사가 오늘 점심 약속을 취소하자고 전화를 걸어왔다.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미칠 것 같이 혈압이 올랐다. 이제껏 아픔을 참고 기다려온 나를 왜 피하고 무시하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너무도 괴로워서,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프랑스 교회의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목사님은 놀라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 서울의 큰 목사님과 의 문제를 모두 털어놓았다.

목사님 부부는 이야기를 다 듣자 매우 놀라며, 목사님도 사람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생각해보자고 했고, 나를 꼭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나는 그 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목사님은 나와 의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유명한 목사였다. 용기 있게 정열적으로 시작한 분이라면 적어도 자

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했다. 만약 책임을 질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일을 잘 처리해야만 했다. 그런 분이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비겁한 태도였다.

그 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사랑해 달라고 했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기에 나는 그의 말대로 기다린 것 뿐인데, 사랑하는 그 분을 애타며 기다려왔을 뿐인 내게 이같은 행동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였다. 절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끝을 냈다면 끝이 났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꼭 알고 싶었다. 목사님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너무도 정직하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신실한 분이었기에 누가 뭐 하든 나는 그 분을 믿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이 보여준 그 태도는 나에게 실망과 불신의 마음을 증폭시켰다.

그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사랑과 애증이 함께 교차하기 시작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다. 나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에 후회를 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야 했다. 그러다가도 그가 분명히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고,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바뀌면 다시

기쁨과 용기가 생기면서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헤매고 있음이 분명했다. 교회고 예수님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자주 생겼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하루에 계획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였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오페라에서의 일도 철저히 하려고 했다. 또한 민이에게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온통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잠도 잘 못 자고 울고 지쳐서 다음날에는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이 되면 눈을 비비고 일어났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솟구쳤다. 화장을 하고 나르면 아름다워졌고, 오페라에 가서 노래를 하면 힘껏 노래가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느낄때마다 다른 희망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나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단 하루도 아파서 누워있

지 않았다. 괴로운 마음도 사라져 가고 있었다. 또 주위의 사람들과 오페라단 친구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픈 내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으나 속으로는 항상 울고 있었고, 눈물이 마른 줄 알았지만 눈을 조금만 감아도 눈물이 주룩주룩 계속 흘러내렸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 분이 나쁜 사람이니 잊어리리라고 했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 반드시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해야만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고 있었다. 아직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유롭지 못했고, 그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조용히 찾아보았다. 그러나 우선은 서로 만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했는데 그것이 막혀 있어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다.

처음에 내가 원했던 것은 그 분을 만나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기다리게 했느냐고 따져 물어보는 것이었다. 또한 당신이 쌓아놓은 울무 속에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다. 왜 나를 이렇게 울리면서 고통을 주는지, 그런 일 하나 용기를 내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으

로서 대하고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 보고 싶었다.

어느 날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계통의 목사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분은 이야기를 듣고는 전적으로 나를 믿는 다며 이 문제가 꼭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목사님도 너무 큰 목사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어려워, 자기 계열의 큰 목사님이 유럽에 나왔을 때 특별히 부탁을 드렸다. 그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한 2개월이 지난 후 빠리 목사님이 서울의 큰 목사님에게 나의 처지와 바램을 전하는 연락이 들어갔으며, 몇 번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화를 주셨다. 또한 빠리 목사님에게 서울로 들어오라고도 했다는데, 빠리 목사님은 자신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단다. 내게는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니 좀 기다려 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가 빠리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물어보았다. 그 후 아무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음 8월에 서울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보자고 해서 나는 또 기다려야 했다.

처음에는 그럴수가 없다고 흥분하면서 이 일을 꼭 처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던 빠리의 목사님은 날이 갈

수룩 점점 시큰둥해하는 눈치였다.

결국 8월,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못해서 나를 만나주었다. 처음 내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꼭 서울의 큰 목사님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떠났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서울에 다녀와서도 내가 전화할 때까지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에야 그 경과를 이렇게 전해주었다.

우선 그 분들의 주위에서는 나를 미친 여자가 헛소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고 한다. 큰 목사님과 직접 대면을 하자, 그 분이 나와의 관계를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시인하지 않으니 자기가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냥 만나고만 왔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의 측근들에게는 내 실정을 정확히 이야기해 놓았다고는 하셨다.

그러면서 자신도 목사인지라 같은 목회자로서 자기 입장도 곤란하다며, 나를 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듯했다. 나는 아픈 마음을 또다시 곱씹으며 분노의 마음이 극도로 치솟았다.

그렇다면 그 분은 왜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면담을 허락해 주지않고 피하고 있는 것일까? 한 성도가 아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며 목사로서 왜 피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치고 시간을 끌어 제풀에 꺾여 버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어느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그들 모두들에게 묻고 싶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권력과 돈에 밀착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기치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며 사는지.... 그렇기에 사회가 점점 썩어가며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새로운 죄를 낳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또 영생을 믿는 자들이여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그 죄들을 그만 멈추고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싶었다.

특히 부패해가고 있는 한국 교회들, 해외로 돌아다니면서선교를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여! 우선 자기들의 앞가림이나 잘 하고 남의 눈의 티를 캐내고자 들기 전에 자기 눈의 티를 먼저 없애라고 외치고 싶었다.

나는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혼자서 몇 개의 시내의 돌을 집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처럼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시작

그 해 가을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가 온다고 한국 교민들은 그 집회에 가자고 했다. 그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다.

그 때 나는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서울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아무나 붙들고 나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싶었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장소는 피하고 싶었다. 그래도 아직도 그 분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누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내 바램은 조용히 목사님과 한 번 만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기에 내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지만 끝내 그 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모구들 집회에 다녀와 좋다고 해서 결국은 나도 마지막 날에 그 곳에 참석해 보았다. 그러나 온통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없었다.

집회가 끝나고 교회 옆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지나가기에 인사를 했다. 나를 보고 한국사람이냐고 묻더니 아주 인상이 좋다며 마리아를 닮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나갔다.

나는 내 모습이 마귀로 변해있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마음이 그토록 괴로우면 그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마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다.

지난날 문화국장님 추도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당에 갔을 때도 어느 한국 신부님이 나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며, 아마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 집회가 끝나고 모두들 그 분에게 안수를 받았다고 들 했다. 나는 포기하고 집에 왔지만 갑자기 다시 그 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 분의 거처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그러던 중 마침 한 권사님이 지금 막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나가 호텔로 갔으니 내가 원하면 같이 그 목사에게 가줄 수 있다고 해 부지런히 차를 몰고 그 권사님을 태우고 그 분이 계시는 호텔로 찾아갔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에는 다른 분들도 기도를 받고 있었다. 나도 내 차례를 기다려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면서 그 분이 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은 자꾸만 아

나라고 하셨다. 누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의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그 분은 외국말을 잘하며 가방을 가지고 자주 외국을 돌아다니는 분인데 그 분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시끄럽다고 했고 예수님 잘 믿고 조용히 3년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것보다 나는 유명한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했다. 아들에게는 예술을 시키지 말고 이과계통으로 진출시키라고도 했다.

마치 점쟁이처럼 집어내는 그 분의 말씀이 신기하게 들렸다. 내가 유명한 선생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좋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끄럽고 말이 많다고 하니 꼭 들어맞는 말이었던 것이다. 3년을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는 말에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 분 말씀대로 3년을 다시 조용히 참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나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블로뉴 교회에 나가면서 착실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들 민이는 목사님과의 관계로 괴로워하는 것을 앞에서 봐왔기에 교회에 가기를 싫어했다.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

며 민이를 설득했지만 그로 인해 민이와 나 사이에는 자주 불화가 생겼다.

한편, 권사님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 덕분에 점점 그의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고, 그는 차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은 우연히 빠리 남쪽 근교의 허름한 집을 쉽게 얻어서 손수 고치고 다듬었다. 지하실로 고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으로 꾸몄다. 어려웠던 체류중 문제도 블로뉴 교회에서 도와주어 해결이 되고, 서울을 다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인교회를 떠나기 직전, 나는 사장님에게 권사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좀 도와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사장님이 딱 잘라 거절을 했고 내게도 "너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으로라도 권사님을 도와주려 했고 그와 함께하기로 작정했다.

그 때는 빠리 한인교회들 사이에서도 권사님 집을 드나드는 것을 꺼려했었다. 그러나 나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좀 더 권사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다.

권사님의 집을 찬양과 노래로 아름답게 채우려고 노력했으며, 가끔은 오페라 친구들을 초대해 노래하기도 했다. 내가 쉰 살이 되던 날에는 50여명의 친구들이 권사

님의 집에 모여 찬양과 노래로 축하 해주기도 했다. 또한 음악 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여러 번 열어서 그들에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권사님의 집은 오가는 발길들이 늘어가는 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점점 윤택해지고 있었다.

이렇듯 권사님의 집에서의 사랑의 모임 덕분에 목사님이 주신 사랑의 고통을 조금씩 잊어가도 있었지만, 당시 나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혼자의 월급으로는 여유있게 살기가 아주 힘들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혼자의 월급으로는 여유있게 살기가 아주 힘들었다. 아들이아가 성장하면서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서울의 목사님이 가끔 용돈을 줄 때는 적금을 늘이기도 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었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보니 생활도 덩달아 어려워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다. 차를 없애든지, 민이의 사립 학교를 중단하든지, 적금을 중단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십일조를 중단해야 했다. 고민 끝에 우선 적금을 해약하고, 민이의 고등학교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니고 아줌마가 우연히 이런 사정을 알고 아이 학교

는 그대로 보내라면서 자기가 매달 장학금 형식으로 학비를 대겠다고 하셨다.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민이의 학교 문제를 해결했다.

적금을 해약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금방 써버릴 것 같아서 걱정하던 중, 기도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 용자를 얻어 아파트를 사기로 한 것이다. 세를 놓아서 용자한 빚을 계속 갚아나가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

마침 바스티유 오페라와 리옹 역 근처의 허술하고 조그마한 아파트가 나와 적당한 가격에 매입했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주위 환경은 더없이 좋았다. 바스티유의 철도 길은 아름답게 공원으로 만들어 산책길로 조성을 했으며, 철도가 놓여 있는 다리 아래는 아뜰리에로 만들어 각종 수공예품 전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변 환경이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웠으므로 나는 새로 산 아파트에 정이 많이 갔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조그맣지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 즈음 나는 외면당한 사랑으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다.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남자 때문에 속 태우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내가 너무나 한심했다. 제대로 사람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크나큰 값을 치르면서 울고 지내는 내 모습을 떨치고 일어서야만 했다.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런 꼴로 지내야만 하나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졌다.

나도 하나님께 축복 받고 태어난 귀한 생명임에 분명하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특별히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아야하는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무데도 그 가치가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단단히 쌓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어느덧 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성경의 출애굽기의 4장에서 “이제 가라. 네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말을 가르치리라”하는 성경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갑자기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내 이름처럼 귀하게 불러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는 나는 그 동

안 기도할 때 부르던 찬송가들을 모아 찬양 음반을 냈다. 불면증으로 항상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데다 오페라에서의 일로 몸은 늘 피곤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웠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음반을 준비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그래도 그 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로 인해서 나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을 체험했다. 언제나 많은 무제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때 부터는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서 노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그 후로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발성법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눈과 귀를 다시금 트이게 도와주셨다. 어려운 때에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를 보게 하였으며, 내 귀도 점점 발전하게 되어 조금씩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았다.

한편 프랑스 교회 목사님 부부는 나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도움을 주셨다. 직접 서울의 목사님께 편지를 몇 번 보내기도 했다. 생활의 안정은 찾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나를 저버릴 수 없던 그 노부부는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한 목사

님을 찾아가 보도록 권고했다. 그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또 서울의 큰 목사님과도 자주 왕래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2000년 봄 부활절 휴가 때에 그 분을 찾아 스위스로 가게 되었다. 스위스 목사님은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나를 마중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두 시간 동안 역 부근의 카페에서 그 분을 기다려야 했다.

우연인지 그곳은 93년 목사님의 성회가 있을 때 사랑했던 그 분에게로 달려와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던 곳이었다. 그 때는 부분 마음으로 달려와 최고의 호텔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 스위스 목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행복했던 그 때를 잠시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처량하고 초라한 내 모습은 슬픔과 비참함, 그 뿐이었다.

얼마 후 스위스 목사님을 만나 그 곳에서 3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는 동안 하고 밤 12시가 다 되도록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사정 이야기를 울면서 호소했다.

스위스 목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를 위로해주셨고 도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에서 쉬는 것은 내가 불편할 것 같다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의 Manoir에 방을 예약하고 그 곳까지 안내

해 주는 등 세심하게 챙겨 주셨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조용한 밤이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예약된 방은 아름답고 분위기가 아늑했다. 옛날 그 분과 만나서 지냈던 큰 호텔보다 더 아름다운 분위기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룻밤을 쉴 수 있게 하신 거라 생각되었다. 그 아늑한 방에서 나는 슬프고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다.

이튿날 스위스 목사님 내외가 찾아오셨다. 목사님은 오는 10월경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목회자 회의에 가실 계획인데, 그때 큰 모사님을 만나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목사님 내외분의 안내로 그 주위를 잠시 관광한 다음, 그 분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다시 빠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 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또한 스위스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내가 다시 한 번 내가 그 곳에 들르기를 원했기에 Manoir주인에게 여름방학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방을 예약해 두었다. 그 곳을 떠나오면서 왠지 마음이 가벼워오는 듯 했고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방학이 되어서 다시 그 곳을 찾아갈 때는 불로

뉴 교회에서 나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장로님 내외와 함께 동행했다. 그 내외분은 나의 사정을 알고 난 후부터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다. 조용한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주신 분들이었다. 다시 스위스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곳까지 따라오신 것이다. 그리고는 스위스 목사님에게 나의 진실을 함께 증명해 주고, 그 곳에서 하룻밤만 묵고 빠리로 돌아가셨다. 너무도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의 괴로움을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생각해주신 분들이었다. 특히 서울 큰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나를 약간 정신이 나간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만 하고 있었던 때에 그 분들은 내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다.

그 분들이 그 곳을 떠나면서 호텔 Manoir 주인에게 프랑스 오페라 가수라고 나를 추천세워 주셨기에 그 집 주인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집주인은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참 음악 이야기를 나누다가 '2001년 국제성악연수회'를 그 곳에서 개최하는 계획을 세웠다.

나는 국제성악연수회를 열 계획으로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게다가 내가 오페라에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때였

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빠리로 돌아와서는 9월부터 차근차근 연수회를 준비했으며, 다행스럽게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빠리에서 스위스를 자주 왕래해야 하는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적은 돈으로 아주 멋진 차를 장만하게 되어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

또한 나는 정년퇴직 후 아들과 함께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원했었다. 운이 따르려고 그랬는지 오페라에서 받은 월급봉투를 마지막으로 은행에 보여주어 용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에 드는 공간을 장만할 수 있었다.

한편, 스위스 목사님은 자기 교회의 복잡한 문제로 계획했던 일본의 목회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해왔다. 몇 번 서울의 큰 목사님의 교회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그저 나를 보고 잊어버리라고만 이야기해주셨다.

이듬해였던 2001년 6월의 내 생일날에 나는 오페라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곧이어 6월 25일에는 스위스에서 첫 국제성악연수회를 개최했다. 그 행사는 너무도 성공적이었다. 오페라 친구들은 오페라를 떠나고도 이렇게

축복 받은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이름을 걸고, 더구나 동양인인 내가 국제성악연수회를 열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참가한 학생들도 모구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로 있었고, 나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연수가 끝나고 한 달이 넘도록 두고두고 즐겁고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였다. 그 학생들과는 지금까지도 음악적 교분을 쌓아가고 있다.

국제성악연수회는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길이었다.

문득, 언젠가 한국의 부흥 목사님과 어느 집사님께서 나를 안수하시면서 예언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기구, 유명한 선생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신 성악의 테크닉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내 음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세상에서 더 부러운 것이 없는 듯했고, 다시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놀랍게도 뒤늦게 예술의 정렬에 불타고 있었다. 모두들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모두 그 힘이 어디에

서 나오느냐고 의아해하며 놀란다.

그 다음해 두 번째로 맞이한 성악연수회도 아주 성공적이었다. 학생 모집 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이 아주 높았기에 첫 해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연수 마지막 날에 연 음악회는 너무도 수준이 높고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제는 스위스 신문과 그 주위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의 연수회 참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나는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연주회를 개최할 것이다. 학생들도 나에게 와서 그들의 음악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나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 나 또한 그들 앞길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을 느끼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분명하기에 그 길과 복만을 생각하게 되니 힘들었던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다. 자유의 여왕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구속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전념하면서 다시 자유를 되찾았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삶들이 지나고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졌다는 말도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터득하지 못했던 노래의 창법을 뒤늦게나마 터득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더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로 인해 힘들어 헤매고 있는 젊은 성악가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고르게, 크고 멀리, 오랫동안 호흡을 붙여서 젊은 목소리를 오래 간직하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찾아주고 있노라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발전되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을 느낀다.

어리던 아들 민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독립해서 살고 있다.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며 옆길로 가지 않고 잘 자라준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한다. 나를 떠나서도 잘 살고 있으니 아들에 대한 나의 의무도 이제는 끝이 난 것 같아 한숨을 돌린다.

이제는 늘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기도와 예술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 속에서 평범한 이 세상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내 짧은 생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어누 누구도 더 잘나고 더 못나다고 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만나고 부딪치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중한 개체이다. 그 평범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서

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좀더 훌륭하다고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한 마음에서 약자를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함께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개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억누르고 일어서서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나 자신을 반성하며 좋은 것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언젠가 문화극장님 부인이 나에게 “유명한 이름을 가졌다면 이는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목사님과의 일로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언젠가 오순절 날의 기도 속에서 느낀 영감처럼 이제껏 내가 참아오고 노력해왔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글로써나마 풀어낼 결심을 했다. 한 맺힌 나의 생을 세상에 공개하여 흘흘 털어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저 인런 삶도 있었고, 이런 여자도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뿐이다. 반드시 의롭고 영광스러운 사람만이 세상에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모두가 나름대로 주어진 삶은 귀한 것이라고 외치고 싶다. 누구에게나 이름 없는 비목이 되어 돌이 되어 쌓이고 이

끼 되어 맺혀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생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에필로그

내 어린 시절, 그리고 첫사랑

내 넋두리를 마치기 전에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나의 첫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아픈 첫 사랑이 나를 빠리로 이끌게 한 이유였으므로...

해방의 기쁨이 가시지 않은 1926년 여름의 어느날, 나는 팔 남매 중에 일곱 번째로 태어났다.

부모님들은 서울 사람이었는데 대전에서 정착을 하여 우리들은 그 곳에서 호적을 갖게 되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엄마와 함께 큰 어물전을 하셨다. 대흥동의 자그마한 산자락 밑에 세 칸 짜리 초가집, 그 마당 한가운데는 아름다운 석류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초가집의 앞쪽에는 논이, 옆쪽으로는 보리밭이 있었고, 뒤쪽에는 보문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봄이면 그 뒷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물을 캐곤 했다. 집 옆으로 펼쳐진 보리밭을 가로질러 가면 대사동 쪽의 산 밑으로 아주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그 곳은 어른들의 빨래터였으며, 견딜 수 없이 더운 여름날에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미역을 감고

물장난을 하기도 했다. 밤이면 모닥불 옆에서 멍석 위에 누워 모여드는 모기와 잠을 쫓으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가을날, 논두렁을 지날때면 툭툭 튀어 오르는 메뚜기 때를 잡아 한 줄로 엮어 노는 것도 꽤 재미있는 놀이였다. 맑은 가을의 달빛 아래서는 숨바꼭질과 강강수월래를 하기도 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초가집 지붕 끝에 주렁주렁 고드름이 매달렸다. 고드름을 따서 놀기도 하고 고드름이 그 주위 바닥으로 녹아 떨어져 땅에 얼어붙으면 그 위에서 썰매를 타는 재미도 있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웠던 나의 어린 시절.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 살아 있어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뚜렷이 떠오르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4살 무렵, 부모님을 따라 온 가족이 6.25 피난을 가는 길이었다.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가는, 문도 없는 화물열차 안에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인이 있는 대구로 가기 위해 그 화물열차를 타고 있었다. 기차는 움직이는 것보다 정지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날씨는 무더웠고, 지루하기만 했다. 나는 갑자기 배가 아파 엄마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옆에 문 쪽으로 앉아 있는 분에게 나를 기차 밖으로 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기차 밖에

서 쪼그리고 앉아 불일을 보고 있는데 기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붙잡아 올려달라고 했고 나를 기차 밖으로 내려놓았던 그 분이 내 손을 잡아끌어 나를 다시 차 위에 올려놓았다. 차 위에 간신이 오르자마자 기차는 떠나기 시작했다. 하마터면 나는 전쟁고아가 될 뻔했다. 너무나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구에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 어른들이 뒷마루에 나오시면서 저쪽을 보라고 했다. 낙동강 건너편 먼 밤하늘에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이 폭탄이 펑펑 터지고 있었다. 그 밤하늘의 모습, 그 광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1.4 후퇴 때의 일이다. 그 때는 큰오빠와 큰형부가 직업 군인이었다. 다시 피난 짐을 간단히 꾸려 오빠와 형부가 보내준 군인 트럭을 타고 부산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트럭에 실린 짐들 속에 묻혀 숨어서 가고 있었다. 가끔 미군 헌병들이 손전등을 휘두르면서 조사할 때 엄마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쉬~' 하면서 우리를 조용히 시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짐 속에 고개를 파묻고 엎드려야 했다. 그 해 2월에 태어나 아직 갓난 아이였던 동생이 울려고 하면 엄마는 동생의 입을 막아 소리를 못 내게 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는 엄마가 고구마를 삶아 길거리에서 팔았다. 엄마는 창피해서 고구마를 둔 곳에서 멀리 계시곤 했는데, 엄마를 도와주려고 어린 내가 나서서 그 곳에서 붙어서 지키곤 했다.

어려웠던 순간을 잘 모면하여 우리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다. 대전이 불바다가 되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구석진 산 밑의 우리 초가집은 그대로 남아있어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다. 전쟁통에 우리 형제들이 다 함께 살지는 못 했지만 모두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전쟁을 치른 나라는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해 우리를 잘 먹이고 입혀 주셨기에 우리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밥을 굶지는 않고 살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가끔 끼니를 거를 때가 있었다.

우리 집 뒷집은 대처승의 절 집이었는데 부모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기에 우리와 거의 친척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절 집에 초대되어 자주 절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절 떡을 자주 맛볼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3대 독자였기 때문에 친척이라곤 별로 없었다. 외가 쪽으로 외할아버지와 이모, 외사촌이 몇 분 계시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5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서른에 가까워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 관악산에 있는 절에서 휴양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대낮에 아주 쓴 물이 먹고 싶어서 술밭으로 가서 술잎을 짓이겨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나니 병이 완쾌하셨다고 했다. 그 후 결혼한 다음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왔다고 했다. 우리 집이 절은 아니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우리 집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고 아버지는 언제나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스님들처럼 목탁을 치고 종을 치면서 예배를 올렸다. 어릴 때는 아버지 흉내를 곧 잘 냈고, 더운 여름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불러서 옆에서 부채질을 해달라고 할 때도 있었기에 아버지가 외우는 염불을 옆에서 듣고 자란 나도 거의 따라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볼까봐 무척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나는 성격이 무척 밝고 명랑했으며, 모두들 내가 상냥하고 인정이 많으며 인사성이 바른 아이라고 칭찬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귀여워했으며 늘 인기가 좋은 편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동네의 언니들과 함께 공연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나는 특히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했다. 가끔 큰오빠와 큰형부가 집에 오시면

나를 보고 춤과 노래를 해보라고 했는데, 나는 거침없이 이쪽에서 저쪽 마당까지 뛰어 다니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곤 했다.

어린 시절 제일 힘이 들었던 기억이라면 살을 에는 듯한 겨울날에 콩콩 얼어붙은 샘물 가에서 세수를 해야 했던 것과 마당 구석진 곳에 있는 변소에 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엄마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시기에 낮에는 엄마를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여서 그랬던가 보다.

새 언니와 사촌 언니가 나를 많이 돌봐 주었는데, 나는 그네들 손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다가 명절날이나 제삿날이 되어 엄마와 함께 하루종일 있을 수 있는 날이면 나는 아주 행복에 겨워했다. 손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뽀뽀가 기뻐다.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나는, 우리 집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등생이었고 줄곧 반장을 했었다. 게다가 한 번도 학교를 빠져본 적이 없어서 6년 개근상도 받았고 학교를 아주 좋아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날 아주 똑똑하고, 통솔력이 있으며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으며,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다.

부모님께서는 한 번도 학교에 와 준 적이 없었지만, 나는 걱정을 끼칠 일 없이 내가 할 일들을 잘 해내갔다. 노래도 곧잘 했고, 그림, 무용, 체육 등에서도 뛰어나 학교 대표로 대회나 행사에 나가기도 했다. 특히 고학년이 되어서는 여학생 대표로 아침 전교 조회시간에 앞에서 구령을 부르면서 전교생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 때 남학생 대표였던 아이는 대학교 학장의 아들이었다. 그가 지금은 국회의원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아주 화려하게 팔방미인이란 평을 듣던 모범생이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구의 어머니들까지 나를 많이 아껴주고 집으로 초대해 주었다.

그 후 대전여중에 입학했는데, 2학년 때 4.19 혁명을 겪게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젊지 않은 나이였고, 그 때부터 건강도 좋지 않아 하던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큰오빠와 큰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뜰이나 없는 형편에 학비나 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여자가 많이 배우면 안 된다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나는 몇 번 눈물을 흘리다가 돈 달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 때부터 내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입시생 몇명을 모아서 과외지도를 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교복과 책은 선배 언니들에게 물려 받기도 했다.

모범생이긴 했으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형편 때문인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성적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성악만을 붙잡고 있었다. 피아노를 몹시 배우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끔 레슨 받는 친구들을 따라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때마다 나도 배우고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그 당시 언니와 오빠들은 서울에서 큰오빠와 큰언니의 도움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화여대에 다닌 언니가 방학이 되어 집에 오면 나는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예쁜 옷에 대학 배지를 달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아름답고 부러웠다. 그 언니는 큰오빠와 큰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 그대로 결혼을 했으므로 바로 위에 있는 오빠와 나, 동생은 어렵게 학교를 다녀야 했다. 큰오빠와 큰언니가 계속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대주었기에 우리는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지만, 오빠와 언니가 동생들의 학비까지 도와줄 수는 없었던

형편이어서 도움 받을 생각조차 못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사춘기를 보내야했다. 머리속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꿈과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날개를 치고 있었다.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맞지 않는 현실에서 허우적대느라 머리속은 아주 복잡했다. 그렇게 늘 복잡한 생각으로 방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골몰해 있었다.

대전여고 시절, 점점 어려워지는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난 대학진학의 꿈을 품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만으로 성악을 전공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없는 형편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꼭 최고의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연히 서울대학 음대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여고 2학년 때 친구 하나가 성악을 전공할 계획으로 서울로 다니면서 서울대학 음대 교수에게 레슨을 받고 있었다. 그 친구는 점점 나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저 가슴앓이만 해야했다. 없는 형편에 서울로 다니면서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여중과 여고 시절에 적십자 단원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항상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리고 있었기에 이성에는 눈을 뜨지 못했던 것 같다. 등교 길

에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 한 남학생이 좀 멋있어 보여 계속해서 마주치려고 노력했던 것이 전부였다.

고 3이 되면서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집에는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쳐 본 적도 없었고, 집에서도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아니면 앞가림을 잘 하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게 자유를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입학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나는 서울대에 수석으로 있는 언니가 대전 출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언니를 찾아가 레슨을 몇 번 받았다. 그리고 서울의 큰 언니 집에 있게 되면 없는 형편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나를 별로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 친구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여유가 있는 친구였다. 그 친구도 이화 음대 성악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입학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니 친구는 꽤히 승낙했다. 그래서 종로 인사동에 있는 그 친구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집에는 밥해주는 아줌마와 이모 같은 분이 있었다.

시험 날이 내일로 다가왔을 때였다. 살을 에는 듯한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한 사흘 전부터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다. 갑자기 나와 말도 하지 않으

려고 하면서 차가운 표정을 짓는 듯했다. 그러더니 바로 시험 전날 밤에는 나와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이모와 일하는 아줌마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살벌했다. 내가 말을 걸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데다 너무도 참기 힘든 분위기여서 예만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내가 나가 주기를 원한다면 나가겠다고 하면서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 그집에서 나와야만 했다.

내일 시험을 봐야하는데 그저 막연하기만 했다. 추운 겨울에 울면 목이 아플까봐 울음을 참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종로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친구의 집을 향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은행에 다녔는데 서울로 전근하여 성북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대전여중 때 가사 선생님이셨고 나를 귀여워해 주신 분이었다. 대전에 있을 때 나를 자주 초대해주셨기에 집안 식구들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밤늦게 초인종을 눌렀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추운 밤에 늦게 웬일이냐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 주셨다. 따뜻한 그 분의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내일 시험을 봐야되는데 갑자기 함께 지내던 친구와 문제가 있어서 갈 곳이 없어 찾아왔다고 하면서 나는 울었다. 내일 시험을 위해서 참고 참았지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

다. 어머니는 나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다음날 무사히 시험 장소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 정신적으로 몹시도 지쳐있었기에 마음을 안정하고 시험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 노래 시험과 다른 시험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악전 시험에서는 내 실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 시험지를 대하고는 찢찢 맬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큰오빠가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부모님은 큰오빠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하고 나는 원남동 쪽에서 방을 하나 얻어 바로 위의 오빠와 동생과 함께 터전을 마련했다. 나는 집안 살림을 했으며, 동생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오빠는 건축대학을 다니면서 입시생들을 가르쳐 생활비를 벌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연건동에 좁은 두 칸 짜리 방을 얻어 이사가 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비록 좁은 셋집이었으나 나는 서울 문리대 앞, 그리고 미대 옆에 위치한 연건동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나는 동네 중학교 입시생들을 조금씩 가르쳤고, 추운 겨울날 신세를 졌던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그 친구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용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막연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사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취직자리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을이 되었고 다시 입시철이 돌아오고 있었다. 시험 3개월 전, 나는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자 결심했다. 엄마에게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쳐보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내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파 무어라 말할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렇게 원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실 따름이었다.

다시 레슨을 받던 그 언니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 한 번 더 시험을 보겠다고 하며 이를 악물고 악전 공부를 철저히 했다. 나는 왜, 어디에서 실패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했다.

그 결과, 나는 입학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오히려 실패를 모르고 성공한 것보다 기쁨은 배였고 더욱 가치 있게 느꼈다. 내 힘으로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고 보니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다. 실패와 성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므로 나의 입학 성공은 더욱 값지게 여겨졌다.

나는 교수님들하고의 접촉 없이 입학했기에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수님과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고 지금도 그 분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한편 기초가 없이 들어간 나는 무척 힘들었다. 무조건 잘 하려고만 하니 항상 마음이 떨려서 선생님 앞에서 실수를 자주 저질렀다. 레슨을 가게 되면 진땀을 뻘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서울음대에 다니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고 행복했다.

대학 생활은 아주 재미있었다. 돈도 없는 내가 서울음대 이름만으로 힘들이지 않고 명동에서 피아노를 월부로 구입할 수가 있었다. 불교 집안으로 태어난 나였지만 대학시절에는 인사동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성가대 솔리스트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보잘 것 없는 나였지만 이 또한 서울음대 이름만 갖고도 기를 펴고 다닐 수가 있었다.

2학년을 마쳤을 때, 지도 교수님이 미국인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나셨다. 남은 제자들은 고아처럼 되어 버렸고 그래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남은 2년 동안 나는 거의 발전도 없이 졸업하게 되었다.

그 무렵, 다른 동창들은 외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으나 나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직장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S여자대학교 부속중학교인 H여자중학교의 음악 선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늘 배움을 좋아하던 나는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직장을 갖고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다. 부모님도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았다.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옷도 사드릴 수 있었다.

그 즈음 건축대학을 졸업한 오빠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점점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다. 오빠는 대학시절에 과외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느라고 무척이나 고생했었다. 이제 그런 고생을 뒤로하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으나 덕분에 나의 목은 매일 쉬어 있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나면 언제나 목이 피곤했다.

어느 날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음대에 갔을 때 어느 테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늘 목이 쉬어 있는 듯한 내가 안쓰러웠는지 조금 더 편한 학교가 있다고 하시면서 J대 부속학교를 소개해주셨다. 오래 전부터 기반이 다져진 학교여서 음악 선생, 미술 선생이 각 4명이나 있었다. 마침 빈자리가 생겨서 학교를 옮길 수 있었다.

첫 학교인 H중학교는 정이 들어서 좋았지만 음악 선생이 단 하나 뿐이었기에 무척 힘이 들었다. 전근한 J대 부속학교에는 음대 동창인 친구의 언니가 미술 선생으로 있어서 나를 동생처럼 대해 주었고, 또 다른 음대 선배들도 있었기에 아주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나는 대학원에서 계속 좋아하는 음악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서도 생활비도 있었으므로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했고. 뭔지 모를 내 멋에 젖어서 나 아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술 선생과 음악 선생들은 전부 S대학 출신들이었다. 나는 미술 선생인 친구 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미술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언니와 수다를 떨기도 했다.

미술실에는 젊은 남자 미술 선생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그 곳에서 자기 작품에 몰두했다. 그는 자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품을 하곤 했다.

그때 나는 연건동에서 흑석동에 있던 J대 부속학교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종점에 도착해서 버스비를 내려고 했는데 차장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서 내 차비를 받았다고 했다.

버스 뒤쪽에서 그 남자 미술 선생이 나를 보고 씩 웃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집에서 두 정거장을 더 가 혜화동에서 출근을 하고 있었고 내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

고 내 차비를 내주었던 것이다.

나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그는 말이 별로 없는 경상도 '사나이'였다. 씩 웃어 넘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는 미술실에서 항상 열심히 자기 작품에 몰두하는 예술가였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전시회 준비 작품으로 여자의 손을 석고로 떼야 하는데 내 손을 모델로 하고 싶다며 부탁을 해왔다. 나는 쾌히 승낙했고, 그는 고맙다며 커피를 한 잔 사겠다고 제의했다. 그렇게 카페에 마주 앉아서도 그는 말을 잘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별로 할 말이 없어 곧 헤어졌다. 그 때까지 그저 특별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무심히 그를 대했다.

그 후 며칠 간의 연휴가 있었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내리는 눈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그 미술 선생의 모습이 떠올랐고 말할 수 없이 그가 보고 싶어졌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의 억양과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자는 탓인지 자주 지각을 하여 허둥지둥 교무실에 들어서는 모습, 미술실에서 작업에만 열중하던 모습, 말 대신 씩 웃어넘기는 모습 등 그 모두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온통 그가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걸잡을 수 없이 설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하루 빨리 학교에 가는 날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며칠을 보냈다.

드디어 연휴가 끝나고, 그래도 여자로서 남자에게 먼저 좋아한다는 표정을 나타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교에 출근했다. 그러나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자 도저히 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느껴도 내가 암전하고 조용해져 있었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날 친구의 언니인 미술 선생이 나를 불렀다. 오늘 저녁 교사 전 직원의 회식이 있는데, 언제나 새로 들어온 음악 선생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전통이 있으니 노래를 준비해 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음악실에 내려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다.

저녁의 회식자리, 언니의 충고처럼 교장선생님이 나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했고 나는 서슴지 않고 노래를 하려고 앞으로 나와 섰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노래하지 마"라는 경상도 사투리가 터져나왔다. 너무 놀라서 그 쪽을 쳐다보니 그 미술 선생이 나를 보고 소리를 친 것이었다. 육성회장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중고등의 전 교사가 있는 앞에서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획대로 준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서 나가 버렸다.

노래를 마치고 내 자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보았다. 그가 내 마음속에서 강렬히 떠오르듯이 아마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약간 기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조회 시간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좀 걱정이 되어 다른 남자 미술 선생에게 그의 소식을 물었다. 그 날 저녁 다른 곳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신 것 같다고 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교무실에 들어섰다. 나는 반가워서 얼른 그의 앞으로 가서 "선생님"하고 불렀다. 그는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주변의 다른 선생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아, 나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 당신 자리에 가라"며 신경질적으로 대했다. 나는 그 태도에 너무 놀라서 내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그는 나하고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을 일절 거부했다. 왜 그가 나에게 그토록 화가 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왜 나에게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대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이유도 모르면서 그에게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그 후부터 나는 완전히 그 사람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말았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대화를 거부당하고 무시를 받고 있으니 무척 힘들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직장도 다녀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하던 내가, 그로 인해 갑자기 힘겨워졌다.

나는 계속해서 그와 대화를 가져보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차분하고 안전한 행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3년을 보냈다. 퇴근하고 나면 명동에서 대학 친구들을 만나 내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했고, 어떻게 하면 그와의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궁리하곤 했다.

명동에서 동창 하나가 살고 있어서 그 곳은 언제나 우리의 만남의 장소였다. 몇몇의 동창들을 외국 유학의 꿈을 꾸면서 길을 찾고 있었다. 당시는 유학 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은 유학 시험을 쳐서 길을 열었고, 시험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자비 유학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친구들은 한 명씩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유학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저 직장에서와 대학원에서의 위치에 만족했다. 그러다가 그 미술 선생 때문에 괴로워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떠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매우 섭섭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모든 선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버렸다. 그에게 무슨 말인가 듣고 싶었지만,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

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기 싫었다.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그를 욕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한 달이 지났다.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중학교에서 일하는 급사가 중학교로 내 전화가 왔으니 받아보라고 했다. 출근하자마자 그 전화를 받으려고 급히 중학교 교무실에 달려갔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 미술 선생의 전화였다. 전화선 너머로 그의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왔다. 영똥하게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니 지금 당장 대구로 내려오라고 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친구 언니인 미술 선생과 의논했다.

그는 너무도 특별하고 영똥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대화의 문은 닫혀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급히 교감 선생님에게 조퇴 허락을 받고 엄마에게는 오늘 어디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집에 못들어갈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 서둘러 고속버스를 타고 그가 살고 있는 대구로 내려갔다.

그의 화실 주소로 찾아갔을 때 그는 약간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주위에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는 자기멋대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했다. 그리곤 친구들과 얼마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 떠나고 나자 그는 내가 참 착하게 생긴 건 같아서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내게 꼭듯이 대접해주셨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그를 따라 다시 화실로 왔다. 나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대화를 가져 볼 기회도 없이 그 화실에서 그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되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반대할 수도 없이 그의 각본에 따라서 결혼을 결정했고, 처음으로 순결을 그에게 주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나를 데려다 준다면 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나도 엄마한테 갑자기 이 소식을 알려드렸다.

그를 집에 초대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시켰고,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엄마는 나를 시집 보낼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허둥지둥 광목을 물에 담그시면서 이불 준비를 한다고 서둘렀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 달 후에 다시 서울에 오겠다고 하고는 헤어졌다. 그는 흑석동 J대 부속학교 앞에 화실을 갖고 있었다. 주로 여동생이 거기에 있었고 그는 대

구 화실에 거처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에 나가고 있었고, 주위에서도 이 소식을 많이들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와의 결혼을 기다리며 무척 행복하고 평온한 봄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한 달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기에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나에게 전화도 주지 않았고, 그의 성격을 알고 있는 나 역시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많은 생각 끝에 갑자기 돈이 없고 결혼에 대한 부담이 커서 소식이 없나 생각하며 연락도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그를 만다는 순간 뭔지 모르게 그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말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전시회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을 해서 나는 조금의 돈을 내놓고 돌아섰다. 그는 싫다고 펄쩍 뛰었지만 그대로 두고 와버렸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회 문제로 서울에 올라왔다고 들었지만 나에게서는 전화도 없었다.

나는 무조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

는 더 이상 이 지겨운 기다림을 깨트리기로 작정하고 내 발로 그가 머물고 있는 서울의 화실로 찾아가서 싸움을 걸었다. 한 달 후에 결혼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 와서 나에게 연락도 않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이렇게 답답하게 참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불안정한 기다림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무척이나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나였다. 그로 하여금 나를 아무렇게나 버릴 수가 없었고, 또한 더 이상 그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괴로운 심정으로 그냥 자살하고 싶었다. 도깨비처럼 갑자기 결혼한다고 떠들어 놓고는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해 주위 사람들 보기가 너무 창피했다.

이때까지 나는 어렵지만 의롭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내 꼴이 싫어졌다. 학교 선생들이나 학생들 보기가 창피해서 시간만 있으면 혼자 울었다.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울다가 밖에서 눈을 씻고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극을 하기도 했다.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학교가 너무 멀어서 힘이 드

니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다. 하숙방에서도 자주 울면서 생각했다. 나는 일단 결혼 문제를 뒤로 제쳐놓고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이대로 살수가 없다는 생각에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멀리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유학을 핑계로 나도 친구들처럼 외국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미국은 학비가 많이 든다고 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프랑스를 생각하게 됐다. 나는 그림을 좋아했고 또 음악에도 프랑스 음악이 중요하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프랑스, 그 예술의 나라가 마음에 끌렸다.

그래서 그 때부터 불어 공부를 시작하고, 유학 시험 준비를 했다. 그 때에는 뒷배경이나 돈이 없으면 유학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환경을 바꾸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대 불문과 교수에게 불어 지도를 받았다.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떠난 후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앉아서 불어 공부와 국사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피곤한 데다 마음이이 안정되지 않았고, 공부하는 습관도 불어 있지 않아 의자에 10분도 앉아 있기 힘들었다.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금방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우선 앉아 있는 습관부터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분 앉아 있다가, 점점 5분씩 10분씩 늘려 나갔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앉아 있는 습관이 들었고, 그 후부터는 밤 늦게까지 앉아서 공부하는데 익숙해졌다. 도를 닦는 사람처럼 점점 머리가 트이는 것 같았고 읽고 외우는 것들이 머리에 복사한 것처럼 남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무섭도록 공부를 한 것 같았다. 잠깐이나마 내머리가 환히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몇 달을 공부하여 유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국사와 불어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합격하기는 힘이 드니,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합격해 놓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과목을 통과하자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다.

시험 결과 발표 날은 11월 달이었고 눈이 조금씩 날리고 있던 날이었다.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 붙여 놓은 그 결과를 보러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국사 합격자 명단에서는 내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불어 합격자 명단 앞에서도 내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무척 실망했다. '그러면 그렇지 네 까짓게 무슨 유학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멸시했다.

그런데 뒤돌아 서서 가려고 하는 순간, 두 과목 다 합격한 사람의 명단이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해서 고개

를 돌려 보았더니 놀랍게도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의 그 놀람과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도 감격해서 그 넓은 종합청사 마당에서 종로까지 걸어오면서 기쁨과 한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집에 그 소식을 알렸다. 모두가 나를 대견하게 생각해주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대학원 교수님들도 모두 나를 축복해주었다.

이제 나는 비행기 티켓 구입비만 있으면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나는 아는 이 하나 없는 외지에서 죽든 살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당시 아버지는 노환으로 72년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고생하셨다. 어머니는 나를 멀리 보내는 마음에 몹시 섭섭해하면서도 대견해 했고, 기뻐했다. 딸이 유학을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찬 것도 같았다. 나는 우리 집에서 장한 딸이었고, 동생이었고, 언니였다.

프랑스로 떠나오기 전에 지도 교수님의 지도로 명동극장에서 도불독창회도 열었다. 또 다른 E교수님도 나를 보고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조금의 돈을 주시면서 넘어지면 발딱 일어나는 오뎅이 같은 인생을 살라고 격려해주셨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

다. 대구에 전화를 했더니 그가 없어서 그의 부모님에게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의 아버지께서 공부 잘 마치고 돌아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드디어 74년 여름, 홀트아동복지회에 신청을 해서 노르웨이에 어린 아이들을 보내주는 비행기편으로 빠리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을 떠나오게 되었다.



가야금으로 연주된 나만의 가요들이 또 다른, 또 다른
여성의 마음을 울려서 사랑 노래로 이어지고, 바다와
가야금의 울림이 한층 더 깊어진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었던 나만의
사랑 노래들을 이제나 저지러 노래하고 싶었다.
가야금으로.

사랑 노래, 연인 노래, 가요곡, 또 가요곡.
사랑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게 무엇이든.
모든 사랑에는 모든 나만의 사랑 노래가 있어야 한다.



8700000000000

2021.09.19(수) 발매

거친 문물 제작